

공군

1963年 11月 25日 印刷
1963年 12月 1日 發行

12

第 81 號



1963

〈送年號〉



한미공군합동회의 개최

한미공군합동회의가 11월 8일 장(張)총장과 주한 미공군사령관 밋첼 장군을 비롯한 한미고위참모 다수 참석리에 본부기획 상황실에서 개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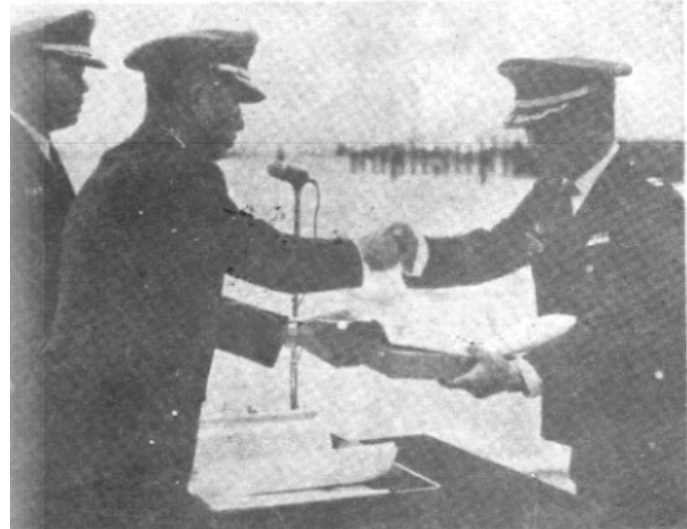
한미친선향우단 시민위안(慰安) 공연

한미친선향우단이 11월 24일 구림리(舊林里)에서 시민위안(慰安)연주를 베풀어 큰 성황을 이루었다.
 >사진(사진)은(은) 공연(演)의 한 장(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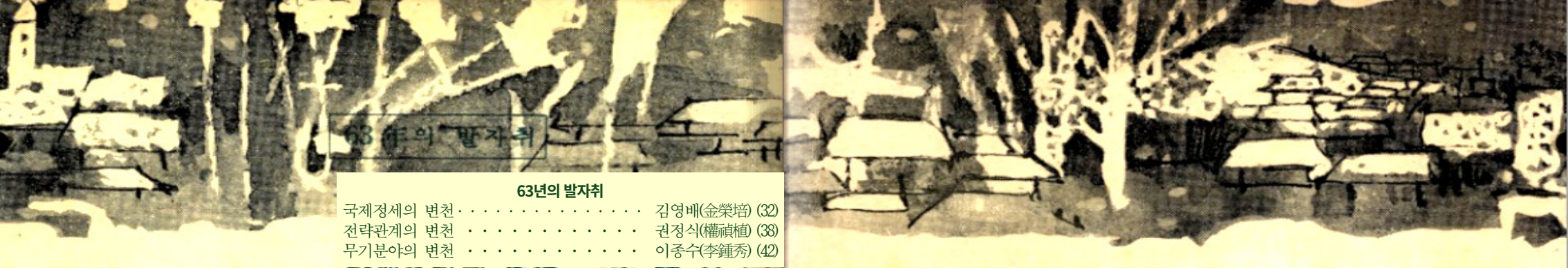


H-19 창정비정비

항공본창 81수리창에서는 10월 5일 H-19 헬리콥터의 첫 시험창정비를 완료하고 시험비행을 성공리에 수행하였다.
 >사진(사진)은 창정비를 마친 H-19과 관계 정비를<



5천시간 무사고 비행
 10전비 제 103 비행대와 제 10기 지은영대
 대가 각각 5천시간 무사고 비행기록을 수립하여
 11월 9일 장성환(張盛煥) 참모총장이로부터 영
 예의 표창장을 받았다.
 >사진(사진)은 장성환을 대리하여 영단과 단장의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다<



63년의 발자취

63년의 발자취

국제정세의 변천	김영배(金榮培) (32)
전략관계의 변천	권정식(權禎植) (38)
무기분야의 변천	이종수(李鍾秀) (42)

공군 제81호 차례

표지 · 목차	민철홍
사진화보	표지2·3면 및 목차 뒤

반성하는 생활태도	손명현(孫明鉉) (8)
-----------	--------------

◇ 갈매기 쫓아 동해안으로	지승룡(池昇龍) (47)
◇ 오키나와를 다녀와서	강신봉(姜信鳳) (139)

<특집> 돌아보는 마음가짐

정신생활의 반성	김경태 (12)
가정생활의 반성	박희규 (18)
사회생활의 반성	유철중 (24)
군인생활의 반성	마종인 (27)
	이기철 (29)

현대전(現代戰)에 있어서의 과학의 중요성	정석화(鄭奭和) 역(譯) (52)
소련의 AMM 현황과 장래	홍성표(洪聖杓) (71)

의 명 <제5회>	임어당(林語堂) (105)
-----------	----------------

연예인의 송년 위문 (76) 63년 공군 10대 뉴스 (193)

제 3공화국의 길목에 서서

제 3공화국 수립의 역사적 의의(의의)	류홍렬(柳洪烈) (78)
서구민주주의의 소화(消化)에 대한 관견(管見)	이보형(李普珩) (84)
제 3공화국 국민의 기본 자세	신영철(申永澈) (89)
제 3공화국의 경제발전책(經濟 발전策)	신태환(申泰煥) (95)
제 3공화국과 승공(勝共)	유봉영(劉鳳榮) (100)

◇ 창공(蒼空)에 부치는 글	박기원(朴琦遠) (145)
◇ 국수와 누나	정제관 (148)
◇ 내부의 적 하(下)	류기영(柳奇影) (143)

<요약> 제 3제국의 흥망 (제5부)	(118)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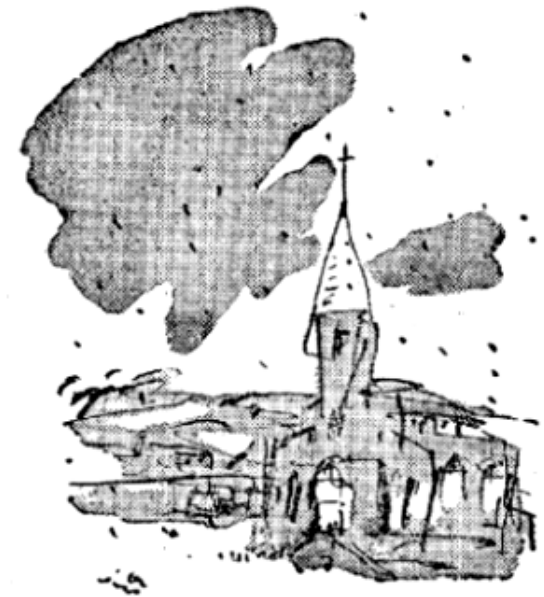
<단편> 이름	류병수(柳並水) (152)
---------	----------------

63년도 공군지 중요목차 초(抄)	(159)
--------------------	-------

후기	(162)
----	-------

공 군

제 8 1 호



1 9 6 3

출 권 호

발행처 · 공군본부 정훈감실(政訓監室)
 발행 겸 편집인 · 공군대령 김영호(金榮浩)
 인쇄처 · 공군 교재창(敎材廠)
 인쇄인 · 공군대령 백춘득(白春得)



하우스우엔군사령관 10전비(戰飛) 방문

UN군사령관 하우스 대장 일행이 10월 29일 10전비행단기를 방문하였다.



스마트 대장(大將)공사(竣工) 방문

11월 5일 내한한 미(美) 태평양지구사령관 스마트 장군이 6일 공군사관학교를 시찰하고 특별연설을 하였다.
 <사건의>공사서연설하는스마트장군>



<송년의 말>

반성하는 생활태도

손명현(孫明鉉)

<고대(高大) 교수>

인간은 다른 하등 동물과 달라 본능에만 지배되어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지성을 가지고 자기의 인식, 생활, 행동을 반성하여 정확한 인식, 보다 나은 생활, 올바른 행동을 의도한다. 그 점에 항상(向上)이 있고 발전이 있고 창조가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이와 가온 인식·생활·행동의 기초가 되는 올바른 판단을 함에 있어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확실치 않은 것을 확실하다고 믿고, ‘올바르지 않은 것을 옳바르다’고 믿는 편견·선입관일 것이다. 그러므로 올바른 판단을 함에는 반성에 의하여 이러한 편견·선입관을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에 도움이 될까 하여 다음에 데카르트의 소위 ‘방법적 회의(懷疑)’와 베이컨의 ‘우상론(偶像論)’을 소개하여 보려고 한다.

근대 철학의 시조라는 칭호를 받는 데카르트(Descartes 1596-1650)는 아직도 중세기적(中世紀的)인 전통 하에 있었던 학원(學院)에서 받은 교육에 대하여 불만을 품었다. 왜냐하면 그것에서는 재래(在來)의 전통적인 교설(敎說)을 권위 있는 것으로 받들고 주입할 따름으로서 아무런 비판적인 정신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비판적인 안광(眼光)으로 볼 때 재래(在來)의 교설(敎說)에는 한나도 확실한 것, 진실로 권위 있는 것은 없었다.

그런데 데카르트가 구한 것은 의심하러야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것이었다. 이러한 것을 하나만이라도 발견할 수 있다면, -마치 기하학(幾何學)에서 정의(定義)와 공리(公理)를 기초로 하여 모든 문제를 질서정연하게 논증하듯이- 이를 기초로 하여 자연이나 인간사에 관한 지식체계를 건설할 수 있으리라고 그는 생각하였다. 그러면 그런 것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는가?

재래(在來)의 전통적 교설(敎說)이 믿을 수 없는 불확실한 것이라면 우리의 건문지각(見聞知覺)과 같은 직접적인 경험에는 확실한 것이 있는가? 나는 지금 천상을 향하여 앉아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보는 이 책상의 빛깔, 형태, 크기 등을 의심할 수 없는 것일까? 나의 눈 앞에는 갈색, 구형(球形), 일정한 크기의 책상이 보인다. 그러면 이것이 책상의 진정한 객관적인 속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보통 정면에서 가까이 볼 때 나타나는 그 크기, 형태, 빛깔을 가지고 그 진정한 속성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편의상 그렇게 생각하는 데 불과하다. 엄밀히 고찰하면 빛깔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광선의 조건 여하(如何)에 의하여 달라진다. 형태나 크기도 보는 사람이 선 위치에 따라 달라지고 같은 위치에서 본다 하더라도 육안(肉眼)으로 보느냐 현미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면 그 중 어느 것이 책상의 진정한 속성이라고 해야 좋을지 의심스럽다. 시각의 대상이 이와 같은 뿐 아니라 촉각의 대상도 다름이 없다. 처음에 손을 넣어 보니 미지근한 물이 있다고 하자. 그런데 먼저 찬 물에 손을 넣었다가 동일한 물에 넣으면 뜨겁게 느껴지며, 먼저 뜨거운 물에 손을 넣었다가 동일한 물에 넣으면 차갑게 느껴지는데, 동일한 물이 미지근하게도 뜨겁게도, 차게도 느껴지니 어느 느낌이 사물의 진정한 상태를 표시한다고 하겠는가? 다른 감각에 관해서도 사태는 다름이 없다. 이렇게 보건데 우리는 보통 우리의 감각이니 지각이니 하는 것을 믿고, 그것이 사물의 진정한 객관적인 상태를 고시(告示)한다고 생각하나 이 생각이 근거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일보(一步) 더 나아가 우리 앞에 보이는 책상의 존재까지도 의심할 수 있다. 실상은 없는데 그런 것이 나의 눈 앞에 나타나는 지도 모를 일이다. 꿈에서 우리는 그런 경험을 가지지 않는가? 그것은 꿈이니까 그렇지, 이것은 꿈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할지 모르나, 그러면 꿈과 꿈 아닌 것, 즉 각성시(覺醒時)와의 구별은 어디에 있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꿈은 자기 혼자의 의식에만 나타나는 것이지만, 지금 나의 눈 앞에 있는 책상은 나 외의 다른 사람도 동시에 볼 수 있으니 꿈이 꿈이 아니요, 따라서 현실적·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고 답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기하학(幾何學)에서 증명하려고 하는 정리(定理)를, 그 정리(定理)를

사용하여 증명하는 것과 같은 순환론(循環論)이다. 왜냐 하면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은 책상이건 그것을 보고 있는 다른 사람이건 여하간 나 외의 다른 사람의 존재를 전제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순환론(循環論)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우리의 견문지각(見聞知覺)에 의한 경험의 우리에게 확실한 것을 제공치 못한다면 이성적 인식, 예컨대 $5+7=12$ 와 같은 수학적 인식은 어떠한가. 의심할 여지가 추호도 없는 것인가. 그것도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만약 종교에서 말하듯 이 악마라는 것이 존재하여 우리를 속이기를 일삼는다면(이러한 가정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5+7$ 이 사실은 10이나 15인데 우리를 속여 12라고 생각게 하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므로 보통 우리가 가장 확실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수학적 인식도 추호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끝으로 이러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의심하는 나 자신은 존재하는 것인가.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생각하고 의심하면 할수록 생각한다는 사실, 의심한다는 사실은 생각하고 의심하는 자 - 이것이 나다 -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것은 논리에 의하여 명백하다. 위에서 수학적 인식의 확실성을 의심할 때 가정한 나를 속이기를 일삼는 악마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실 존재치도 않는데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게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내가 존재치 않는다면 나를 속일 수도 없을 것이니까. 이렇게 하여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Cogito ergo sum)'라는 절대 불가의(不可疑)명제를 확립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그의 철학체계를 세웠던 것이다. 이와 같은 데카르트의 회의(懷疑)는, 회의(懷疑)하기 위한 회의(懷疑)가 아니고, 확실한 것을 발견하기 위한 회의(懷疑)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방법적 회의(懷疑)'라고 한다. 데카르트의 다른 학설은 후세의 비판을 감내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 방법적(方法的) 회의(懷疑)의 정신만은 영원히 살아 빛나고 있는 것이다.

다음 베이커의 우상론(偶像論)을 돌보기로 하자. 베이컨(F. Bacon 1561-1626)은 영국 르네상스 시대가 출산한 최대의 사상가로서 프랑스의 데카르트와 더불어 근세철학의 시조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다. 그의 공적은 중세기(中世紀)의 스콜라주의를 비판하고 근세 과학의 방법론을 수립한 점에 있는데, 과학적 진리를 탐구하는 데는 우선 편견, 선입관을 버려야 한다 하고, 그것을 우상(偶像, Idol)이란 말로 표현하였다. 우상(偶像)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으니, '동굴의 우상(偶像)', '시장의 우상(偶像)', '극장의 우상(偶像)', '종족의 우상(偶像)'이 그것이다. '동굴의 우상(偶像)'이라 함은 동굴 속에 있는 자가 그 외부의 넓은 세계를 못 보듯이 각 개인에게 특유한 성격, 기호(嗜好), 교양, 기타 개인적 사정이 동굴과 같이 개인을 둘러싸서

안계(眼界)를 방해함으로 말미암아 정당한 객관적 판단을 못함을 의미한다. 요언(要言)하면 우물 안 개구리의 편견이라 하겠다. '시장의 우상(偶像)'이라 함은 실속이 없는 공허한 말을 의미한다. 시장은 인간들이 모여 교역하는 곳이므로 인간의 사회생활을 이에 비유한 것이다. 사회생활에서 발생되고 상호간 사상전달의 수단에 불과한 언어에 현혹되어 언어가 있으면 반드시 그에 대응하는 실물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쉽다. 예컨대 도깨비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에 대응하는 실물의 존재를 믿는 것과 같다. '극장의 우상(偶像)'이라 함은 과거의 권위나 전통을 무비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니, 이런 것들은 세력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검토하여 보면 극장에서 연출되는 연극과 같이 허구에 불과한 것이 많다. 진리는 자기 자신의 관찰, 실험에 의해서만 획득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통의 권위에 현혹되어 낡은 학설, 인습 등을 무비판하게 받아들여 오류를 범하는 일이 많다. 끝으로 종족의 우상(偶像)이라 함은 인간이라는 종족에 특유한 성질로부터 유래하는 것으로서, 그 중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감각에 주어진 것을 그대로 믿기 쉬운 경향과, 사례를 개괄함에 있어서 자기에게 불리한 경우를 주간(做看)하기 쉬운 경향이다. 전자의 예는 육안(肉眼)으로 보아 태양이 움직이니까 천동설(天動說)을 믿는 등속(等屬)이요, 후자의 예는 2차대전 때 일본이 천우신조(天佑神助) 믿고 연합국에 도전한 바와 같은 희망적 관찰이다.

이상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懷疑)와 베이컨의 우상론(偶像論)을 소개한 것은 이러한 철저한 자기반성을 표본으로 하여 올바르게 합리적인 생활태도를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에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모든 면에 있어서 전근대적인 봉건잔재(封建殘滓)와 후진성에서 탈각(脫却)치 못한 곳에 서는 이런 정신이 필요할까 한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다.

최근에 경험한 일인데 아이들이 자라서 혼기에 달(達)하여 여기저기서 혼담이 나오는데, 놀란 것은 궁합이 어떠니 사주가 어떠니 하고 그것부터 따지는 사람이 상류 가정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실이었다. 이런 것이 베이컨이 말하는 우상(偶像) 중에 하나일 것이다. 수백 년 이래 우리네 사회에서 내려오는 관습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에 대하여 그 과학적인 근거를 반성하여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미 정다산(鄭茶山) 같은 진보적인 인사는 백여 년 전에 이런 관습의 근거 없음을 설파하였던 것이다.

(그 외 여러 면에 있어서 다산(茶山) 선생의 진보성은 경탄할 만하다. 가위(可謂) 우리나라의 베이컨이라고 할 만한 분이다. 「한국사상」 제 6호 성락훈(成樂薰) 씨의 다산(茶山)에 관한 논문 참조)

혼인 말이 났으니 또 하나 이에 관련된 말을 하겠다. 봄이나 가을철 같은 결혼 '시즌'이 되면 청첩장이 빈번히 온다. 안면이 있을 정도이고 별로 친한 처지도 아닌

사람에게서도 오고, 심지어는 누군지 기억조차 없는 사람에게서도 온다. 이런 것이 다 허례, 허식이고, 남에게 폐를 끼치는 이외에 무엇이겠는가? 서양에서는 당사자 단 둘이 교회에 가서 거식(擧式)하는 예도 불소(不少)하다고 한다. 그 외에 참석자가 필요하다면 양 편의 부모형제와 절친한 친지 몇 명이면 족하지, 무엇 때문에 수백 명을 초청하여 야단법석을 대는가? 허장성세가 아니면 부조를 노리는 비열한 심정에서 나온 처사로 밖에는 볼 수 없다.

이런 예를 들자면 그 외에도 허다하다. 하여간 우리는 모든 면에 있어서 좀 더 이성적으로 반성할 줄 아는 국민이 되어야 하겠다. 회의(懷疑)하라! 그리고 그대의 생각하는 바가 우상(偶像)이 아닌지를 검토하라!

◇인민공사(人民公私)의 정치적 목적

일본의 자유민주당(自由民主黨) 정무조사위원장인 이케다 마사오는 중공과의 무역을 목적으로 중공을 시찰하고 돌아와서 이른바 중공의 인민공사(人民公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평하였다.

인민공사는 강력한 조직이다. 이 조직은 농산물을 강제 수집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강제 수집된 농산물은 중공이 가지는 유일한 수출품이며 무역을 위한 정책상에서 만들어졌다. 이와 같은 정치적 목적은 중공뿐만 아니라 공산권의 코루호즈로 같은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중공의 경제 전망

중공의 경제를 좌우하는 것은 농산물이다. 때문에 아직 공업생산에 기대할 수 없는 중공의 경제향상은 농산물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공의 농업 생산 증가라는 тезис는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우선 농경이 원시성을 탈피해야 하는데 그러한 기계화란 요원한(20-30년으로는 불가능) 일이며 비료공급은 소용량(所用量)의 10분의 1도 못된다. 비료의 증산은 전력증산이 없이는 불가능하며 발전계획은 그들이 떠드는 실제와 비교하면 아직 목표량의 5, 6%를 지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중공의 경제 성장은 당분간 기대되지 않는다.

◇정보관리

조지 워싱턴은 헌법 집회의 대표들에게 헌법의 내용이 사전에 누설되면 비준을 얻기가 힘들 것이라는 의미에서 신문 기자들에게 경계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공화당이 선거에서 패할지도 모른다는 그의 고문들의 걱정 때문에 노예 해방 선언을 3개월 동안이나 감추어 두었다.

한 해가 저물어 갈 때면 누구나 지나간 1년을 돌아보게 마련이다. 슬펐던 일, 피로웠던 일, 그리고 즐거웠던 일, 그뿐이라 영원히 영원히 잊을 수 없고 또 잊어버리기에는 아까운 일들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다. 슬펐던 일이라고 피로웠던 일이라고 꼭 슬퍼하고 피로워하고 즐거웠던 일이라고 꼭 즐거워할 것도 아니다. 돌아보는 마음가짐에 따라 슬프고 피로웠던 일이 즐거운 일이 될 수도 있고 즐거웠던 일이 슬프고 피로운 일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것은 돌아보는 그것을 어떻게 소화시켜 어떻게 그 맛을 다시 씹어보는가의 태도 문제일 것이다. 한 해가 저물어 갈 때면 누구나 지나간 1년을 돌아보게 된다. 그러나 돌아보는 그 마음가짐은 모두가 같다고는 알 수 없다. 지나간 일 즉 '경험의 세계'가 빠가 되고 살이 되고 그것을 약으로 만드는 마음가짐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눈물이나 독으로 만드는 마음가짐도 있을 것이다. 돌아보는 마음가짐 이것을 인생의 재탕이 아니라 새 출발의 도약대(跳躍臺)로 만들고 싶다.

돌아보는 마음가짐



정신생활의 반성

김경태 <공군 중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은 내 경우에 있어서도 그대로 타당하다. 앉아 있는 자리가 장병의 정신무장을 다루는 정훈이니만치 일년 내내 사상문제와 씨름하지 않을 수 없다. 반공을 부르짖기 위해서는 공산주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있어야겠으니 이것저것 뒤져봐야겠고 인간 개조를 떠들자니 우선 말하는 자신부터 보살피게 된다.

또한 앵무새 노릇을 하지 않으려니까 주장하는 내용에 뒷받침하는 확고한 신념을 갖추기에 부심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장병들 앞에 나서서 어떤 내용에 대해 열심히 말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실에 감화되어 신념에 충만되어 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올 한 해도 나의 자리는 나에게 많은 정신문제를 제기했다.

흘러간 한 해 동안 내 마음을 크게 움직여 주었던 몇 가지 문제들을 앞에 놓고 자신을 반성하는 것으로서 묵은 해의 매듭을 지어 보기로 하자.

금년에는 서너 차례에 걸쳐 월남 귀순자들과 간첩 자수자들의 입을 통해 최근의 북한 실정을 자세히 들을 기회를 가졌다.

조국에 돌아가면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제일 조련계의 꼬임에 빠져 북한으로 갔다가 그곳의 비참한 현실을 보고는 구사일생으로 생지옥을 탈출해 온 제일 교포의 눈물겨운 이야기,

몰아치는 채찍에 쫓겨 천리마 운동을 비롯한 여러 가지 강제 노동에 시달리다 못해 어떻게 죽든, 죽기는 매일반이라고 지회가 깔려 있는 경계선을 뛰어넘어 왔다는 월남 동포의 피어린 절규.

당의 지령을 받고 간첩으로 넘어 왔다가 남한의 실정이 그들의 선전과는 너무나 다른데 그만 간첩활동의 의욕을 잃고 평화스럽게 살고 있는 겨레를 기만하느니 차라리 김일성을 배반하겠다고 결심한 끝에 경찰의 문을 두드렸다는 자수자의 솔직한 고백.

이런 모든 증언들은 공산주의 이론을 비판하고 북한의 실정을 폭로해 놓은 어느 서적을 읽는 것보다도 깨우쳐 주는 것이 많았다.

그들로부터 북한의 지옥상을 살살이 듣고 보니, '그곳도 사람이 사는 곳인데 설마 그렇게까지 형편없을라구!'하고 마음 한 구석에 도사렸던 실오라기 같은 생각도 모조리 사라지고 말았다.

이야기를 듣고 나는 나와 내 가족이 눈과 입과 귀를 가리운 채 붉은 지옥에서 허덕이는 비참한 모습을 그려보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비록 넉넉지는 못한 살림이지만 평화스런 내 가정이 나를 맞이해주고 있다. 아내의 다정한 웃음이 그리고 어린 것의 구김 없는 재롱이 있다. 여기에 간섭하는 자 아무도 없다. 우리만이 있다. 우리는 의지대로 자유롭게 행동한다. 심지어 라디오의 다이얼을 돌려 이북 방송을 들을 자유까지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이 세상을 준다 해도 내어 줄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다. 나는 자유의 땅에서 살게 해준 신에게 감사하고 싶어진다.

그리고 정치적 경제적 환경이 아무리 나를 괴롭히는 한이 있더라도 자유를 지키려는 나의 신념은 빼앗아 갈 수 없다고 굳게 다짐해 본다.

월남 또는 귀순해온 동포들은 이 땅에 넘어와 보니 놀라운 것도 많지만 한편 한심스러운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들 말한다.

지금 북쪽에서는 눈에 쌍심지를 켜고 칼을 갈고 있는데 이젠 너무 정신 못 차린 채 돌아가고 있지 않느냐고 경고의 일침을 놓는다.

이건 연단 위에서 상을 타기 위해 떠드는 웅변 연사의 말이 아니다.

북한 괴뢰의 심보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의 애타는 충고다.

그들이 간첩 활동을 하고 다닐 때 군인 경찰 공무원 할 것 없이 술 몇 잔에 다 녹아 버리더라는 말을 한다.

그 군인이 절대 내가 아니었다고 주장할 자신이 내게 없다. 왜냐하면 뜻밖에 오는 선심에 그리고 한두 번 만난 사람에게 내 속의 별거숭이를 다 들어내 보인 적이 결코 없지 않기 때문이다.

신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한다. 자유는 그를 아끼고 소중히 다룰 줄 아는 사람에게 찾아 오는 것이 아닐까.

궁색한 것을 당해 본 사람이어야 돈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고 아껴 쓰는 법이다.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은 철없는 자식이 돈을 물 쓰듯 하다가 깡통을 차게 되더라는 얘기는 성서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만은 아니다. 자유를 소중히 가질 줄 모르고 낭비하며 돌아가다가 대낮에 날치기를 당하게 될지 모를 우리를 두고 하는 얘기다.

낮선 사람을 만나면 그 입은 옷을 탐내기 전에 우선 그 속 사람을 한번 의심해 보자. 불평을 퍼붓기 전에 우리의 분열이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더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해서 자유를 아끼고 지키는 습성을 키워보자고 나는 나 자신을 타이르고 있는 것이다.

지난 11월 초순경에 판문점에 가 보았다.

십여 년이나 내버려둔 숲 속에 갈대가 한 길은 자라 무성하게 우거져 있고 일정한 간격으로 철조망에 매어 달린 빨간 표지가 그 속에 무서운 지뢰가 숨겨져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련한 흥분을 느끼며 남쪽 분계선을 지나 판문점에 들어섰다. 괴뢰군들이 몇 명 멀거니 바라보고 있다. 오래간 만에 보는 복장이다. 마치 시골양반이 양복을 걸친 것 같이 얼맞지 않는 모습이다.

“사진 좀 찍읍시다.”

괴뢰군 소좌 한 사람이 어색한 웃음을 보내며 마치 내 사진기 좀 보아달라는 듯이 가슴에 걸쳐 놓은 장난감 같은 카메라를 매만지면서 눈망울을 굴리고 있다.

그 까무잡잡한 얼굴부터가 빨갱이의 냄새를 풍기고 있다.

같은 얼굴이요, 한 뿔줄에 같은 말을 쓰고 있으며 지금 바로 내 앞에 있는 그가 왜 그렇게 멀리 느껴지는 것일까. 도저히 맞닿을 수 없는 벼랑 저쪽에 떨어져 있는 것 같다. 어느 낯선 외국인을 대하는 것보다 더 서먹서먹한 거리를 느끼게 된다. 아니 증오의 불길이 솟구치는 것을 어쩔 수가 없었다.

가장 무서운 원수는 돌아선 애인이란 말이 있다.

사상의 적이 바로 한 피를 갖고 있는 몸이기 때문에 그 원한이 더 절실한 것인가 보다.

그들의 숙소를 훑듯 들여다보았다. 칙칙한 벽에 김일성의 상판이 걸려 있다. 마치 초상집에 걸려 있는 죽은 사람 초상화 같다.

비둘기장에 비둘기들이 잔뜩 있다.

이름 지어 평화의 비둘기라고,

그런데 이놈들이 신통하게 청색칠을 한 빨갱이 콘서트에만 날아 앉는다고 한다. 알고 보니 색깔에 대한 훈련을 시켜왔다는 것이다. 정전위원회 대표들이 회담하는 책상에 유엔기와 괴뢰기가 나란히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괴뢰의기가 한 치쯤 더 크게 만들어져 있다. 회담 장소에서 뵈히 보이는 저쪽 완충지대에 공장 굴뚝같은 큰 굴뚝이 두 개 나란히 서 있다. 괴뢰군의 숙소라고는 하는데 일 년 열두 달 연기 나는 것을 못 봤다고 한다.

아무튼 선전을 위해서는 낯간지러운 장난도 뻗듯이 하고 있는 철두철미 치사한 족속들이다.

하늘은 거침없이 펼쳐져 있고 구름은 바람 따라 흐르고 있고 산줄기는 굽이굽이 이어져 있건만 ‘군사분계선’이라는 노란 푼말은 내 땅을 뚫으려는 우리 발걸음을 막고 있는 것이다.

개성이 고향인 동료 한 사람은 멀리 보이는 송악산을 감회 깊게 바라보고 있다.

착잡한 상념에 사로잡힌 채 발걸음을 돌렸다.

버스로 달려 시간 반,

휘황찬란한 서울 밤거리의 네온사인에 압박감을 느끼며 집을 찾아 들어간다.

“겨우 시간 반 밖에 안 걸리다니……”

서울은 온통 이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는 것이다.

이따금 조용할 때마다 그 살벌한 광경이 떠오른다.

마음의 자세를 다시한번 매만지게 되는 것이다.

다음 인간 개조를 생각해 본다.

인간이 고쳐야 할 못된 버릇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고 건전한 새 나라를 이룩하기 위해 우리 국민이 갖추어야 할 정신적 요건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 만 내 경우를 미루어 생각해 보면 남과 인화할 수 있는 습성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선무일 것 같다.

두 사람 이상이 모이게 되면 반드시 분열과 싸움이 있게 마련 인게 우리 국민의 일반적인 습성이다.

나라 살림을 맡아 몸과 마음을 바쳐 일해 보겠다고 나선 정치인들이 서로 상대방을 원수처럼 미워하고 있고 자라나는 후세인들을 참사람으로 만들려고 교육시키고 있는 교육자들이 패거리를 지어 남을 헐뜯고 있는가 하면 심지어 사랑을 부르짖는 종교인들마저 의견을 달리하는 남을 이단으로 몰아 신성한 교단에서 치고 받는 일이 흔히 일어나고 있으니 말이다.

작게는 가정에서 크게는 사회와 국가에서 이 분열 현상이 일어나 인간 상호간의 인화를 깨뜨리고 있는 것이다.

이 악습은 내 성격 속에도 뱀의 헛바닥처럼 도사리고 있다.

남의 흉을 보는 것에 야릇한 취미를 갖고 있다. 왜 그런지 통쾌하다. 특히 대상이 마음에 맞지 않는 상관일 때는 더욱 그렇다.

나와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사실을 가지고 열을 올리고 토론하다가 보면 벽창호처럼 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대방이 다음부터 꼴도 보기 싫어진다.

남이 무심결에 나를 불쾌하게 만들면 부질없는 기억력이 오래 그것을 잊지 않고 있다가 공무를 집행할 때 슬금슬금 골탕을 먹이곤 한다.

실사 하급자의 의견이 옳다 해도 비위에 거슬리는 데가 있으면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 잔인한 버릇이 내게 있다.

나는 나의 모든 이 악습을 잘 알고 있다. 금년에 접어들면서 우선 이것부터 고치자고 마음 먹었다.

남을 대할 때 그의 인격과 의견을 존중하자,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해 주자, 그리고 의견의 차이가 있으면 양보로서 화해 점을 모색해 보자.

이런 생활태도를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많이 적용해 보았다. 만족할 정도는 못되지만 다소 내 주위가 부드러워진 것 같다.

국민에게 사대 의무가 있는 것처럼 사회인에게 인화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 본다.

금년에 들어와 나는 ‘나라’에 대해서 종종 생각하게

되었다. 물론 이것도 정훈장교라는 입장에서 남에게 떠드는 내 말에 내가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아니면 이 가난하고 어려운 살림이 나아지려면 나라의 형편이 향상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실리적인 자각이 생겼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또한 혼란한 나라에 한 생명을 내어 놓고 이 어린 것이 자라, 나와 똑같은 실망을 느끼지 않도록 살기 좋은 나라를 마련해줘야겠다는 책임감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사상도 변하고 세력도 흘러가지만 오직 조상으로부터 이어받고 있는 이 뜨거운 피는 결코 변하지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바로 나 뿐 아니라 온 겨레가 안식할 터전이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는 것이다.

나라의 형편이 엉켜진 실 뭉치처럼 복잡하고 실망스런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반드시 있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돌아오는 새해에는 이런 것을 찾아보자.

내가 노력하고 남이 애쓰고 여기저기서 이런 관심이 모여진다면 이 나라의 앞날은 결코 불행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가정생활의 반성

박희규 <공군 중령>

치가평천(治家平天)이라는 옛 말이 있다. 한 가정을 단란하고 이상적으로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어찌 나라일을 할 수 있겠는가 평화와 안정이 있는 가정에서 건전한 나라일꾼이 나올 수 있고 이상적인 가정에서 건전한 자녀가 양육되는 것이다.

나 자신의 가정생활을 반성하고 좀 더 이상적이고 좀 더 건전한 가정을 이룩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으리라고 믿으며 나의 부족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들의 가정생활을 반성하고 새로운 가정생활을 올바른 길을 찾아보고자 한다.

1. 이상적인 가정

부부가 가정을 영위할 때에 그들은 살기 위하여 일을 해야 하고 재산도 늘려서 그 가정생활이 날로 풍족하고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가정이란 자고 먹고

쉬고 놀고 하는 기숙사는 아니다. 여행을 하다가 기차 속에서 사권 사람끼리 다정히 지내는 그러한 다정스러운 작은 집단도 아니다. 가정에는 하나는 개성이 생겨나야 하는데 이 개성은 부부 사이에서 형성되는 것이며 부부는 하나의 이상을 가져야 하고 그 이상을 향해 노력함으로써 가치 있는 가정이 될 것이다. 텔레비전, 전축, 피아노가 있다고 그 가정이 반드시 성공된 것도 아니다. 부부가 하나의 이상을 가지고 변함없이 노력함으로써 가치를 가지는 것이다.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서 주거나 또는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고 어린이들이 잘 자라고 공부 잘함으로써 만족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행복한 가정일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 밖에 또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 즉 가정이 정신적인 면에서 사상과 이상을 가지고 작으나 크나 사회에 이바지하면서 그것을 가족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사회의 발전에 공헌하는 것이 된다.

가정이 사상과 드높은 이상을 가져야 한다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곤란에 부딪혀도 힘을 내어 이를 극복하고 더욱 정신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으며 자손이 그것을 배워서 훌륭히 되는 것이다. 밖에서 복 많다는 가정의 자손이 뒷날 타락하고 쓸모없는 인물이 됨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상과 드높은 이상을 가지지 않은 가정에서 자라난 탓일 경우가 많은 것이다.

부부는 이러한 가정을 이룩하고 나아가는 것이기에 서로 변함없는 사랑을 지녀야 하며 한 편 이 성격의 결함이 있더라도 사랑으로서 권고하고 충고하여 그 결함을 시정하며 곤란을 당할 때에 힘을 북돋아 주어야 하고 서로 안팎일을 의논하고 연구하고 계획을 세워 실천하여 작년보다 올이, 또 올보다 내년이 더 나아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부란 서로 사랑하는 짝이고, 서로 충고하는 짝이고 서로 결함을 보충하는 짝이고 서로 고생을 나누는 짝이고 서로 힘을 합쳐 성공을 거두는 짝이다. 결코 달콤한 생활만을 꿈꾸는 것이 부부의 길이 아닌 것이니 부부란 항상 사랑하는 짝이며 동시에 서로 노력하는 짝이다. 이렇게 하여 머리가 하얗게 되고 늙어 죽을 때까지 사랑과 노력을 하는 짝이 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2. 군인의 가정

군인은 목숨을 걸고 겨레와 나라를 수호하는 간성이기 때문에 직업적인 색채가 가장 적은 군인의 가정은 그 어느 가정보다도 탐욕이 없고 청렴결백한 생활을 할 줄 아는 가정이라야 한다. 금전을 탐내고 지위를 탐내고

명예를 탐내는 바람에 군인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국가와 민족을 배반하는 행위를 하고 드디어는 자기 자신과 그 가정이 파멸되는 실례도 허다하다. 물론 인간이란 자기 욕구 충족을 추구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지만 군인은 자기의 욕구를 희생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일단 유사시에는 수화(水火)를 불문(不問)하고 자기희생의 길을 택할 수 있는 각오와 정신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군인의 가정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이바지할 수 있는 희생정신이 충만한 가정이라야 한다. 군인의 존재목적이 그렇듯이 군인 가정의 존재목적도 그러한 것이다. 따라서 군인의 아내는 누구보다도 강한 사상과 정신의 소유자라야 하며 사치와 탐욕을 모르는 청렴결백한 생활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 하고 어떠한 곤란이라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굳은 생활력을 가진 사람이라야 한다.

아내의 허영과 사치심 때문에 그 남편은 나쁜 일인 줄 알면서도 사랑하는 아내의 욕망을 채워주려고 노력하고 한 층 더 욕망이 자라나는 아내는 무의식 중에 남편을 채찍질하는 결과가 되고 만다. 그렇게 되면 고위 교관의 직위에 있는 사람도 한날 욕망에 채찍질당해 뛰어야 하는 가엾은 역마(驛馬)에 지나지 않게 된다.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뒤떨어지는 날에는 그 초조와 불안 때문에 더욱 더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

역사상에 그 얼마나 많은 영웅호걸들이 여자 때문에 자기를 망치고 나라를 망치고 인류의 역사를 더럽혔던가……. 그 반면에 그 얼마나 많은 영웅호걸이 내조의 힘으로 자기를 빛나게 하고 나라를 구하고 인류 역사를 찬란히 장식하였던가. 군인의 아내는 그 어느 것을 택해야 하겠으며 군인의 가정은 그 어느 길을 택해야 하겠는가.

군인이 공무에 공명정대할 수 있고, 주색잡기에 유혹되지 않고 군인의 아내가 허영과 탐욕을 물리칠 수 있어야 그 자녀가 건전한 정신의 소유자로서 훗날의 건전한 일꾼으로 자라날 수 있고 그 가정은 건전한 군인의 가정으로서 변영할 것이며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을 것이며, 그 군인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용감히 싸워 이길 수 있고 이 나라가 번영하고 복되게 될 것이다.

군인의 아내는 남편의 성스러운 직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전신전령(全身全靈)을 바치겠다는 기백을 보여야겠다.

남편의 부하를 심부름꾼으로 오인하는 일은 없겠지만 그 부하가 훗날에 자기 남편과 생사를 같이 할 사람들이며 그들 없이는 장군일 수도 지휘관일 수도 없는 것이다.

군인의 아내가 남편의 지위와 권한을 마치 자기의 것인 것처럼 오인하고 행동한 일은 없는가.

군인의 아내가 남편의 공무를 마치 자기의 일인 양 생각하고 간섭한 일은 없는가.

군인의 아내가 남편의 부하를 마치 자기의 부하처럼 좌우하려고 한 일은 없는가.

군인의 아내가 군대의 관물(官物)을 마치 자기의 사물(私物)인 양 마음대로 사용한 일은 없는가…… 남편에게 그러한 것을 강요한 일은 없는가.

군인의 자녀가 아버지의 지위와 권리를 가지의 것인 양 생각하고 있거나 없는가.

군인의 자녀가 아버지의 지위나 힘으로 출세하기를 꿈꾸지는 않는가.

군인의 가족이 그 이름으로 특권 행세를 하려고 한 일은 없는가.

당신은 군인의 아내로서 다른 집 아내보다 모범되게 어떠한 일을 하였나.

당신은 군인의 자녀로서 다른 집 자녀보다 어떠한 훌륭한 일을 하였나.

당신은 군인의 가족으로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어떠한 좋은 일을 하였나.

군인의 아내, 군인의 자녀, 군인의 가족, 이러한 가정의 가장인 군인은 이와 같은 일을 반성해 보자. 그리하여 참다운 군인, 참다운 군인의 아내, 참다운 군인의 자녀, 참다운 군인의 가족, 참다운 군인의 가정을 이룩하자.

아무리 살기가 어려워져도, 아무리 사람들이 세상을 불평하여도, 우리는 어려운 살림살이를 견디어 나가야 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무서운 외적이 침략할지라도 우리는 이 나라를 지키고 싸워야 한다.

모든 사람이 이 나라를 배반하고 버릴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사수해야 한다.

6·25의 교훈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싸우는 것은 내 남편만의 임무가 아니었기에 군인의 아내는 남편이 싸움터에 나갈 때에도 눈물을 거두고 용감히 싸워달라고 부탁했다. 내 남편이 일선에서 싸우고 있을 때 군인의 아내는 후방을 지키고 남편 없는 내 가정을 지켜왔다. 내 남편이 용감히 싸우다가 죽고 돌아오지 않아도 그의 고귀한 죽음의 대가로 내 나라가 평화롭게 살아있음을 장하게 생각하고 눈물을 감출 줄 아는 것이 군인의 아내다.

그러기에 군인은 누구보다도 아내를 지극히 사랑할 줄 알아야 하며 훌륭하고 착한 아버지가 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싸움터에서는 호랑이지만 가정에서는 양과 같이 순하고 항상 웃는 인자스러운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

3. 가정교육의 새 방향

가정교육은 가정적이라야 한다. 부모가 일치한 원칙과 목적을 두고 선악에 공동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부모로서 가정교육을 연구하고 실시할 때에 대체로 아버지는 부드러워야 하고 어머니는 엄하여야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어머니가 단독적으로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강유(強柔)를 겸하여야 할 것이요 부드러운 편 보다는 엄한 편이 더 많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재래의 습성이 어머니는 부드러워야 한다는 선입주견이 있어서 교육실시에 적지 않은 폐단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들어보기로 하겠다.

1)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 인간은 참을 구하고 착하려 한다. 그리고 아름다우려 한다. 그러면 진(眞)과 선(善)과 미(美)의 본원이 어디인가 그것은 조물주다. 이 조물주를 사랑하고 선(善)을 사랑하며 미(美)를 사랑하는 것이 된다. 조물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야 인간끼리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부모에게 효도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 형제끼리 화목할 줄 알게 되는 이치와 같은 것이다.

2)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각 개인이 없이는 민족이 있을 수 없고 민족 없이 국가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나라가 없는데 민족이 살 수 없고 민족 없는 개인이 존재할 수 없음을 알고 있을 것이다. 해방 전의 나라 없는 비애와 고통을 뼈저리게 경험했으면 오늘의 나라 있는 영광이 얼마나 빛나는 것인가를 다시금 인식하여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3)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인격자가 되도록

우리의 생명은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이 귀한 것이다. 명예도 직위도 재산도 그 어느 것이나 인격을 파괴하지 못 한다. 그러므로 생명의 가치와 인격의 존엄을 알고 보존하며 발양해야 할 것이다.

4) 원만(圓滿)을 이루도록

우리는 인격의 파면을 막고 원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중용이라 하면 회색 분자라 하고 원만이라 하면 바보처럼 해석하는 그러한 곡해를 삼가야 한다. 지정의(知情意)를 잘 조화해서 원만을 기하여야 하겠다.

5) 책임감있는 사람이 되도록

인간의 귀중한 것이 인권이며 자유다 그러나 권리만을 휘두르고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무시하는 것은 일종의 도적인 것을 알아야 한다. 자기의 맡은 책임을 져야하고

자기가 저지른 것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야 말로 기본 권리나 자유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6)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사람은 혼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있다. 그러므로 남을 도와줄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은 결국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오늘의 시대는 민주주의 시대라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공동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사회 생활의 원칙이다.

7) 알고 싶어하는 자가 되도록

오늘의 시대를 문화시대라 한다. 이것은 셀 수 없는 유사(有史) 이전의 시대나 유사(有史) 이후의 시대를 통해서 발달되어 온 문화의 유산이라 하겠으나 특히 최근 2·3백년 사이에 발달되어 온 과학 문명이 오늘날과 같이 무서울 정도로 발달된 것은 우리 인간들이 알고 싶어하는 심적 경향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이렇게 나아가다가는 어느 정도로 발달될는지 모르거니와 우주 시대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 여하간 알아야 살 수 있고 알지 못하면 자멸에 흐르고 말 것이다.

8) 옳은 것을 사랑하도록

우리의 현실 생활이나 무형(無形)한 세계의 생활에 있어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곧 옳은 것이다. 옳지 못하면 암흑과 파괴를 초래케 된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구비했다 하더라도 옳은 것을 모르고 무시하게 되면 질서가 문란해져 생활의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상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바지 할 수 있는 건전한 가정을 이룩하기 위하여 항상 여하히 하면 내 가정이 좀 더 이상적으로 될 것인가, 단란한 가정을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 군인의 가정으로서 어떠한 정신으로 살아야 할 것이며, 자녀의 새로운 교육방향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항상 반성하고 연구해야 될 것이다.

◇「성난 포도」와 소련

존 스타인 벅의 대표작 「성난 포도」가 영화화된 것은 23년 전인 1940년이다. 동년에 이 작품은 프릿츠 상을 받았는데 존 포드 감독의 손으로 영화화된 이래 수출이 금지되어 있다가 62년 비로소 해제되었다. 이 영화는 미국의 자본주의 행태를 그린 것이라 하여 한때 소련이 이 영화를 밀수입하여 상영했다가 역효과를 냈다는 이야기가 있다. 흥년을 만나서 다른 지방으로 대이주하는 수백 명의 농민들의 차림이 모두가 트럭을 타고 고된 여행을 한다는 것이 소련인의 눈에는 피크닉이나 가는 것과 같이 보였다는 것이다.

사회생활의 반성



유철중 <공군대위>

또 한 해가 간다. 으레 연말이 되면 1년 간의 지난 발자취의 회고를 하게 된다. 으레 자기본위의 반성과 자찬이 곁들이게 되는 이야기에서 그래도 내일의 전진을 기약해 줄 인자(因子)를 찾아내려는 욕심을 우리는 부려 본다.

필자는 편집자의 의도와는 약간 어긋난 시점에서 지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주변에서 겪고 느낀 몇 가지를 적어 본다.

1) 한국식 파킨슨의 법칙

“우리 사무실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네. 어떤 중위장교 이야기가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을 가로 질러 건넜다는 거야. 물론 어슬 어슬 해가 기운 다음이지. 그런데 누군가가 저쪽 뒤에서 “여보시오! 여보시오!”하고 연거푸 부르더라는 거지. 그래 그 친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태연한 체 하고 부지런히 앞만 바라보고 갔다는 거야. 그런데도 또 부르더라는 거야. 그때 이 장교는 거기 구멍이 있으면 뛰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더라는 거지. 뭐라고? 누구를 부른 건지 모르잖나구? 그야 웅당 자기일 것이라는 거지. 하여튼 온몸에 식은땀이 쭉 배었다는 건데 진짜 자미(慈悲)있는 일은 그 다음에 있던 말야. 이때 이야기를 들던 모 소령께서 하는 말이 “애 바보같은 소리 마라. 뭐 어때서 그래. 그까짓 거 가지고 식은땀을 흘리다니.” 하더라는 말일세. 그것도 냉소어린 말투로. 나는 그 말에 온 몸이 오싹했지. 그래 넌 어떻게 생각하니. 난 그 중위의 느낌이 올바르다고 보는 거야. 법은 강요되기보다 지키려는 마음에서 그 존재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나는 새삼스레 인간 개조의 필요성을 통감했어 정말이야.” 무척 가까운 친구의 다방에서의 한담(閑談)한 토막이다. 무척 쉬운 것 같으면서 지난(至難)한 일이 법을 지키는 일인 것 같다. 법에는 거리가 먼 상식 이하의 지식 밖에 갖고 있지 않지만 스스로 지키려는 마음의 태도가 없이 법이란 유명무실한 것이 아닌가 생각 된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많은 법규가 만들어졌다. 공군 자체에서만 아니라 혁명정부에서 신규 제정된 것, 개정된 것만 해도 미처 그 내용을 다 알지 못할 정도로 많다. 그러나 질서의 문란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가고 이제는 도의심마저 땅에 떨어져 가는 세상이다.

이런 모순된 반비례현상에서는 하나의 법칙이 도출될 법도 하다. 유명한 ‘파킨슨의 법칙’처럼 ‘사회질서도의 측정은 만들어지는 법령의 수에 반비례한다’든가 ‘국민도의심 또는 준법정신은 법령 수에 반비례한다’등의 법칙이 성립될 것도 같다. 무척 풍자적인 이야기 같지만 너 나 할 것 없이 특히 국민의 선두에 서 있다고 자처하는 우리 군인들은 법을 지킨다는 꿈팡이 냄새나는 공민교과서(公民教科書)식 사고보다도 스스로 법을 살린다는 주체적인 사고의 자세를 가져야만 앞서 들은 반비례의 법칙을 무시할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주(註))…파킨슨의 법칙(Parkinson's law)이란 구미에서 일대 선풍을 일으킨 파킨슨 교수의 이론으로서 모든 조직체 특히 정부 기구에서 공무원의 수는 시일의 흐름에 따라 업무량의 다과(多過)한 자에는 구애됨이 없이 증가한다는 법칙임)

2) 전화와 인간관계

“거기 OB맥주입니까?” “아닙니다. 크라운입니다. 2원 버리셨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있는 시내 전화는 하루 평균 10여 통화의 이런 오통(誤通)을 일으킨다. 심지어는 유한양행(柳韓洋行), 한일은행(漢一銀行), 부천형무소(富川刑務所) 등 다기다양하다. 코미디언들은 곧잘 목청을 돋우어 “예예. 홍제동 화장터입니다.” 하여 대중을 웃기지만 기실 잘못 걸린 전화에서 이런 따위의 대답을 들은 사람이라면 그대로 웃어넘길 수 없게 된다. 가뜩이나 미안한 마음(자기 자신에 대해 미안한 것임)에 조롱까지 받으면 위낙 열등감을 지닌 인간이란 동물은 부끄러움과 분노가 한데 겹쳐 매우 착잡한 자기혐오증에 사로잡히고 만다. 이 기분을 못 느껴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필자는 단언해본다.

“잘못 거셨습니다. 여기는 몇 번입니다.”하는 친절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 아는 사람이 많은 수록 사회는 명랑해질 텐데…… 이 원고를 쓰는데 마침 호성대(曉星臺) 부내 전화벨이 울렸다. “30xx번 Y대위입니다. 통신보안”정중하게 아뢰었는데 아무 대꾸도 없이 딸가닥 전화가 끊긴다. 불쾌하기 이를 데 없다. 홍제동(弘濟洞)이냐고 묻지 않은 것만 다행이라고 생각해 둘까?

여기서도 법을 지키려는 마음이 아쉽고, 사회 명랑을 위한 도의심이 부럽다. 군에서는 통화법이 규정되어 있고 민간에서도 통화예절이라는 것이 있다. 자기를 표시하지 않고 누구를 대라.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면 몰라도 좋아! 로 일갈. 잘못 걸면 냉수마시고 정신 차리라는 핀잔. 필자처럼 기가 약한 사람은 혼자 화내고 제풀에 기가 죽어 위축되어버리고 만다. 천하의 독설가 여러분. 약한 자를 도와줍시다. 전화 만으로라도 좋은

인간관계를 이룩함이 어떻습니까.

3) 식당경영학

필자는 직책이 직책인지라 여기저기 밖에 나가 있는 시간이 많아 자연 공군 각 기지의 식당을 방문할 기회를 가졌고 재경(在京) 각 기관의 식당에도 한두 번 들을 수가 있었다. 근래의 물가고(物價高)는 식당 경영자를 굉장히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지만 소비자의 입장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 수 없다. 고정된 봉급액수로 생활하는 주체에 호강은 바랄 수도 없겠지만 1년 전의 영양을 같은 액수로 섭취하자는 것이 무리한 욕심이라고 탓은 말아 주기 바라고 싶다. 물가지수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곳이 우리 공군에서도 본부 구내식당이다. 주인한테 매 맞을 이야기 같지만 점심시간만 되면 우울해지는 것은 필자만이 아니리라. 차라리 먹지 않고 살 수 있다면 하는 엉뚱한 생각에서 ‘요가(YOGA)’라는 책도 사 보았지만 굶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운동은 아닌 상 싶다. 전에 7항보단에 근무할 때 그곳 식당에서 발견한 사실이 있었다. 물가가 오르니까 식당의 메뉴에 변화가 생겼다. 질이 나빠지니까 이에 즉각적인 반향이 나타나 손님이 적어졌고 손님이 적어지니까 재료의 대량구입을 못하므로 더욱 질이 나빠지고 따라서 이용 장병의 수는 또 줄고…… 이것을 악순환이라고 한다지만 경영자의 재질을 의심받을 만 하다고 이야기들을 하였고, 그러면 이 악순환의 방지책이 무어냐는 질문에 대한 권위 있는 이론이 아래와 같다. 질을 좋게 한다. 이용자가 증가된다. 따라서 재료를 대량 구입할 수가 있다. 즉 원가가 싸게 계산됨으로 더욱 질을 좋게 할 수 있거나 값을 내릴 수 있다. 그러면 도시락 이용자가 대량으로 식당 이용으로 전환한다. 따라서 식당경영자는 소비자로부터 감사를 받으며 영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

공분을 위시해서 전 공군부대 구내식당 경영자는 참고하시길 바란다.

4) IDEA를 구합니다.

한동안 IDEA 붐이 형성되더니 요즘은 좀 시들해지는 것 같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운영과 결말이 더욱 어렵고 중요함은 다시 이를 것도 없으려니와 그만큼 모든 문제의 해결이란 단순한 탁상론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귀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 군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민간인과도 잘 적응해서 살아나가는 데는 일반 민간인과는 다른 여러 곤경과 고충이 있다.

군인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갖는 ‘핸디캡’과 이점을 오해 없이 평형화(平衡化)하는 데 필요한 것이 적응의 기술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테크닉과 IDEA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IDEA는 특수한 재능처럼 그릇 이해되기 쉽다.

한 달에 한 번쯤 시켜주던 아기엄마에의 영화(映畵) 선심도 어렵게 된 요즘 뒤뜰린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에는 각 사람의 성격에 따라 그 대책이 상위(相違)하겠지만, 필자는 군밤 20원어치로 메우고 있다. 수단이 좋다고요? 여기에 플러스되는 말의 기법은 공개할 성질이 못되니 덮어두기로 하고,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무리를 해소시키기 위해 머리를 쥐어짜는 것 이것이 IDEA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군인이니까. 군에 대해 최대한 봉사하려면 우선 군을 떠난 사회생활(가정생활)에 마음 걸리는 데가 없어야 할 줄 안다.

그런데 독자 여러분께 IDEA의 지원을 청해야 하게 되었다. 다름 아니라 올겨울에는 새로 정복과 코트가 나온다고 한다. 그러면 못 입게 된 정복과 코트를 무엇에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대로 옷장에 넣어 두어 옷장에 필요 없는 중하(重荷)를 주어 수명을 줄일 이유가 없다.

구합니다. IDEA를. 못 입게 된 군복의 적절한 이용도(利用途)를.

<지휘생활>

군인생활의 반성



마종인 <공군대령>

폭음이 요란한 일선 부대나 의자에 파묻혀 있는 지혜를 다 쥐어짜며 종이와 싸워야 할 행정부서를 막론하고 조직의 한 계층에 있어서 ‘지휘’라는 과제는 달이 가고 해가 바뀌어도 영원히 연구 노력해야 할 고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어느 조직체에 있어서나 마찬가지로 군에 있어서도 그 목표와 최상의 이상은 임무 완수에 있는 바, 일반 기업체가 이윤 추구에 중점을 두는 데 반해서 군은 종국적으로 전투에 임해서 승리를 거두고자 한다. 따라서 이 목적 달성에 접근할 수 있는 최선의 지휘방법을 모색하고 발전시켜야 됨은 더 말할 여지도 없거니와 주위 환경에 따라 가변성과 다양성을 띄우는 지휘의 기술과 그 운용의 묘 앞에서는 언제나 부족감과 미비한 자신을 자각하고 아래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전력하는 일선 권무자(勸務者)에 대해 미안한 감금할 수 없게 된다.

지휘관도 사람이니까 언제나 완전치는 못한 것임으로(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반성하여 지휘통솔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안다. 이번 기회에 항상 느껴온 바를 적어 자신의 반성과 더불어 군 발전에 기여가 될까하여 몇 마디 적어 보고자 한다.

먼저 군 조직체에 있어서 공식성과 비공식성을 역하히 양립시켜서 군 임무에 일치하게 집중 발휘시키느냐 하는 것이 문제된다. 이것은 지휘관이나 상급자의 입장에서보다도 직접 일선에서 권무(權務)하는 조직의 말단에서 더욱 심각하게 야기되고 있는데 조직이다 사회다 하는 현대적 가치개념 하에서는 해소될 수 없는 조직이 내포하고 있는 하나의 모순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이를 유의하고 그 조정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야 되며 그것이 오로지 지휘관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음을 재인식 할 때 소홀히 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본다.

다음은 조직이 원만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분위기(풍토)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상하관계에 그 근본이 있기는 하나 역시 무엇보다도 큰 역할이 되는 것은 중간계층이다. 상부와 일선 근무자간의 중간 관리층 즉 군에 있어서 중간지휘관 또는 일선지휘관(대대급)이 상부의 의도를 건설적이며 의욕적으로 받들어서 하부의 이질적이며 다양성 있는 반응을 적절히 조절하여 조직 전체가 하나의 자적을 지향해서 조화되게끔 유도하고 격려하는데 충분한 능력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호뭇한 분위기, 명량한 부대, 웃는 얼굴, 그곳에 미움이 어디 있고 동료나 부하, 또는 상관의 울 때 울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적기 앞에서 구원을 청할 때 자기 목숨 두려워 주저할 사람 누구이겠는가. 이러한 분위기는 엄정한 군기, 우수한 지휘관, 유능한 부하, 혈루(血淚)의 훈련 등에서 조성되는 것이며 이러한 가운데 참된 군인의 명예가 있다고 본다. 다음은 그 조직체가 최선의 상태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계속성의 문제인데 이것은 발전되는 세상에 상대적 퇴보를 초래치 않게끔 새로운 과학기술의 도입과 과학적인 관리에 노력하고 적극적이며 창의성 있게 자기발전을 기약함으로써 나아가 집단 전체가 발전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지나친 수동 자세나 의타심(依他心) 또는 남이 하니까 할 수 없이 한다거나 남이 안 하니까 나도 안 한다는 심적 태도에서 탈피하여야 하며 언제나 결과만을 보고 질보다 양만을 따져야 될 상태로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일이 일어난 다음에 자기도 비로소 알게 되면서 부하만을 책망하는 현실

이 관리층에 있는 지휘관으로서 반성해야 될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 사태를 미리 예측하고 알아내어 예방이나 주의를 환기시킨 일이 얼마나 있었는가. 오늘날 학술 면에서나 경험 면에서나 공히 부족한 지도층에 각성을 요하는 경종(警鐘)이 아닐 수 없다. 경험이 부족하면 배워야 한다. 타인의 경험을 서적을 통하여 자기경험으로 삼아야 될 것이다.

오늘날 과학적 기술의 놀라운 발전에 비해서 인간의 능력이 너무나 부족함을 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것을 장식하듯이 많은 미사여구들이 범람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의 올바른 자세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내적 충실성에 있지 위선이나 가면에 있지 않다. 그러므로 목적의식을 갖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며 창조적 노력으로써 사실을 올바르게 직시하고 지휘통솔의 개선과 향상에 노력함으로써 임무 완수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은 나만이 아닌 만인의 오늘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해발과 산의 높이

삼각법(三角法)으로 산의 높이를 측량하는 것이지만 그 기준은 해면(海面)이며 이 해면(海面)을 수준원점(水準原點)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해면(海面) 즉 수준원점(水準原點)은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고 간조(干潮)에 따라서 다르며 평균 수면을 측량해야 한다. 이것을 평균해수면(平均海面)이라고 한다. 때문에 해발의 기준은 평균해수면(平均海面)을 말하는 것이다.

<내무생활>

군인생활의 반성

이기철 <공군하사>



한 해가 저물어 가면 누구나가 지난 일에 대한 반성을 하게 마련이요 새해의 계획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더구나 제복을 입고 한 울타리 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우리에게 오늘보다도 내일을 위한 새로운 계획이 있어야 하겠고 새로운 계획을 위해선 지나는 한해를 돌이켜 보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작년 이해를 맞으며 계획했던 것은 상하의 이해증진과 내무반장으로서의 반원 신장 파악 단 두 가지 뿐이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중 한 가지도 실천에 옮겨보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말았다. 그리고 보면 지난 몇 년의 세월에 비 하여 무엇 하나 진전 없이 또 한해를 보내고 만 셈이다. 이렇듯이 나 자신부터가 내무생활에 등한시 하면서 이러한 글을 쓰기가 실상은 부끄럽기만 하나 앞으로 우리가 내무생활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하는

마음에서 부끄러운 마음을 억제하며 이글을 쓴다.

생각건대, 우리의 현재 내무생활이나 주위환경은 내가 처음 군에 입대한 6년 전에 비교치 못할 만큼 비약을 보았다. 당시만 해도 지금은 이해하기 힘든 기압이 많았고 정신적으로도 위축을 받아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루하기만 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기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서도 펍 여유를 얻게 되었다. 아마 이것이 우리가 항상 염원하고 있는 민주주의식 병영생활로 이르는 과정일 게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만족할 만한 명량한 내무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기엔 부끄러울 정도다. 지금도 풍문에 의하면 모 부대에선 가혹한 기압이 전통적으로 이어 내려오고 있다고 전한다. 왜 우리가 이러한 좋은 환경 속에서 좀 더 명량한 내무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 원인은 많겠으나 내가 작년 말에 내무반원으로부터 여론을 수집한 것을 중심으로 몇 가지 들어보기로 한다. 첫째로 상급자는 하급자를 알자는 것이다. 비뚤어진 우월감만 가지고 옛날 제국시대의 군대식으로 하급자를 다루려 한다면 이것은 큰 오산이다. 우리가 바라고 가는 것이 민주주의적인 생활 방법인 만큼 상급자는 하급자의 심중에 융화되어 그들과 함께 호흡을 하지 않으면 소기의 목적달성이 힘들 줄로 안다. 옛말에 '시어머니 며느리 적 생각 못한다'는 말이 있다. 자기가 겪어온 쓰라렸던 경험은 생각하지 못하고 언제 줄병이었던냐는 식으로 하급자를 다루려 한다면 이 얼마나 모순된 사고인가? 여기에서 상급자의 반성이 있어야 되겠다. 둘째로 하급자는 상급자를 존경할 줄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다. 상급자의 명령이 비록 부당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먼저 실천하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하며 만 부득한 경우에 명령의 부당성에 대한 시정을 요구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전날 무지한 기압이 두려워서 명령에 추호도 어김없이 이행하던 당시에 비하여 후퇴되어 있음을 느낀다. 당시엔 몽둥이가 두려워서라도 명령이라면 생각할 여유조차 없이 무조건 실천하고자 노력했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보니 하급자를 다루는데 현재의 방법보다 기압이나 몽둥이의 효과가 크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현재와 같이 발전된 생활에서 또 다시 옛날의 습성으로 후퇴하여야 하는가! 그래서 안 될 것이며 그럴 수도 없고 용납되지도 않는다. 이의 해결 방안은 오직 사고방식, 즉 하급자의 상급자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할 것이며 하급자로서의 위치를 재인식 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첨가하여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안일한 생활을 지양하자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안일한 것을 추구하는데다가 성장하는 동안 늘어가는 지식에 정비례하여 자신을 안일하게 하려는 공통된 심리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는 상급자일수록 더하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차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까닭은 많고 적음의 차를 가릴 만큼의 여유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안일만을 추구하지 말고 좀 더 솔선수범할 수 있는 군인이 되어보자는 것이다. 셋째로 여가선용으로 교양을 기르자는 것이다.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기실 이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지금 우리가 내무생활을 하며 여가가 있을 때 무엇으로 시간을 보내는가? 기껏해야 장기, 바둑 같은 오락 아니면 잡담으로 보내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가 3년이란 장기간을 군대에 머무는 동안 우리의 동료들은 무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물론 조건이나 환경이 잘 구비되어 있지 못하다. 그러나 예로부터 환경 좋고 조건이 부합되어 성공한 일이 많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그렇다고 우리의 본연의 임무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 내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적어도 3년이란 장기간에 마이너스는 가져오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이다. 상부에서도 우리에게 오락 시설을 갖춰 주는 것도 좋겠으나 보다 먼저 단 몇 권의 서적일 망정 비치하여 주었으면 한다. 순회 문고가 있긴 하나 연간 1개월에 불과한 정도이니 교육에만 치중하지 말고 일부 교육의 효과를 이룩한 면에서 얻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제 신년을 맞음에 앞서 우리는 마음가짐부터 견고히 하고 앞서 우리가 지난해에 이루지 못한 점과 모순된 점을 거울삼아 세심한 계획으로 명량한 내무생활을 이룩할 것이며 좀 더 발전성 있는 병영 생활로 지향하기 위하여 무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마음 속 깊이 함께 다짐하며 끝맺는다. 삼가 전우들의 건투를 빌며,

◇소련 시인의 아침

방금 소련에는 에후토헤코라는 젊은 시인의 인기가 높다고 하며 그것은 「스탈린의 후계자」라는 시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

그 유명(?)한 시의 한 구절을 소개하면 '위대한 사람에게는 칭찬이 필요 없다. 나는 지금 무엇인가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나는 그를 서정시적 인물이라고 보고 있다' 나는 그들의 '그'는 물론 흐루시초프를 가리키고 있다.

따지고 보면 스탈린의 개인 숭배를 배격하는 그도 흐루시초프에 대한 개인 숭배를 읊고 아첨하였다. 스탈린 생존 시에도 이와 같은 시인은 환영을 받았던 것이다.



국제정세의 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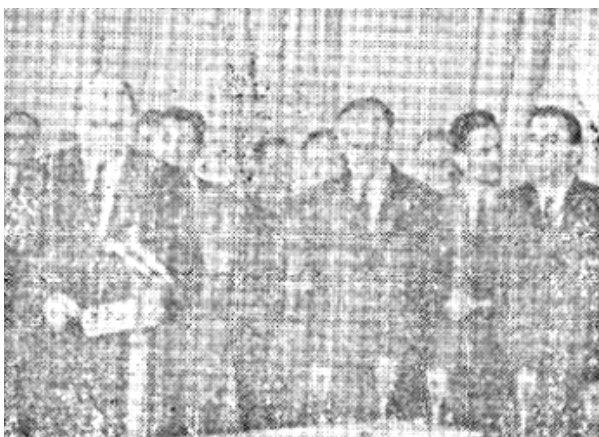
김영배(金榮培)

<내외문제연구소(內外問題研究所)>

◇ 새로운 정세의 몇 가지 양상

제2차대전 이후 공산주의의 팽창정책은 그 최초의 돌파구를 한반도의 북위 38도선에 잡았다. 그것이 너무나도 무모한 침략의 제 일보였음은 역사의 증언도 필요치 않을 만큼 명약관화한 사실이었다. 스탈린과 마오쩌둥과 그리고 김일성이가 남침의 승산을 포기했을 땐 이미 수 백만의 생명이 포탄이나 지뢰와 더불어 '피의 능선'에서 혹은 '철의 삼각지'에서 산화한 뒤였다. 1953년, 3년을 끝낸 한국전쟁은 끝났다. 그러나 그들의 죽음이 장렬했다고 세워진 무명용사의 충혼탑 앞에는 화환 대신 앞서 '휴전'통지서가 헌납되었다.

사실상 미·소 양국의 감정적 타협으로 성립된 휴전은 결코 평화나 통일을 약속한 전제 위에 세워진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양극화된 동서냉전은 그 후 더욱 악화되어 갔다. 베를린에서, 베트남에서, 대만 해협에서, 중동에서, 헝가리에서, 쿠고에서, 그리고 라오스에서, 직접적 간과(干戈) 없는 '감정전쟁(感情戰爭)'을 지속해왔다. 동시에 그것은 저마다 국방력의 강화를 위한 군비경쟁을 수반했다. '힘의 균형'이라는 국제정치의 원리는 20세기 후반기에 들어와서 '핵의 균형'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공포의 균형'이라는 양상으로 발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정세의 추이에 대한 또 하나의 역류가 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인류의 절멸을 가져올 그 가공할



핵전쟁으로부터 탈각하려는 평화운동이다.

한편 공산권 내에서도 1953년 3월 미증유의 독재자였던 스탈린의 사망을 계기로 새로운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흐루시초프가 '공산주의의 영도자'로 등장한 뒤 '철의 장막'에 둘러싸였던 폐쇄적 사회(The closed society)의 문호가 조금씩 개방되기 시작하였고 서방측 자본주의 진영에 대한 공산진영의 대립감정이 새로운 국면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러나 이와 같은 흐루시초프의 중용에 의해서 만연되기 시작한 공산국가의 대서방 접근감정은 공산주의의 분극화라는 중대한 질환을 병발(並發)시켰다.

1962년 10월 22일 카리브 해상의 쿠바에서 '핵전쟁의 문턱'에까지 이끌고 가리만큼 위험한 일촉즉발의 위기를 조성했던 미소 대립이 케네디와 흐루시초프 간의 민첩하고 현명한 타협으로 완화되었던 사실은 18년 간의 동서냉전사에 큰 교훈으로 부각되었다.

이와 같은 한국전쟁이 휴전으로부터 그리고 스탈린 사망으로부터 10년이 되는 더구나 쿠바 위기의 바로 이듬해인 1963년의 국제정치상의 의의를 다음의 두 가지 국면에서 크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하나는 지난 8월 5일 모스크바에서 미영소 삼개국 간에 부분적 핵 실험 금지조약이 조인된 사실이며, 다른 하나는 이른바 소·중공 논쟁을 타결하기 위한 소·중공 양당 이념회담이 지난 7월 5일 같은 모스크바에서 개최되었으나, 결국 '휴회'라는 명목으로 회담이 사실상의 결렬로 그치고 만 일이다.

이러한 중대한 국면을 배경으로 하여 동서 양진영 내의 후퇴적인 약소 국가들이 저마다 선진적인 강대국가와 맞서 자국의 국가 이익(National interest)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에 있어서의 '자립체제'를 지향하는 민족주의(Nationalism)의 자세를 강화하고 있음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

부분적 핵실험 금지조약 체결 소·중공 양당 이념회담의 사실상의 결렬 후진지역의 민족주의의 다원화 등은 1963년도에 조성된 새로운 국제정세의 몇 가지 특징적인 양상이라 볼 수 있다. 이들 양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 공존의 광장을 향하여

1945년 7월 16일 미국의 뉴멕시코 주에서 최초의 핵실험이 성공했을 때 인류 역사는 일대 전환점에 서게 되었다. 미국에서 뒤이어 소련, 영국, 프랑스 등이 핵실험에 성공하게 되자 이른바 '핵공유시대'가 형성되었고, 저마다 자기나라의 번영과 안전보장과 국위의 선양이라는 소아적(小我的)인 동서 간의 핵개발 경쟁은 냉전을 격화시키고 '공포의 균형'이라는 위험한 국제정세를 조성했을 뿐 평화에 대한 인류의 염원에는 보답하지 못하였다.

1950년 1월 말의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의 수소폭탄 개발계획 발표는 동서군확경쟁(東西軍擴競爭)에 한 촉진제가 되었다. 동년 11월 '핵전쟁으로는 전 인류의 안전보장을 기할 수 없다'는 아인슈타인 박사의 '평화성명'이 발표되었다. 이를 계기로 하여 그 가공할 내증유(來曾有)의 참극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도록 이 '유성(遊星)'이 이로 부터

핵무기를 완전히 없애버리려는 평화운동이 성숙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인류의 염원은 새로운 역사의 물줄기가 되어 지금까지 힘차게 흐르고 있다.

1956년 9월 당시의 소련 수상 불가닌이 핵실험금지와 일반 군축과의 분리교섭을 제창한 뒤 58년 삼월 소련은 일방적인 핵실험 중지를 선언했다. 그로부터 5년 동서 간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핵금지 교섭이 수백 번 열렸고, 한때는 프랑스를 제외한 미영소 간의 '사실상의 핵금지(核禁) 시대'도 있었다. 그러나 61년 9월 소련의 일방적인 핵실험 재개는 공전해온 핵금지 군축교섭의 일방적 파기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뒤이어 미국도 지하 핵실험을 재개했다.

그 후 나날이 각박해진 동서 대립의 국제정국은 62년 10월 쿠바사태를 유발 시키고야 말았다. 그러나 이 쿠바 위기의 극복은 지각있는 인간들의 눈을 전쟁으로부터 평화로 돌리는 촉매제가 되었고, 동서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계기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냉전사상 두고 두고 명심해야 할 귀중한 이정표가 되었다. 쿠바사태와 공산권 내에서 격화일로에 있는 소·중공 논쟁을 배경으로 하여 동서 평화공존의 새로운 무드는 싹트기 시작했다.

금년에 들어와서 미소협상의 분위기는 무르익어갔다. 지난 6월 10일 케네디 대통령은 아메리칸 대학에서 소위 평화전략에 관한 강연을 통해 미영소 3개국 핵금지(核禁) 고급회담을 개회할 것과 대기권내 핵실험의 자발적 금지를 제의했다. 7월 2일 호루시초프는 동베를린에서 지하실험을 제외한 부분적 핵실험 금지조약에 동의했으며 아울러 NATO와 바르샤바 조약 체제 간의 불가침 조약을 제의했다. 그 후 '냉전을 해소하고 세계에 평화를 구축하자는 호루시초프의 호소(63년 7월 19일 소련 헝가리 우호협회에서 행한 연설)와 핵금지(核禁) 조약의 체결의 '암흑 속에 비쳐온 한줄기의 광선'에 비유한 케네디 대통령의 찬사(7월 26일의 텔레비전 방송)가 있은 뒤 드디어 8월 5일 모스크바에서 '대기권, 외계, 수중에 있어서의 핵무기실험을 금지하는 조약'이 미영소 3국 간에 정식으로 조인되었다. 이 역사적인 조약 체결은 '인류의 파멸을 피하는 목표가 다 른 모든 목표에 우선해야 한다'는 아인슈타인 박사의 교훈이 빛을 찾을 수 있다는 최초의 증언이었다.

또한 부분적 해금조약의 체결을 '평화로의 일보요 이성애의 일보이며 전쟁으로부터의 일보 후퇴'라고 평가하는 점에 있어서는 케네디나 호루시초프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후자는 '이 조약이 극락시대를 가져오는 것도 아닐 뿐더러 모든 분쟁을 해결하는 것도 아니며, 더구나 공산주의자의 야망을 방지시키는 것도 아니며 전쟁의 위험을 삼제(剷除)하는 것도 아니라'고 주의를 환기시켰으며(7월 26일자 텔레비전 방송) 전자는 '이 조약의 의의를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 핵금지 그 자체가 결코 군축이 아니며 또한 군비경쟁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경고하였다. 하지만 이 부분적 핵금지(核禁)조약의 성립이 동서냉전의 완화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만은 분명하다.

무릇 이 핵금지(核禁) 조약이 체결된 동인(動因)을 우리는 다음의 몇 가지로 볼 수 있다.

즉 첫째, 사실상의 승부가 없으며, 결국 '상호 자살'을 의미하는 전면적인 핵전쟁을 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며,

둘째로는 발흥하고 있는 민족국가주의를 지향하는 프랑스, 서독, 중공 등의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고, 핵 독점의 현상을 유지하면서 국제정치무대에 있어서 헤게모니를 견지해보자는 미소 양국의 공통된 이해관계에 있다.

셋째, 핵실험 탐지기술의 발전으로 대기권, 외계 및 수중에 있어서의 핵실험 탐지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복잡한 관리사찰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기술적 문제이다, 그러나 넷째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동인(動因)은 핵전쟁을 반대하고 항구평화를 추구하는 인류역사의 대세를 미국이나 소련이 무지각하게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핵금지(核禁) 조약에 조인한 나라가 9월 말 현재로 이미 101개 국에 달했으며, 미소인국이 프랑스나 중공, 쿠바, 북괴 등을 포함하여 불과 22개 국 뿐이라는 사실은 이상과 같은 '인류역사의 대세'를 명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1936년에 들어서서 동서냉전을 완화하기 위한 미소 양국의 외교정책을 '동동분열(東東分裂)'과 '서서대립(西西對立)'이라는 자체 내의 진통을 무릅쓰가면서 그것이 저마다의 국가이익에 배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평화공존을 지향하면서 협력하고 있다. 최근 동서 간의 적극적 협력이 가져온 몇 가지 괄목할 만한 결실이 있다. 첫째는 지난 6월 우발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직접통신선 설치에 관한 미소 협정이 체결된 것이다. 둘째는 전례없이 비상한 세계의 관심을 모은 가운데 지난 9월에 개막된 유엔 제 18차 총회에서 미소 간의 성의 있는 협력이다. 셋째는 핵무기의 대기권외 발사 금지에 관한 유엔의 결의가 채택된 것이다. 넷째로 소련은 쿠바로부터 기술자를 제외한 소련의 모든 전투부대를 쿠바위기가 발생한 후 1주년이 되는 지난 10월까지 완전히 철수시켰다. 다섯째 미소 간에 민간 항공로 개설과 영사관 설치에 관한 합의가 거의 이루어졌고 양국 간의 문화교류협정도 상당히 진척되었다는 사실이다. 여섯째 미소 양국 간의 간첩 용의자의 상호교환이며 특히 물의를 일으켰던 예일대학 교수 바그혼을 소련이 석방한 일이다. 일곱째 냉전사상 유례없던 '동서무역해빙'이라는 새로운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소련이 지난 9월 캐나다, 호주, 프랑스, 서독 등지로부터 대량의 소맥을 수입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미국산 소맥까지 구입하려는 교섭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폴란드, 유고,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동구 공산제국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제국과의 외교와 경제 및 문화교류를 확장하려는 적극적인 공존외교 정책을 쓰고 있다. 한편 영국, 일본도 대 공산권 통상망을 확대하는데 힘쓰고 있으며, 서독도 아테나위의 뒤를 이어 지난 10월 에어하르트가 수상에 오른 뒤 혁신적 외교정책의 주창자인 슈뢰더 수상의 보좌를 받으면서 대담한 대 공산권 접근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맥미란의 뒤를 계승한 홈 영국 수상도 케네디 대통령의 평화공존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이 반면에 절대평화와 완전군축에 이르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오늘날의 국제정세의 저류(底流)에 암초가 산적해 있다. 그러한 암초는 흐루시초프가 ‘달나라 여행’ 미소 공동협력에 관한 케네디 대통령의 의제를 거절한 것이라든가 지하 핵실험 금지의 희망이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이라든가 또는 NATO와 바르샤바 양 군사체제의 불가침 조약 체결의 현실적 가능성이 희박한 것, 전면군축운동의 난관, ‘죽음의 벽’이 잔존 한 채로 독일 베를린 문제가 그대로 교착 상태에 빠져있는 사실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1963년도의 국제정세의 흐름에 분명히 평화공존에의 새로운 국면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며 동서 양 진영이 새로운 ‘공존의 광장’을 향하여 그 제1보를 내딛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분극화하는 공산권과 다원화하는 민족주의 운동

쿠바사태와 인도·중공 국경분쟁 그리고 소련과 유고의 외교정상화 등으로 인하여 작년부터 더욱 극악화되고 있는 소·중공 논쟁을 결착지우기 위하여 지난 7월 5일 모스크바에서 열렸던 소·중공 양당회담이 사실상의 결렬로 끝나 버렸고 이 때문에 공산권이 소련의 평화공존노선을 지지하는 소련세력권과 중공의 민족해방투쟁노선을 성원하는 중공세력권으로 양극화해가고 있는 데에서 우리는 1963년도 국제정세의 또 하나의 특징적 양상을 찾아 볼 수 있다.

소·중공의 대립, 논쟁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 덩어리의 바윗돌과 같은 그 단결을 자랑해오던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 분열마저 초래한 것이다. 1956년 2월 제 20차 소련 공산당 대회에서 흐루시초프가 스탈린 망령 추방운동과 평화공존정책을 제창했을 때, 제국주의에 대한 전략, 전술, 전쟁과 평화에 대한 견해, 사회주의의 평화적 이행문제 등 여러 가지 논점에서 맑스·레닌주의의 그 실효성을 재검토하고 재해석해야 할 공산주의의 숙명적 모순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소·중공 논쟁의 싹은 트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8년, 소·중공 논쟁은 양당 간의 관계로부터 국가 간의 관계로 확대되어 갔던 것이다.

쿠바사태에 대한 흐루시초프의 소위 ‘영광스러운 자체조치’가 취해진 뒤 중공은 제국주의와는 숙명적으로 타협할 수 없고 싸워야 된다는 그 국가목표에서 일보의 양보도 하지 않고 소련의 수정주의적 국가정책에 반발해왔다. 지난 6월 14일자,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의 서한은 소련의 평화공존노선을 25개 항목에 걸쳐 철저하게 비판한 것이었다. 이에 대한 소련공산당의 응수는 7월 14일자 공개서한으로 나왔다. 그 후 부분적 핵금(核禁)조약 체결을 계기로 소·중공 논쟁은 양국 간의 비밀조약문건 등을 폭로하는 극도의 감정항쟁으로 발전했던 것이다. 소련이 대내적으로는 20개년 경제

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반면, 대외적으로는 평화공존정책을 내세워 서방진영과의 접근을 시도하면서 결국 중공을 견제하기 위하여 평화공존노선을 지지하는 자기세력권 확장에 양장(鞏掌)하고 있다. 이와 대응하여 중공도 소련의 원조가 끊어진 지금 자력생산을 부르짖으며, 대내적으로는 자립경제정책과 반수정주의 사상운동(뇌봉학습(雷鋒學習)운동)을 전개하면서 대외적으로는 민족해방투쟁노선을 수출하면서 특히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반미, 반소, 전선을 강화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북괴는 지난 10월 28일자 「노동신문」에 ‘사회주의국가를 옹호하자’는 사설을 게재하여 반미, 반소 전선의 기수로 앞장 설 것을 자청했다. 참으로 이 사실은 ‘변절한 김일성의 총화(總和)’이다.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자기모순의 표현이며, 그 붕괴에의 중요한 일보라 볼 수 있는 이 소·중공 논쟁의 보다 중대한 영향은 소련의 대 서방정책을 역으로 강화하여 동서냉전의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공산권 내에 소련의 위성적 지배체제를 벗어나려는 민족주의의 기운이 태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좋은 예는 루마니아의 소련에 대한 자기 이익과 주권의 주장이다. 자기의 국가이익을 도모하고 국가변영을 기하려는 루마니아의 자주경제정책을 코메콘을 통하여 국제분업이라는 명목으로 간섭하려던 소련은 민족주의의 절규밖에 받은 것이 없다.

이러한 양상은 서방진영에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대외정책을 반대하는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의 ‘대 프랑스 창건 운동’이다.

1963년에 들어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는 바야흐로 저마다의 국가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강력한 자립정치와 주체성을 주장하는 신흥국가들의 민족주의운동이 다원화 해지고 있다. 정치적·경제적 이해와 커뮤니케이션의 발달은 이러한 민족주의를 가능케 하고 있으며 민족적국가의 재편성을 촉진하고 있다. 알제리, 예멘, 이라크, 말레이시아, 베트남, 쿠바 등지에서 일어난 정치적 변동은 이러한 민족주의운동의 진통인 것이다.

또 하나의 공존의 시험대가 될 1964년도를 앞에 둔 1963년의 국제정세는 인류사에 평화에의 시련이라는 좋은 교훈을 주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그 의의를 평가하고 싶다.

◇국가에 대한 애정

케네디 대통령이 월남대사로 뚝지 씨를 파견했을 때 CBS 기자는 케네디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뚝지 씨는 대통령과는 정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어째서 그를 사이공에 보내있는가?” 케네디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첫째는 스스로가 원했다. 그가 만일 자신의 정치가로서의 개인적인 입장만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월남처럼 어렵고 골치 아픈 일을 맡으려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는 보다 안전한 직책에 앉을 수도 있었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아메리카를 사랑하는 정치가였기 때문에 아메리카가 가장 골치 아파하는 문제를 해결 하려고 자원한 것이다. 미국을 사랑하는데 있어서 정적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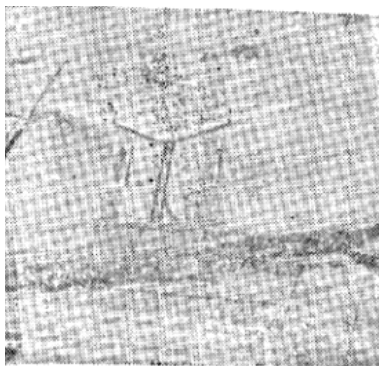
전략의 변천

권정식(權禎植)
〈국방대학원 교수〉

전략면에서의 1963년은 쿠바사건의 여운으로 서방측에게는 자신과 신념의 새해였으나 소련을 비롯한 공산진영에게는 침울하고 혼란스러운 신년이었다. 쿠바에 있어서의 미국의 개가는 미국사람에게 이때까지 마치 미국의 군사적 입장이 섬멸적인 직접공격 앞에 폭로된 극히 취약한 것 같이 느끼는 일종의 패배주의의 경향을 불식하고 전세계에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과시했다. 반면에 소련으로서는 철의 장막의 내부가 그들이 선전하는 것처럼 튼튼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폭로시키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공을 비롯한 몇몇 공산국가들로부터는 비겁하다는 비난까지 받게 되어 치명적인 타격이 아닐 수 없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밝아진 1963년은 백악관 과 크렘린 간의 직통 전신망의 가설이 실현되고 부분적인 핵실험금지협정이 체결되어 미·소 두 나라가 예상외로 접근한 것 같은 인상을 주는 반면 프랑스의 독주로 서방세계에 균열이 생기고 소·중공의 이른바 이념투쟁으로 공산세계가 완전히 두 조각이 된 듯하여 동서냉전이라는 말과 더불어 동동냉전(東東冷戰), 서서냉전(西西冷戰)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생겨날 정도의 어수선한 전기(轉機)에 선 채로 저물어가고 있다.

전략은 정세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따라서 1963년이라는 1년 동안에 전략이 상술한 바와 같은 정세변천의 와중에서 어떠한 자태를



보지(保持)해 왔는가를 검토해 본다는 것은 전략이라는 국한된 분야뿐만 아니라 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소련 전략의 변천

소련이 미국과 접근하려고 한다는 현상은 소련의 전략의 변천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잘못이 없을 것이다.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한 평화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전쟁은 혁명의 모체라고 부르짖던 공산주의자의 본영인 소련이 전쟁을 기피하려는 자유세계와 접근하려는 구체적인 노력을 시작했다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소련의 전략이 변천했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소련의 변천이 1963년의 뚜렷한 역사적 사실임이 분명하다. 물론 몇 가지의 단편적인 사실을 가지고 전략의 변화라고 규정한다는 것은 지나친 속단이라고 항의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련에는 그 들의 전략을 변경시키지 않을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설명함으로써 필자의 견해가 속단인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아울러 변천 그 자체의 설명으로 삼으려 한다.

소련이 미국에 앞서 IRBM을 실용화(1956년)시키고 다시 ICBM의 실험 성공에 선수를 치고 또 스푸트니크 11호를 발사한 것을 계기로 이것을 대대적으로 선전하여 전세계에 대해 자국의 군사적·과학적 우위를 과시했던 것은 우리들이 숙지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의 U2기에 의한 정찰 결과로 소련의 실력이 명백히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도 세계가 공지하는 사실이다. 흐루시초프는 비록 미국이 군사적으로 우세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종의 시위용이고 공창(烹鳴)용이지 사용 의사는 별로 없을 것으로 믿고 쿠바에 불을 질러 보았다. 그 결과 미국의 힘에는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사용한다는 결의가 수반(隨伴)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 후퇴했던 것이다. 여기에서 크렘린의 지도자들도 이제는 막연하게 소련은 군사적으로 세계 최대의 강국이니만치 미국은 감히 공격해오지 못한다는 식의 형식적인 진리는 통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에 각성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현재의 소련의 전략은 종전까지의 정치적인 것으로부터 현실적이며 군사적인 것으로 변한 것이다.

현실적이며 군사적인 전략에 입각하는 이상 무모하게 미국과 경쟁해서 자국의 경제적 파탄을 초래할 것 없이 제후해서 가공 절멸적인 핵전쟁의 위협을 방지하는 것이 현명한 것으로 판단했으리라는 것은 짐작이 가는 일이다. 이래서 우발전쟁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직통전신망을 가설하는데 동의하고 핵의 확산으로 제3국이 유발하는 촉매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부분적인 핵실험 금지협정에 참가한 것이라고 보아진다.

전략의 새 주인공은 제2공격력

쿠바사건에서 미국은 자국의 실력을 충분히 과시했고 동시에 자신을 얻었다. 그러나 군사력 증강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을 늦추지 않았다. 그것은 FY-64의 국방예산이 FY-63보다도 더 증액되었다는

사실에서 증명된다. 그리고 미국 의회는 FY-64에 미니트맨 150기와 폴라리스 잠수함 6척의 신규 발주를 승인했다. 이것으로 미국정부가 발주한 미니트맨의 총수는 950기가 되고, 폴라리스는 41척이 된다. 기지(既知)하는 바와 같이 미니트맨은 사일로 속에 격납되어 지하 깊이 들어가 강철과 콘크리트로 된 벽으로 싸여 적의 핵공격에도 파괴되지 않게 설계되어 있고, 또 이것은 고체연료를 사용하여 30초만에 발사할 수 있다.

폴라리스 잠수함은 한 척에 16기의 폴라리스 미사일을 적재하여 잠수한 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그 두 가지의 무기는 극히 신뢰성이 높은 제2공격력이다. 제2공격력이란 적으로부터 핵미사일 공격을 받아도 파괴되지 않고 살아남아서 적에 대해 치명적인 보복을 가 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이에 반해 선제공격이나 기습에는 유효하지만 적의 제1격으로 파괴되어 버릴 전략폭격기나 지상에 노출된 액체연료 미사일들은 점차 스크랩되어가고 있다. 현재 미국의 현역 전략폭격기는 1600기인데 내년 말까지에는 1000기로 줄어들 예정이며, 미국과 이탈리아 그리고 터키에 배치되었던 ICBM 쥬피터나 쏘아도 철수되었다. 그리고 발주된 미니트맨과 폴라리스 잠수함이 제작공장에서 납품되는 대로 전략폭격기는 점차 삭감될 계획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은 미사일 시대가 폭격기시대에 대치되어 간다는 것과 아울러 제2공격력이 전략의 주인공으로 등장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공격용에서 방어용으로

이때까지의 군사적 우위는 어느 쪽이 먼저 담약(膽弱)하지 않는 보복력 즉 제2공격력을 갖추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현단계는 이미 이러한 제2공격력은 미·소가 다 같이 어느 절대량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여기에서 이른바 공포의 균형이라는 상태가 전개되었다. 앞으로 어느 쪽이 먼저 이 균형을 깨뜨리고 새로운 군사적 우자(優者)가 되느냐 하는 것은 어느 쪽이 먼저 ICBM을 요격하는 이른 바, 미사일 요격 미사일을 개발하느냐에서 결정되게 되었다.

호루시초프는 소련은 우주를 나는 파리 한 마리도 놓치지 않을 완전한 무기를 완성했다고 호언한 일이 있고 소련의 로켓 군사령관 비류쵸프는 “비행 중인 미사일을 요격하는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발표하기도 했지만 소련이 이러한 무기를 가졌다는 사실을 증명할 아무런 구체적인 흔적이 없으니 이 말들은 아무 것도 모르는 소련 인민들의 사기를 올리기 위한 선전인 동시에 일종의 희망적 미래상에 불과하다.

미국은 그 동안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자해서 개발을 추진하여 7회나 실험한 성공한 바 있었던 AMM(미사일 요격 미사일), 나이키 제우스의 개발 계속을 금년에 들어와서 포기해 버렸다. 미국이 나이키제우스의 개발을 포기한 이유는 이것은 단 한 발의 미사일밖에 요격할 수 없는데다가 진짜 탄두와 가짜 격두(擊頭)를

식별할 기능을 갖추지 못했다는 데에 있다. 즉 실전에 들어가면 적은 진짜 탄두와 같이 많은 가짜 탄두를 발사할 것이 확실한데 이것을 식별 못하는 장님을 막대한 돈을 들여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이러한 무기의 실용화가 앞으로 5년 내로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리고 나이키 제우스 대신에 나이키X를 개발할 계획으로 AMM 개발의 노력을 다시 연구실로 환원시켰다. 요컨대 1963년은 공격용인 제2공격력의 증상에 일단락을 짓고 이것을 방어하기 위한 AMM의 개발로 전환한 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결론

이 이전에도 1962년 6월 16일 미시간 대학에서의 맥나마라 미국 국방장관의 연설에서 천명된 대 전력전략에 관한 물의(物議)가 자자하여 최근에 와서는 이것의 수정이 불가피하지 않겠는가라는 관측도 떠돌고 있고, NATO의 핵전력의 다각적이나 다국간이나는 문제가 해결을 보지 못한 채 명년으로 이월되게 되는 등 19를 회고하는 마당에 서 빠뜨릴 수 없는 문제가 많지만 이것들은 생략하지 않을 수 없다.

종합적으로 말해서 1963년은 소련의 전략이 정치적·형식적인 것으로부터 군사적·현실적으로 전환한 해인 동시에 제2공격력시대의 돌입기로서 유인 비행기와 미사일의 비중을 전환시킨 계기점의 역할을 담당한 해이며, 또 세계의 군사적 우위를 결정하는 요소를 공격용인 제2공격력으로부터 방어용인 AMM으로 전환시킨 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여기서 전략의 영역에는 미사일 시대가 도래 했고, 여기에 따라서 해외기지의 의의가 변화하고 또 육상기지의 중요성은 점차 희미해지고 해상기지의 중요성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공포의 균형을 깨뜨리고 다음의 군사적 우위를 보장할 AMM의 개발은 생산공장에서 연구실로 후퇴하기는 했지만 이 연구실에는 이것 외에 대형우주 로켓, 대 잠수함무기, 수직상승기 등의 연구도 추가되었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민을 위한 원조다

월남(혁명전)에 대해서 미국은 손을 떼라는 여론이 높다고 말한 W·크론 카이트 기자는 케네디 대통령에게 월남정책을 질문했을 때 케네디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물론, 미국이 월남에서 손을 떼 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생각은 없다. 왜냐하면 월남국민은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으며, 우리가 골치를 앓고 있는 것은 월남국민이 아니고 월남정부인 것이다. 고딘디엠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며 고딘디엠 정권으로 볼 때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공산주의로부터 위협을 받는 이상의 위협이다. 그 정부가 존속하려면 우선 국민의 지지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국민을 원조하고 있는 것이지 그 정권을 원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병기 분야의 변천

이종수(李鍾秀)
〈한국일보 과학부〉

인류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핵폭탄(核爆彈) 위에 걸터앉아 평화를 누리고 있다.

미·소(美·蘇)를 비롯한 영·프(英·佛)등의 나라는 그래도 한시를 쉬지 않고 새로운 병기를 만들어 내려고 애를 쓰고 있다.

이미 제2차 대전이 끝나면서 병기 제조 경쟁은 스타트 라인을 벗어났다. 그로부터 18년째 되는 63년도도 어느 새 저물어가고 있다.

무서운 가속도(加速度)가 붙어 있는 동·서(東·西) 양 진영의 병기 제조경쟁 결과로 이미 인류를 몰살시킬 양(量)의 수십 내지 수백 배의 핵병기(核兵器)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엄청나게 성능 높은 살육(殺戮) 병기를 만들어 내려고 버둥거리고 있다.

63년도에도 병기분야에 여러 가지 변천 이 있었다.

그러나 세상에 알려져 나온 것은 실제 개발된 것에 비하면 빙산(氷山)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동·서양 진영에서 추진되고 있는 병기 개발 연구는 모두가 두터운 비밀의 베일을 뒤집어 쓰고 있다.

따라서 여간해선 세상에 자세한 것이 드러나지 않게 되어있다.

이렇게 여간해서 드러나지 않는 병기 분야의 변천이지만 63년도 1년에 지상(紙上=주로 외지(外紙))에 보도되어 나온 것만도 수두룩하다. 물론 살점은 별로 없고 뼈다귀가 주이지만 그래도 지난 1년 동안의 변천을 짐작 시키는 데는 모자람이 없다.



병기 분야는 참으로 넓고도 깊다.

따라서 63년도 병기분야라고는 해도 범위를 극히 제한하는 수밖에 없다. 현대의 4대(大) 병기라는 A(원자), C(화학), B(생물), R(방사능) 병기 가운데서 병기에 관한 것과 그것을 운반 하는 수단인 미사일에 관해 주로 알아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지면도 모자라거니와 그 외의 것을 더 알아 볼 필요성도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동·서양 진영에서는 눈에 핏발을 세워 가며 가공(可憐)의 병기를 경쟁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을 보면 곧 싸움이나 터지지 않을까 겁을 집어 먹기가 쉽다. 그들은 언제라도 싸울 수 있는 태세를 갖추기 위해 병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반대적인 해석도 가능하다. 그 양 진영에서 결사적으로 병기를 개발 하고 있는 한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히틀러나 무솔리니 혹은 도오조(東條) 따위는 상대방의 군비(軍備)가 허술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다. 상대방이 언제든지 무서운 위세로 반격해 올 것이라고 판단했었다면 선불리 전쟁을 개시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동·서양 진영이 군비를 충실히 하여 세력상의 균형을 유지 하는 이상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가 있다.

오늘날 지상에는 인류를 전멸시킬 수 있는 양의 수백 배나 되는 핵병기(核兵器)가 마련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핵병기를 제조하는 데에만 매년 약 42억 달러(5460억원)가 쓰여 왔다.

핵 병기제조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만도 약 10만 명을 헤아린다고 한다.

그 넘치고 넘치는 핵병기를 상대방 나라에 실어 나를 수 있는 미사일도 이미 충분히 개발되어 있다. 미국은 30분만에 소련 전토를 무찌를 수 있는 대륙간 탄도유도탄(大陸間 彈道導彈=ICBM)을 약 5백기(基)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소련은 100내지 150기 정도 보유하고 있고……. 그것들은 단추하나만 누르면 정확히 목적하는 곳까지 30분 정도에 날아가서 폭발하게 된다. 이렇게 이미 미·소 양 대국에는 지구 최후의 날을 가져 올 수 있는 충분한 핵 탄두(核彈頭)와 그 운반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쉬지 않고 핵병기 개발을 위해 전진하고 있다. 더 작은 핵병기 혹은 더 큰 핵병기를 만들려고 하는가 하면 더 무거운 핵탄두를 나를 수 있는 미사일 혹은 빨리 쉽게 정확히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을 만들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그들이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번개같이 날아드는 상대방의 ICBM을 그것이 노리는 목표 훨씬 앞에서 격파해 버리는 미사일 요격(邀擊)용 미사일의 개발이다.

우선 핵병기 분야에서부터 보면

핵병기하면 무조건 그 위력이 어마어마하게 센 것인 줄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사실은 원폭과 보통 폭탄과의 경계는 이미 없어져 버린 지 오래다. 하기는 최초로 일본 히로시마(廣島)에 투하된 TNT화약 2만톤(20킬로 톤)에 해당되는 원자탄 쪼은 무색하리만큼 어마어마한 위력의 핵폭탄(核爆彈)이 만들어져 나온 것만은 틀림이 없다.

소련은 이미 61년 11월에 TNT 약 5000만톤(50메가톤)짜리 핵폭탄의 폭발실험을 가진바 있고, 100메가톤짜리도 제조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미국은 그렇게 큰 것에는 그다지 전략적 가치를 두고 있지를 않아서 그렇지 그것 역시 만들려고 하면 만들 수가 있다고 한다.

반면 히로시마형보다 훨씬 위력이 약한 것도 많이 제조되어 있다.

미국 원자력위원회(原子力委員會=AEC)가 59년 3월 10일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은 1톤, 6톤, 36톤, 57톤, 83톤, 84톤, 92톤, 100톤, 180톤, 200톤짜리 등 소형 핵실험을 실시한 바가 있다고 한다.

그 중 36톤짜리는 보병의 바주카포에도 장비할 수 있는 소형 핵병기의 기초 실험이었다고 한다.

이렇듯 원폭이라고 다 위력이 큰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 로렌스방사선 연구소에선 지난 10월 '버켈리움 캘리포니움' 등 4종의 인공원소(人工元素)를 분리해 내는데 성공했다. 자연엔 없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 인공원소들은 극히 불안정한 것들이기 때문에 극소량(極少量)으로도 임계(臨界)에 도달하여 연쇄반응을 일으킨다고 한다.

따라서 인공원소를 이용하면 원자소총(原子小銃) 심지어는 원자권총까지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11월 중순에 들어 미국 워싱턴에서 갑자기 소련서 반물질폭탄(反物質爆彈)을 제조하였다는 정보가 흐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보통 물질은 양자(陽子)와 중성자(中性子)로 이루어진 원자핵(原子核) 주위를 전자(電子)가 돌고 있는 이른바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기묘하게도 양자, 중성자, 전자들과는 반대되는 성질(예를들어 전하(電荷)같은 것이 상반되는 따위의) 소립자(素粒子)인 반양자(反陽子), 반중성자, 반전자(혹은 양전자(陽電子))같은 것이 발견되어 나왔다.

이런 반양자 따위로 만들어진 물질이 바로 반물질인 것이다.

이 반물질과 정물질과 접촉이 되는 경우엔 100퍼센트가 에너지로 되기 때문에 그 위력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원폭의 천배, 수백의 3백배가 될 것이다. 5원짜리 동전만한 반물질로 능히 수천메가톤의 폭발력을 낼 수 있다고 한다, 소련서 어떤 것을 만들었는지는 아직 알 도리가 없다. 여하튼 적게는 인공원소에 의한 원자권총부터 크게는 반물질 폭탄에 이르기까지 가지가지 위력의 핵병기의 제조가 서둘러지고 있다.

미국이 63년도(11월 15일 현재까지)

실시한 지하핵실험(地下核實驗)만도 무려 40회에 오르고 있다.

대략 1메가톤 이하의 중형 내지 소형 핵폭탄의 실험이지만 미국은 그것으로서 대형 핵폭탄도 아울러 개발한다고 한다. 8월 5일에 조인(調印)된 부분핵실험금지조약(부분핵금지조약(部分核禁條約))이 미국의 핵세력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상원(上院) 군사위군비소위(軍事委軍備小委)등 청취회에서의 질문에 대해 맥나마라 국방장관은 지하 핵실험으로도 능히 대형 핵탄두를 개발할 수 있다고 명확히 증언한 바 있다. 다음은 핵탄두를 운반해내는 로켓(미사일)분야의 변천을 살펴보자.

소련은 100메가톤짜리 핵폭탄을 개발해 놓고 그것을 운반할 수 있는 강력 로켓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여왔다.

그러다가 그들은 5월 15일부터 2개월간에 걸쳐 제5차 태평양 로켓실험을 실시한 바 있다. 서방측에서는 그것이 100메가톤짜리 핵탄두를 운반해 낼 수 있는 강력 로켓의 개발을 목표로 한 실험이 아닌가 관측한 바가 있다.

그 관측이 맞는지 그렇지 않으면 6월에 있었던 남녀(男女) 우주비행사의 쌍둥이 우주 비행을 위한 로켓 실험이었던지는 아직도 분명치는 않다. 그러나 지금까지 로켓을 개발해 온 과정을 보면 그 나라가 100메가톤짜리를 운반할 수 있는 로켓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는 형편이다.

그러면 미국은 어떤가. 이제까지 미국은 로켓의 추력(推力)에서 뒤지는 바람에 ICBM의 실용화에서도 시간적으로 뒤진 바 있고 우주경쟁에서도 여러 번 쓴 잔을 든 일이 있었다.

그런 불리한 점도 있지만 서도 그밖에 미국은 100메가톤짜리 핵폭탄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데서 그런 것을 만들지도 않았고 또한 그런 것을 운반할 로켓도 고려 밖에 두어왔다. 미국은 20 내지 40메가톤짜리 핵탄두와 그것을 운반할 수 있는 ICBM에 더 전략적 가치를 두고 있다.

미국은 지난 6월에 비로소 타이탄2형 ICBM을 실전 배비(配備)하기 시작했다. 63년도에 6개 부대가 실전 배비된다고 한다.

그런데 이 타이탄2형은 타이탄1형을 개량한 것으로서 중전보다 2배의 핵탄두를 장비할 수 있다고 한다. 그 결과 25메가톤 정도는 거뜰히 장비하고 적의 심장부까지 날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그것은 지령(指令) 후 1분 만에 발사할 수 있어 인스턴트 ICBM이라 불리기도 한다. 이와는 별도의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미국의 강력 로켓 개발도 차츰 궤도에 오르고 있다.

즉 미국은 3월 28일에 4번째로 세턴 로켓발사 실험에 성공을 거두었는데 그것은 추력이 585톤으로서 세계 최강인 것이다.

새턴 로켓라면 100메가톤의 핵탄두 운반쯤 문제도 안 될 것이다.

그 밖에 미국서 63년도에 폴라리스 A3형 유도탄을 완전히 개발해 냈다는 것은 크게 주목 할 만한 가치가 있다.

바다 속의 이동기지(移動基地)인 폴라리스

갈매기 쫓아 동해안으로

국군의 날 기념 순회강연여행

지승룡(池昇龍) <공군소령>

[출발]

민간 항공편으로 강릉을 갈까 하였으나 마침 월요일은 운휴라 하여 부득이 관광버스를 이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일찌감치 식사를 마치고 아직도 별이 반짝이는 새벽, 어머니의 전송을 받으면서 5시 30분 대문을 나섰다.

내주가 추석이라 하여서 그런지 버스도 만원이다.

버스는 동대문을 지나 청량리, 중랑교를 거쳐 망우리 고개를 넘더니 한강을 오른쪽으로 보며 달리기 시작한다. 양평을 지나니 지난 5월, ASOC 파견시 지나던 생각이 난다. 여기부터 차차 산이 험해지고 가을의 빛은 아직 보이지 않았으나 자욱이 낀 안개 속에 그래도 가끔 단풍진 나무 잎들이 보이니 한 폭의 그림과도 같다. 제법 차다.

9시 경 이름 모를 자그마한 읍의 큰 대문을 가진 어느 집에 버스가 도착하더니 여기서 조식을 하라는 것이다. 미국의 Drive-in-cafeteria를 연상시킨다. 물론 시설이야 보잘 것 없으나 구상이야 일류지.

조식 생각이 없어 왔다 갔다 하며 장 구경을 했다.

사과를 두어 개 깎고 나서 다시금 버스에 몸을 실었다. 이제 차차 산악 지대에 들어갈 모양이다.

옆의 중년신사가 말하기를 큰 산을 셋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멀리 보이던 산들이 차차 가까워지더니 이제는 완전히 그 산속에 묻히는 기분이다. 나무들이 울창해 진다.

12시 큰 산을 이미 둘 넘었다. 그 후 상당히 올라 간 듯하더니 차장이 곧 대관령에 도착한다 한다. 하기가 비행 시 가끔 이 산정을 지났으니 별로 신기한 마음은 안나나 좌우간이

잠수함은 각각 16기의 폴라리스 유도탄이 장비되어 있다.

그 폴라리스 유도탄엔 사정거리에 따라 A1형(1900킬로미터), A2형(2400킬로미터), A3형(4000킬로미터) 세 가지가 있다.

그런데 이제까지 실전화(實戰化)가 안되었던 폴라리스 A3형이 지난 10월 26일 4번째(그밖에 함상 발사실험 이 1회)로 잠수함에서의 수중 발사실험에, 성공함으로써 실전화 단계에 까지 도달하게 된 것이다. 이제는 폴라리스 잠수함으로 소련의 어느 곳이라도 공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미사일 요격용 미사일 분야는 어떤 변천을 보였을까.

금년 초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소련의 레닌그라드 부근에 새로운 미사일 기지가 건설 되었다는 소식과 아울러 그것 이 AMM(안티미사일)기지일 것이라는 보도가 나타났다. 흐루시초프 수상은 한때 자기 나라가 날아다니는 파리라도 맞출 수 있는 로켓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마치 AMM을 지니고 있는 듯 시사한 일이 있고 다른 군(軍) 간부도 AMM의 완성을 자랑한 일이 있다.

그리고 지난 10월의 혁명기념일 행사 때에도 마치 AMM인 듯 시사하면서 새로운 로켓으로 시위를 했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 비추어 본다면 소련에서 어느 정도로 고성능의 AMM을 개발하였는지 적이 의심이 가는 바다.

미국은 59년이래 AMM인 나이키 제우스 개발에 15억 달러를 썼고, 63년도 나이키 제우스 개발 예산도 당초 요구액 보다 약 2억 달러를 더 늘릴 정도로 그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하여 그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4월 4일엔 8000킬로미터 저쪽 케이프 캐나베탈에서 날아온 타이탄형 ICBM을 케제린 섬에서 발사한 나이키 제우스로 격추시키기까지 했다. 그러나 아직도 미국의 그 AMM은 진짜 핵탄두를 장비한 ICBM과 가짜 핵탄두를 단 ICBM의 구별을 못한 다. 따라서 적어도 미국의 경우 나이키 제우스를 실용화시키려면 앞으로 상당한 시일과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한다. 그로 미루어 소련서의 성공도 의심쩍은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 밖에 영국에서 혁명적인 신형 폭격기인 TSR형을 완성 했다는 것(10월 28일의 외신)이라든지 프랑스가 수폭보유국(水爆保有國)이 되기 위해 줄기찬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결과 태평양 상 어느 섬에서 수폭의 기폭장치(起爆裝置) 폭발 시험을 한 것(10월?) 등 63년도 병기 분야의 변천도 일일이 추구하자면 외부로 드러난 것만도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이다.

◇야주행전차(夜走行전차)

서독군의 신(新) 전차 레오파르트는 적외선을 이용하여 암야(暗夜) 주행이 가능하며 자동조준장치가 되어있다. 서독 국방성은 67년까지 1500대를 생산할 계획이며 계속해서 3000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1대의 생산비는 10만 마르크, 원화로 3300만원.

여행 마지막 흥이라 생각되니 가슴이 된다. 버스는 힘차게 달리더니 드디어 대관령 산정에 다다랐다. 지금까지 감잡하던 앞이 확 열리더니 눈앞에는 일목요연하게 동해를 배경으로 강릉의 전체가 전개된 것이다.

거의 말이란 없었던 차장이 갑자기 “이제 99개의 고개를 넘었고 이 관광버스는 대관령에 도착하였습니다.”고 하여 이 갑작스런 설명에 승객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나도 다시금 이것이 관광버스였구나 새삼스레 느꼈다.

초가집 처마 밑을 내려오는 산수에 손과 얼굴을 축이고 몸의 먼지를 털 후 다시금 승차를 하니 버스는 서서히 강릉을 향해 내려간다. 중년신사가 말하기를 원래 강릉의 대관령을 넘을 때는 두 번 운다 하는데 그 이유인 즉 예전에 유배를 당하던 선비들이 가도 가도 첩첩히 접치는 산에 지쳐 이제는 진정 산속에서 일생을 묻히는구나 하고 대관령을 넘을 때 한 번 울고 다시 유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강릉의 소박한 인심에 감동되어 떠나기가 역겨워 대관령을 넘을 때 울었다는 것이다. 그럴 성 싶다. 하기가 나도 이 국군의 날 기념순회강연에 강원지구를 맡아 보게 되어 이와 같이 예전과는 달리 문명의 이기인 Bus에도 지쳐서 몸이 녹초가 되었는데 글썽 돌아갈 때 과연 떠나기 싫어서 울게 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나 그것은 지나고 볼 일이다.

지금까지는 정치에만 눈이 팔려 별로 걱정거리가 없더니 이제는 진짜 명일부터 중고등학생을 앞에 놓고, 한 시간 정도의 국군의 날 기념강연을 하게 된다. 생각하니 이것이 은근히 근심된다. 강릉에 도착했다. 6:25당시 10전투비행단이 자리 잡고 있던 고장이고 보니 어쩐지 마음이 흐뭇해지는 듯 하다.

심한 공복을 느끼면서 비행장에 전화 연락을 취하기 위하여 앞에 있는 책방으로 발을 옮겼다.

[강릉지구(江陵地區)]

사관학교 졸업 후 처음으로 정(鄭)소령을 만나게 되어 반가웠다.

9시부터 강릉상고(江陵商高)에서 강연을 하게 됐다. 천여 명의 청중 앞에서 (중고교생이지만) 강연하는 것은 일생 처음이었다.

그러나 염려했던 것보다는 훨씬 침착히 진행하였다고 느껴졌다.

교장선생님께서도 이와 같이 국군장교가 특별히 와서 강연해 주는 것이 얼마나 학생들에게 유익한지 모르겠다. 말씀하시니 마음속 은근히 보람을 느꼈으며 여태까지의 근심과 피로도 모조리 잊어지는 기분이었다.

오후에 농업고등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니 벌써 시계는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었으며 첫날을 무사히 지내고 보니 자신이 생기는듯한 기분이다.

익일(翌日) 아침에도 1회, 고교와 중학교를 마치고 오후에는 여자고등학교에 갔다.

여학생들이고 특히 군에 관한 일이고 보니 별로 관심이 없으리라고 예상하였는데 이것은 나의 오산이었고 정숙하게 듣는 데는 오히려 놀랐다. 단상에서 내려다 볼 때 여학생들의 집합은 청초한 백합화원(白百合園)을 연상시켰으며 더구나 백색의 칼라가 산뜻했다.

1시간의 강연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내려 서려하였더니 와르르 박수소리에 ‘야! 내가 일생 처음으로 박수소리를 듣는구나’하고 등이 간질간질함을 느꼈다. 강연을 마치고 경포대에 나가 보았다. 경포대에 올라서 설명을 듣자니 추석에는 달구경을 셋을 한다는 것이다. 하나는 가득히 채인 술잔에, 또 하나는 중천에,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경포호수에 떠 있다는 것이다. 해안에 나가니 지금 관광 Hotel을 건축 중이고 인기척이 없는 해안은 갈매기만 나는 쓸쓸한 초가을의 풍경이었다. 지난 여름 대천(大川) 해수욕장에 갔을 때 아침에는 일어나 조개를 줍고 낮에는 물위에 등실등실 떠돌면서 젊음의 기쁨을 구가(謳歌)하였으며 저녁에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하늘에 반짝이는 별과 달에 무한한 감회를 느끼던 것이 었그제 같은데 같은 바다이면서도 단지 가을이라는 계절적 조건 하나로 이와 같은 심경 변화가 일어나니, 역시 인간은 환경의 노예임에 틀림이 없는 듯하다. 하늘에는 곧 추석을 맞이하기 위한 달이 거의 만월에 가까운 크기로 구름 한 점 없는 중천에 걸려 있고 멀리 보이는 바다가 마치 은가루를 뿌린 듯하다.

가을이 몸으로 마음으로 스며드는 것 같다. 바로 발밑에서는 귀뚜라미 소리가 가냘프게 들린다.

[묵호(墨湖) 및 삼척지구(三陟地區)]

강릉여고의 선생님과 더불어 다음 학교인 묵호고교로 가기 위하여 기차에 올랐다.

9시 정각 기차는 서서히 움직였다. 비행장을 왼쪽으로 보면서 노랗게 익어 머리 숙인 논을 끼고 점점이 있는 농촌의 낭만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선생님 말이 묘사야 오징어가 잘 잡혀 모든 농촌은 부엌으로 오징어 말리기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니 지나가는 농촌마다 오징어를 말리고 있지 않는 농촌이 없다. 들은 이야기지만 대학을 다니는 두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가 교대로 학교를 가는데 휴학하는 학생이 이것으로 학비를 번 후 다음 학기에 가곤해서 자급자족하여 다닌다는 것이다. 보통일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서울 학생들처럼

- 물론 예외는 있겠지마는 - 대학을 내내 부모의 호주머니만 믿고 다니는 학생과는 그 정신에 있어 천양지차다.

좀 시간이 지나니 좌측에 동해바다를 끼고 달리기 시작한다. 철로와 겨우 서너 발자국 간격을 두고 어디를 보아도 해수욕장의 조건이 아니 될 곳이 없다. 이와 같이 아름다운 해안을 가진 나라도 극히 드물 텐데 좀 우리나라가 부유하다면은 낭만에 가득 찬 저 어촌 등이 좋은 관광이 될 것을 하고 느껴지며 그러나 그 바로 아래 가난이 스며들고 있다고 생각하니 어쩐지 서글퍼진다.

묵호(墨湖) 교장선생님의 친절한 대기 하에 다시금 천여 명이 넘는 학생에게 국군의 발달과정, 보유력 및 우리와 학생들의 사명에 대하여 말할 때 쳐다보고 있는 학생들의 눈이 생생함에 무한한 기쁨을 느꼈다. “우리들 국군의 뒤를 이을 사람은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학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여러분들과 같은 씩씩한 학생을 볼 때마다 마음 든든히 느껴지는 것입니다”하고 외쳤을 때는 한층 더 열띤 얼굴에 눈이 빛나는 듯하였다. 오후 3시 해군의 호의로 Jeep차를 대어받고 곡절(曲折)이 심한 산길을 다시금 달려 1시간쯤 후, 북평(北坪)에 도착했다. 근처의 학교 4개교를 한 학교에 모아 놓았는데 이제는 수차의 강연 경험으로 거침없이 말이 나왔다. 다 끝을 맺고 나오려는데 한 학생이 나보고 얼마나 비행을 하였느냐고 묻기에 2000여 시간 하였고 공중생활이 10년이 넘는다고 대답했다. 학생들의 놀래는 표정이 귀엽다. 교장선생님은 대접할 것이 없다 하시면서 학생의 piano 독주라도 듣고 가라는 것이다. 선생님의 이 따뜻한 마음씨에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벽지까지 일부러 와주어 고맙다는 인사를 받으면서 오후 5시 삼척으로 향했다.

서울에서 가끔 듣기에는 삼척이란 신흥 공업도시라 하였는데 와보니 과연 이와 같은 산악지대에도 많은 공업시설이 되어 있는데 놀랐다. 내가 이와 같이 놀라는데 대하여 삼척 사람 들은 나의 공군 예복차림에 놀라는 것 같다. 상호간에 놀란 셈이다.

다음 날 아침 삼척고등전문학교에서 마친 후 삼척 남녀 고등학생 앞에서 다시금 강연을 되풀이한 후 남쪽 행선지인 진덕(進德) 방면으로 나갔다.

한 학급에 학생을 전부 모아놓고 1시간 유여(有餘)의 강연 후 일어서려 하였더니 “비행기 이야기~”하고 학생들이 떠들어 대어 한국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기종에 대하여 설명하니 셋별 같은 눈들이 나의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되었다. 내가 제트기를 조종한다 하니 전부 믿지 못하겠다는 눈치였다.

오후 5시 좀 지나 강릉행 기동차(機動車)에 올랐다. 차는 달려 며칠 간에 정이 들기 시작한 강릉시로 다시금 들어섰다. 오후 7시를 좀 지났다.

[주문진지구(注文津地域) 및 일요일]

토요일이다. 공군 Jeep를 빌려 타고 주문진으로 달렸다. 바다를 끼고 달리는 기분이란 언제라도 좋다.

수산(水産)고등학교에 들어섰다. 강연 전에 수산고교의 시설에 대하여 구경을 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양어장, 통조림 공장과 어선을 갖고 어로 작업을 하는 장면이었다. 해병대가 닦아 주었다는 운동장에 학생들을 모아 놓고 강연을 다시금 했다.

[양양지구(襄陽地區)]

오랫동안의 강릉 체제로 폐도 많이 끼치게 되어 미안하게 느끼면서 마지막 여행지인 양양으로 달렸다.

오늘 4개교만 마치면 합계 27교를 방문하는 셈이다. 오후 1시 후 예정대로 역시 1000여 명이나 되는 학생 앞에서 마지막 강연을 하노라니 이제는 완전히 내용을 암기하다시피 되어 제법 강약표현과 학생의 표정을 살필 정도가 되었고 반응상태도 눈으로 알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 강연이라는 점에서 그런지 아쉬움조차 동반한다. 가장 나 자신도 힘을 주고 말한 마지막 구절인 ‘사명감의 투철’에 대하여 언급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 우리는 사명감에 투철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냉정히 생각해 보십시오. 조물주는 왜 우리들을 문명화되고 부유한 미국이나 유럽에 태어나지 않게 하고 구태여 가난에 빠진 우리나라에 태어나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 태어나더라도 과거나 미래에 태어나지 않고 6·25동란과 같은 어려움을 겪은 바로 이 시간에 태어나게 했겠습니까? 숙명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공간과 시간은 우리에게 무거운 사명을 부과했다는 것을 자각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그것은 이 공간과 시간이 지니고 있는 모든 문제점을 우리 세대가 해결해서 더 이상 후손들에게 상속하지 말라는 使 명인 것입니다. 진정 이 사명은 너무나 벅찬 부담이고 용기와 인내로서 전 생애를 걸고 대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고행 바로 그것입니다.” 하고 외치니 학생들은 물 끼얹은 듯이 조용하다. 가지고 간 공군잡지를 나누어 주면서 시간의 여유도 있고 해서 남녀 고등학생 대표들과 더불어 좌담회를 가졌다. 귀여운 질문이 여학생들에게서 나왔다. 즉 무지개를 비행 중에 보았느냐? 비행시 거꾸로 날으면(배면비행시(背面飛行時))

기분은 어떠한가? 여자도 조종 가능한지? 등등
여기에 비하여 남학생들은 실제적이다. 공사 생활 4년간이 대략 어떤가? 비행은 몇 학년부터 하나냐? MIG의 기능은 대략 어떤가? Sabre와 MIG와 어느 쪽이 우수하나? 비행 고도는? 등등

나는 F-86이 날고 있는 고도에서의 기온이 영하 30°~40°라 하였더니 깜짝들 놀란다.

졸업반 학생들이 Album에 넣을 사진을 같이 찍자고 해서 같이 찍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하고 가로수 잎들이 우수수 떨어진다. 가을을 재촉하는 듯 이제 모든 강연은 끝났다. 십 수 회의 강연, 도합 27개교의 방문이었다. 남은 이들은 속초에서 옛 친구를 만나 설악산과 낙산사를 둘러보았다.

〈추석과 귀로〉

이틀을 멎진 관광으로 보내고 속초에 돌아오니 추석 기분이 한창이었다. 성묘를 한다. 차례를 지낸다고 웅성거린다. 떡을 가지고 와서 맛을 보라기에 두서너개 송편 맛을 보았다. 오후에 출발하기로 했다. 날씨가 잔뜩 찌푸려 있다. 추석 때문에 이미 관광Bus에 좌석이 매진되어 이왕 온 김에 고생이 되더라도 기차로 가보고 싶은 생각이 문득 들어 오후 4시 30분, 강릉으로 향하였다. 만원된 Bus 속에 겨우 얻어 앉은 뒷좌석의 혼잡이란 말할 수가 없다. 그래도 다행히 구름이 차차 벗겨져 얼굴을 보이기 시작한 추석달이 있으니 심심치는 않았다.

근래 미·소가 서로 달 로켓을 보내어 먼저 제 국기를 꽂겠다고 야단들이고 보면 이태백이 놀던 저 달도 그 낭만과 시가 거의 살아지는 듯 하지만 설혹 시대에 역행하더라도 어떻게 달의 낭만을 버릴 수 있겠느냐 말이다. 여자의 미(美)가 제 아무리 해부학이 발달하더라도 해부학적으로는 이해가 도저히 안가듯이 우주 Rocket에 의한 달의 설명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간직해 온 우리의 달에 대한 향수를 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앞에 서있던 한 고등학생이 꾸벅 절을 하더니 일전에 강연을 하지 않았느냐고 물기에 그렇다고 대답하니 무척 감명 깊게 들었노라고 말하여 속으로 무척 기뻐했다. 그래도 학생들이 모두 열심히 들어 주었구나 생각하니 무척 감사하게 느껴진다.

다음 해 공사에 응시해서 합격하면 찾아보겠다고 한다. 오후 8시가 훨씬 넘어서야 다시 강릉에 들어섰다. 처음에는 이역 같았던 고장이 이제는 마치 집으로 돌아오는 기분이다. 이와 같이 조용히 정든다는 것도 힘들 것 이니 이것이 아마 감자바위 고장이 풍기는 매력인가?

10월 3일 집을 떠난 지 꼭 10일이

〈58P로 계속〉

현대전에 있어서 과학의 중요성

- 특히 나토 문제를 중심으로 -



루돌프 슈라더
〈정석화(鄭奭和) 역(譯)〉

오늘날 과학은 군사기술상 전략정책상 가장 광범위하고 직접적인 군사적요소이며 이것은 앞으로 더 확대되어 보다 중대하게 될 것이다.

비록 특수연구행위와 그의 군사적 사용가능성 간에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 할지라도 과학의 모든 분야는 군사적 발전을 초래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거기에 관해서 일례를 든다면 원자핵물리학은 이차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하나의 순수한 학문적 관심사에 지나지 않았다. 비록 금세기 초부터 평장한 양의 에너지가 원자핵에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이 부문의 과학이 원자 및 열중성자무기의 설계와 제조에 이르면 군사적사고의 급진적인 전환을 일으킬 줄은 예측하지 못했다.

원자핵에너지가 중성자분열에 의하여 우라늄에서 발산됨이 명백해 졌을때 군사전문가들은 이것의 전략상 사용가능성 여부에 주의를 집중했다.

이 시기와 전쟁말 원자무기의 군사적 사용시기 간에는 5년 정도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 이것은 과학적 발견과 그의 군사목적에의 이용 간의 시간을 확대하여 본 것이다.

근자에 있어서도 과학적발견이 군사부문에 이용되기까지는 약 10년이 걸렸다.

오늘날 군사적기술이 과학연구의 즉후(卽後)를 추종하고 있고 과학의 모든 부문이 군사적으로 필요한 결과 국방연구당국은 과학의 전면발전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으며 자연히 그들의 관심은 장치 사용가능성이 명백한 응용과학 부문에 주로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순수과학의 발전에 상당한 관심을 두고 있다. 왜냐하면 이런 점에서는 순수과학은 거의 불가피하게 응용과학으로 발전되기 때문이다.

군사기술의 발전이 신속하기 때문에 과거의

전쟁에서 얻은 전투경험은 오늘날 역사적 의의 밖에 지니지 못하여 현대 또는 미래전투의 군사방침을 결정하는데는 적용될 수 없다.

오늘날 군사적 사고는 완전한 과학적 토대 위에 있어야 하며 수년간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여 일어날 변천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군사전략과 전술의 발전은 미래의 변천을 내다보는 과학발전의 예언과 일치해야 한다.

전술한 내용 중에서 두 가지 대단히 중대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즉 첫째로 만일 군사범위가 과학의 발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라면 군지휘관 및 군사계획자를 반드시 과학과 과학적 사물에 대한 명백한 이해를 가져야 한다. 또 그들은 순수 및 응용의 양면에서 과학을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과학은 지성적 사고에 의하여 발전되며 억압된 권위보다는 자유스러운 분위기속에서 성장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들 제사항의 실현은 군(軍)대학과 사관학교가 화학적 훈련과 교육에 관심을 두어서 미래의 군지휘관 및 계획자들에게 현재보다 더 광범위한 과학적 교육을 시킴으로써 가능하다.

둘째로 계획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군실무자와 과학자 및 기술자 간에 밀접하고도 계속적인 접촉이 있어야 한다.

오늘날 국방문제취급에 있어서 과학자 및 군 실무자의 합동체 설립에 대한 필요성은 절실하다.

다수의 국가들이 이러한 형식으로 일해 왔으나 확대일로에 있는 군사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들 기존 기구를 확장 내지 재편해야 한다는 데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또한 이와 같은 종류의 국제기구를 창설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절실했다. 이 점에서 볼 때 나토가 취한 행위는 좋은 발단이라 생각된다. 예를 들어서 하그에 있는 Shape 대공방어 기술센터와 라스페지아의 Sackant 대잠수함 연구센터와 같은 기존 조직체는 어느 정도 상기한 국제기구에 속하는 것이다.

이들 합동조직체에서 얻은 경험은 군인과학자 및 기술자 간의 업무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하고 그 수준을 국제적 위치에 까지 올려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작전연구(Operational Research)

작전연구는 군사문제의 완전한 과학적 분석과 그의 해결책에 대한 길을 열어준다. 이러한 방법은 이미 제1차대전 중에 발단되었으나 성공적으로 적용된 것은 이차대전 초기의 일이다.

이 문제의 선결 조건은 군사문제를 아는 군인과 과학적 방법에 익숙한 과학자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군인이 과학적 사고방식을 이해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학자도 군사 상황을 잘 알아야 한다.

작전연구는 기계체통의 두뇌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인간이 미리 결정된 목표를 위하여 정상적인 기반 위에서 혹종(或種)의 작전을 수행할 때 일어나는 문제를 취급하는 것이다.

군사방면이나 또는 정부 각부에 있어서도 이러한 행위를 많이 하게 되며 이들 작전은 광범위한 조사를 통하여 인적자원과 기술적 능력을 잘 이용할 수 있고 군 지휘구조, 통신, 전략 및 전술무기, 무장체통의 선택, 군대의 편성, 군수 및 정부구조 등의 제 문제는 작전연구에 의한 과학적 분석으로써 성공적인 해결을 할 수 있다.

이미 몇몇 나토 가맹국들의 군 지휘관들은 국방에 있어서 작전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필요한 기관 또는 기구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이 작전연구가 발달되지 않았거나 상황을 구제하기에

<필자소개>

지금부터 47년 전 독일의 하노버에서 출생. 괴팅겐에 있는 George August 대학에서 물리학, 수학 및 응용역학을 공부하고 막스 플랑크회 산하의 몇몇 기관에서 물리학 및 기타 많은 과목을 연구했다. 전전(戰前) 및 전쟁 중 그는 해군항공대의 조종사로 활약했으며 포로가 되어 영국 및 캐나다에 간 일이 있다.

지금 그는 연방 해군의 예비역 중령이며 독일연방 국방장관의 뒤를 이어 2대 과학이사회 보좌관의 직에 있으며 그 전에 핵물리계장을 역임했다.

그는 독일의 공업 부문(部面)에 일시 종사하여 방사능물리학 및 방사능의학에 관한 일을 하였으며 태국의 방콕에서 수년간 지낸 일도 있다.

슈타더 박사는 1968년 프랑크푸르트에서 출판된 핵폭발의 영향의 저자이다.

그는 이 방면에 관한 글을 많이 발표했으며 인체물리학회 회원이다.

근래 「과학과 정치」라는 책을 발표했다.

충분치 못한 국가들에 있어서는 상기와 같은 노력이 끊임없이 계속된다.

더욱이 나토의 주요 가맹군 지휘관은 국가문제보다 이들 군사문제를 취급하기 위해서 작전연구를 더 많이 해야 할 것이다.

상술한 동(同) 연구기관은 이러한 필요성에 응할 수 있는 좋은 발단이 된다. 그러나 복잡한 나토 방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국제적인 기관이 절실히 요청된다.

잠수함색출(Submarine Detection)

전면적인 대서양동맹은 전쟁이 일어날 경우 북미와 유럽 대륙 간의 항해를 교란내지 분쇄할 소련 잠수함대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날 경우 나토 지역 내의 주요부분의 안전은 양 대륙을 연결하는 절대적인 해중(海中) 통신의 유지에 의거하고 있으며 이 증가하는 위험성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수십 년 간에 발달된 각종 교묘한 기구에도 불구하고 기존 잠수함은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하여 그의 완전한 전투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즉 행동범위와 수중속도가 대단히 제한되어있다.

핵폭발의 위력은 이러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변경시켰고 수중에서의 성능도 훨씬 발달되었다. 환언하면 기존 잠수함이 일정한 시간 잠수할 수 있는 배(잠수하는 보트)라면 핵잠수함은 거의 무제한한 수중작전을 주로 할 수 있는 기선이라고 할 수 있다. 대서양의 보급선을 방위하기 위해서는 신형 핵잠수함의 연구를 불가결하게 하고 이들 신형 잠수함은 가까운 장래에 곧 사용될 것이다.

여기서 중대하게 문제되는 것은 수색 구분 및 잠수선의 가능한 식별이다. 금일까지 음향 탐지기 - 음향향로 범위 또는 수중 음향파의 적용 - 가 수중 수색의 유일한 실제적 방법이었다. 다른 방법으로서로는 별로 성공하지 못했으나 음향탐지기 역시 범위와 용도가 제한되어서 수중의 기타 음향, 얕은 바다 물의 저부, 바다마다 다른 물리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성질 등의 요소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음향의 매개체인 바다의 성질 등을 조사하고 여러 가지 조건하의 수중음파 전달현상을 연구하는 과학적 노력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러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수색 범위와 구분 및 확인능력이 개선되리라 믿는다.

교호(交互) 수색법에 대한 연구도 불가결 하다. 수색능력의 제한이 적 잠수함 공격에 대한 장애가 됨은 물론이다.

잠수된 잠수함은 인접지 및 특히 해상에서 일어난 일을 발견하는데 있어 대단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눈을 감는 것과 마찬가지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수중에 있는 잠수함이 수상의 배를 탐색하는 것보다 수상의 배가 수중의 잠수함을 탐색하는 것이 더 어렵다.

여기에 우리들의 항해에 대한 위험성이 있고 이 위험성은 장기간 동안 해상의 제약이 될 것이다.

공중연구(Space Research)

군사상 중대한 또 하나의 과학적 분야는 물론 공중에 대한 것이다.

로켓과 위성에 대한 기술의 진보는 유성과 기타 천체의 구분 및 지구의 외기권의 상태에 대한 깊은 연구를 가능케 했다. 이 가능성은 인간행동의 신 분야를 개척했고 군사당국자들과 그 발전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미래의 전쟁에 공중이 어느 정도 사용될 것인가?

공중전에 관한 미래의 전망은 어떤가?

현재의 상황은 50년 전 인간이 처음으로 대기를 탐색하고 항공을 새로운 과학으로 발족시킨 때와 좋은 비교가 된다. 일차대전 전만 하더라도 많은 우수한 군 지휘관들이 항공은 특별한 군사상의 중요성을 가질 수 없다고 확신했다. 사실 그 당시는 공중전이나 지상 시설물의 폭격이 아닌 정찰용 항공기에 대한 것에 까지도 강력한 반대가 있었다.

이 논쟁에 참가한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 있지만 지금은 항공이 전쟁에 거의 결정적인 요소가 됨을 확신하고 있다.

그때부터 군항공의 발달은 과학자들의 예언과 그대로 일치되어 왔다.

오늘날의 과학자들이 공중이 미래의 전장으로 사용될 것인지의 진부(眞否)에 대하여 예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가?

과학자들이 이 질문(이것은 우리 국가안전상 불가결한 문제이다)에 대답할 수 없다면 군사계획자들은 확실한 근거를 갖고 미래의 방어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없다. 공중과학 및 기술의 연구는 대단히 값비싼 것임은 물론이다. 현재 단 11개국만이 이 부면(部面)의 광범위한 연구와 기획에 필요한 비용 및 인력을 감당할 수 있다.

◇월맹을 우대

월남에는 현재 약 15,000 명의 프랑스 인이 살고 있다. 이에 비해서 월맹에는 불과 26명 뿐이다. 이것은 그만큼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증거라고 르몽드 지(紙)는 지상(紙上)에서 평했다.

◇공산주의는 제국주의

중공이 소련을 공격하는 논조 가운데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공산주의 자끼리의 주고받는 말에 옳은 말이란 원래가 있을 리 없지만 흥미가 있는 반박이기에 여기에 소개해 본다.

'소련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혁명기 망자(亡者)'다. 소련 지도자들은 혁명기의 역할을 과장하고 혁명기를 맹신하여 마침내는 혁명기 승배의 신자로 타락하였다. 푸카레스트 회의에서 흐루시초프는 "혁명기를 가지지 않은 군대는 군대가 못되며 인간의 산(山)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혁명기는 전 세계 인류를 몰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호언했다. 이것은 분명히 망발이며 공산주의 이념을 모독하는 방언이다. 우리가 투쟁하는 목적은 전 세계의 인민을 위하는 것이지 혁명기를 가지고 그들을 도살하는 공산주의는 제국주의와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이 중공의 반박을 주의 깊게 생각해 볼 때 중공은 결국 공산주의를 제국주의로 인정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다른 나라 역시 항공의 지식과 그 적용의 확장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나토 계획자들이 공중(空中) 과학과 기술을 체득하여 그것을 전략에 사용한다는 것은 불가결한 일이다.

인적요소(Human Factors)

한 국가나 또는 일단의 국가들의 승패는 육해공군 장병의 정신 상태와 효율에 달렸으며 또 전 국민의 독립보존과 자유제도를 침략자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심적 노력에 달렸다.

군사 및 정치지도자들은 이 절실한 문제를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항상 그들은 각종 인적문제에 주의를 기울여 왔다.

과학은 이 문제 해결에 어떤 도움이 되지 않는가?

인적요소의 연구 특히 전시 상황의 복잡한 무장계통에 의하여 야기되는 유기적조건과 그 속에서 일어나는 제 인적문제의 지적 해결법이 있는가?

과학이 과거에 발달을 이룬 공학적 기술과 더불어 인적기술을 창조하고 그 리하여 자연을 정복하고 그의 광범위한 자원을 개발할 수 있게끔 인간의 행동을 분석 검토할 수 있게 될는지?

사회과학 특히 심리학·사회학·생리학 및 의학은 이들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고 해답을 구하고자 하고 있다.

방어계통에 있어 인간이 가장 약하다는 설이 점점 더 명백히 인정되어 간다.

그 때문에 인적요소의 연구는 군사력의 신장과 전 인류의 발전에 가장 중대한 것이다.

환언(換言)하면 우리와 우리의 제도의 생존은 우리 자신을 분석하고 이해할 능력과 이 지식을 민간 및 군사 양면(兩面) 생활의 실제적인 목적을 위하여 적용할 능력의 끊임없는 증가도에 달려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물리학, 화학, 생물학 등을 과학이라면 사회과학이 과학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다.

인적문제의 연구에 있어서 아직도 많은 연구대상이 있으니 첫째 수많은 변화와 그들 간에 나타나는 복잡성, 둘째 인적 적응성, 사기 또는 결단력과 같은 사량의 평가에 대한 적절한 척도를 정의하기가 곤란한 점이 남아있다.

자연의 분석에 과학적 방법을 우리는 적용해 왔다. 그러나 인적요소의 조사에 과학을 사용한다는 데 대해서는 아직도 반대가 없지는 않다. 이와 같은 곤란성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십 년 간에 사회학 및 심리학이 많이 발전되었고 또 특수방위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집중해 왔다. 군사심리학자들은 현금(現今) 인간능력의 식별과 평가, 훈련 및 군사교육, 무장계통에 있어서의 집단 생산성 및 '사람 - 기계'문제와 같은 사실들을 연구 중에 있으며 이것을 전 나토가맹국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한다. 이 부문(鄣面)의 국제적 지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책임을 나토는 인식해야 한다.

과학과 군사문제의 상호관계에 대한 문헌에 따라서 군사문제에의 지적 접근을 가능하게 한 현대과학과 나토가 당면한 몇 가지 특수문제를 논했다. 명백히 과학자들은 서방 방어에 대한 요청을 해결하고 세계의 평화와 자유를 유지할 수 있는 거대한 공헌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과학이 이 목적을 위하여 잘 이용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는 정치 및 군사 지도자에 달려있다.

——파리에서——

〈52P에서〉

지났다. 기차는 동해안을 지나 이제는 강원도에서도 가장 험준한 태백산맥을 지나고 있다.

구름에 가려져 있던 추석달이 다시금 얼굴을 보인다. 밝은 달빛이 차창을 통해 스며들기 시작한다. 가능하면 차내의 전등불을 켜면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때 누구라도 좋으니 말동무라도 있었으면……. 전등이 좋다하고 편리하다 하지마는 저 부드러운 달빛에 비할 수 있겠는가? 문명의 이기는 가끔 이와 같이 자연의 부드러움을 파괴하기 일쑤다. 설혹 말동무도 없는 쓸쓸한 귀경의 길이지만 그래도 차를 쫓아오는 달만이 유일한 위안이다. 오후 8시, 11시간에 걸친 장거리 여행이 끝날 무렵, 기차도 고달픈 듯 긴 기적과 더불어 청량리역으로 돌아섰다. 고층건물과 네온사인 그리고 전광의 바다, 난무(亂舞), 이와 같은 혼잡과 소란의 대도시 서울을 안식처로 하여 이 기차는 미끄러지듯 들어가고 있다.

민주주의 원리

현대민주주의의 제 문제 ⑦

이극찬(李克燦) <연대 교수>

후진국과 민주주의

오랜 시일에 걸쳐 이민족의 잔악한 식민지 통치 하에서 신음해오던 아시아 후진지역의 여러 민족들도 마침내 제2차 세계대전과 더불어 꼬리를 이어 정치적 독립을 얻게 되었다. 이를테면 1946년에는 필리핀이 1947년에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1948년에는 버마와 대한민국이, 그리고 1949년에는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에다 제각기 정식독립국가임을 선포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아시아의 여러 민족들은 - 제국주의 국가 목적에 대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던 지위를 벗어나 - 이제는 일찍이 한스 코온(Hans Kohn)이 지적한 바와 같이 무 역사적인 국민이 역사적 생명을 가질 정도로 성장하여 세계사의 형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즉 이 단계에 도달한 아시아는 서구식민주주의의 객체에 불과했던 지위를 벗어나 이미 서양에의 항거에 고민하는 아시아가 아니라 세계사의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족지역으로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와 같이 아시아를 격변시킨 요인은 과연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그것은 기존의 서구적 식민지 제도를 분쇄시킨 아시아 민족주의의 혁명적인 힘이라고 간주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전후의 아시아의 정치정세를 격변시킨 민족주의는 비단 현 단계에 있어서의 아시아의 정세를 좌우하는 동적인 힘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아시아의 정치적인 앞날을 결정할 수 있는 근본적인 동인(動因)이 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근세 초기에 유럽에서 발생한 서구의 내셔널리즘이 중세 카톨릭 교회의 초민족적·초국가적인 보편주의에 대한 반향으로서 일어난 것처럼 후진지역인 아시아의 내셔널리즘도 서구 식민주의에 대한 반향으로서 발생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반향운동은 양(洋)의 동서를 막론하고 한결같이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인 측면에서 단행되었던 것이니 일찍이 맥Mahon 불 교수가

지적인 아시아 내셔널리즘의 세 가지 기본적인 특징, 즉

(1) 정치적 반향 - (외국인의 정치적 통치·식민주의·제국주의에 대항하는 반향인 바 이는 자치와 완전한 민족독립의 요구이다)

(2) 사회적 및 경제적 반향 - (자기네들의 생활의 빈곤과 비참함에 대하여 예리한 감각을 갖게 된 민중에 의한 사회적 및 경제적인 반향인 바, 이는 부의 극심한 불평등에 대한 원한의 발로이다)

(3) 인종적 반향 - (이는 서양에 대한 동양의 반향이며 동양의 운명은 서양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동양인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하며 동양의 제 국민은 서양의 목적에 대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그 자신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결의의 표시이다)

대체로 이와 같은 사정을 설명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원래 민족주의는 그 발생 초기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외국의 지배적인 권위와 질서에 대한 반향을 의미했지만 그것은 동시에 또 다른 반면(反面)에 있어서는 새로운 독자적인 권위와 질서를 창조코자 하는 노력을 의미하고 있다. 왜냐하면 민족주의란 요컨대 민족에 기초를 둔 국가의 독립을 기원하는 한편 이 민족국가를 정치적·경제적 및 문화적으로 완성시키고자 하는 이상·이데올로기·운동의 전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일반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아시아의 민족주의의 성격과 과제는 서구의 그것들과는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즉 서구의 민족주의가 그 발전의 제1단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정치적·경제적·문화적으로 ‘집권적(集權的) 통일’을 지향했으며 그 발전의 제2단계에 있어서는 민주적 자유를 쟁취하기 위하여 싸운 것처럼 아시아의 민족주의도 식민지배로부터 벗어나 독립을 쟁취함과 아울러 정치적·경제적 및 문화적 분야에서 각각통일과 자유를 실현시켜야 할 과제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독립·통일·자유 획득이라는 삼중의 과제는 적어도 근대국가로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기본적인 과제라고 볼 수가 있다.

이와 같이 벽찬 삼중의 과제를 지니고 출발한 아시아의 제 국가는 독립과 더불어 우선 민주적 자유의 제도로서 - 제도를 이식할 경우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때와 장소와 조건이라는 제 요소를 돌아다볼 겨를도 없이 - 서구의 의회제 민주주의를 큰 희망 속에 무조건 받아들였던 것이다. 즉 후진국가의 정치지도자들은 신생 독립국가를 수립할 때에는 이상하게도 그들이 그 기반으로부터 벗어나려던 제국주의적 종주국이 향유하는 정치제도를 채용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 그 이유는 과연 어디 있는 것일까.

첫째로는 자유진영에 속하는 아시아 후진국의 정치지도자들의 대부분이 서구화된 엘리트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다. 즉 그들의 대부분은 서구적인 교육을 받았음으로 자연히 그들의 정치사상도 경험도 주로 서구적 전형(典型)에 의해서 형성되기 쉬웠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또 하나의 이유로서는 민족주의의 본질로부터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가 있다. 원래 민족주의란 요컨대 예측상태에 있는 민족이 자주독립하자는 생각이다. 하나의 민족이 독립하자는 것은 자기 민족의 운명을 곧 자기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결정짓자는 민족의 자치(自決)을 의미한다. 그런데 민족운동이 이와 같이 민족의 자치를 의미하는 한 그것은 국민의 자치를 원칙으로 하는 민주주의와는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다. 따라서 민족주의는 그들의 것이라고 명시하는 식민지 정치로부터 바로 우리들의 것인, 즉 전체 인민의 것인 독립정치로 탈피함으로써 민족의 성원 모두가 정치에 참여하기를 요구하게 된다.

대저 식민지 정치가 그 원주민들로부터 규탄의 대상이 된 것은 그것이 원주민의 여론은 조금도 반영시켜주지 못하는, 그리고 인간의 기본적인 제 권리를 함부로 무시하기가 일쑤인 독재정치의 성격을 지녔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강압적인 식민지 통치를 배척하고 이것과 대결하려는 사상에는 적어도 그와 같은 요소를 부인하는 것 - 즉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불가양(不可讓)의 기본적 제 권리를 가졌다는 것, 정부는 마땅히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봉사하는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 모든 권한의 기초는 피치자(被治者)의 동의에 두어야 하며 또한 사람의 지배가 아니라 법의 지배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 - 과 같은 민주적인 원칙이 일관되어야 함은 명백한 일이었다. 이리하여 아시아·민족주의의 지도자들은 민주주의의 실현이야말로 민족주의의 관성의 필수조건으로 간주했으며, 실제로 독립이 이루어지자마자 곧 아시아의 신생국가들은 - 앞서도 말한 것처럼 -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서구의 의회제 민주주의를 독립의 환희 속에서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그들이 바라던 자유도 해방도 민주주의도 가져다주지 못했고 도리어 정쟁과 정변만을 거듭하게 함으로써 정계의 혼미는 극도에 달했으며 마침내는 일인 독재의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러면 그 원인은 과연 어디 있는 것일까.

첫째는 사회의 미성숙으로 말미암아 사회생활과 그 구조에 아직도 봉건적 및 분열적인 요소를 다분히 내포하고 있는 점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서구적 의회제 민주주의는 회합과

로마의 찬란한 고전문명의 기반 위에서 봉건제도의 타도 - 문예부흥과 종교 개혁 -, - 프랑스 혁명과 아메리카 독립혁명 -, - 농민혁명과 산업혁명 -, - 선거권의 확대와 교육의 보급 -, - 여권(女權)운동과 복지사회를 위한 투쟁…… 등의 일련의 사회과정을 거쳐 어느 정도 동질적인 사회를 이룩한 곳에서 비로소 전형적으로 발달을 기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련의 근대화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미성숙한, 따라서 이질적·분열적인 요소를 다분히 내포하고 있는 아시아의 전통적 사회경제구조·정치조직·종교문화의식 속에서는 아름답게 개화할 수가 없었다. 이와 같이 유럽사회에서는 고대사회의 붕괴 속에서 봉건사회가 태어나고 또한 이 봉건사회를 붕괴시키면서 근대사회가 생겨나 역사는 말하자면 계기적(繼起的)으로 발전해왔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후진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발전에 의하여 낡은 사회가 새 사회에 의해서 부정(否定)·극복되는 형태를 취하지 못하고 낡은 사회체제가 그대로 존속되는데다 새로 형성된 사회체제가 유착(癒着)되곤 했으니 역사는 이를테면 중첩적(重疊的)으로 전개되어온 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후진국은 비유를 들어 말한다면 갓 쓰고 양복입고 긴 담뱃대에다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꼴불견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는데 이는 비단 물질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또한 정신적인 면에서 후진국의 근대화를 저해하고 있다.

둘째는 빈곤과 문맹이다.

일찍이 라스키 교수가 언명(言明)한 것처럼 민주주의는 다른 어떠한 조건이 아무리 갖추어진다고 할지라도 생산력의 파괴와 경제의 수축을 조건으로 하고서는 육성될 수가 없는 것이다. 후진국의 민주주의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제이차 세계대전에 있어서의 공동목표로서 내 건 ‘결핍으로부터의 자유’와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결핍과 그것으로부터 생기는 공포 속에서 실현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가장 곤란한 조건을 짊어지고 있다. 그런데 정치적독립과 더불어 필연적으로 생활수준의 향상을 기대했던 후진국에서는 좀처럼 경제발전이 이룩되지 않았으니 이것이 민주주의 육성에 일대 장애물이 되고 있다.

또한 보통선거가 보통교육에 선행된 결과는 즉 유권자의 다수가 문맹인 속에서 실시된 보통선거의 결과는 부패·협박·선동·정실…… 등이 자행되어 선거 본래의 목적과 기능이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선거가 올바르게 육성되어질 리가 없다. 왜냐하면 선거야 말로 민주정치의 알파요 오메가이기 때문이다.

셋째는 중산계급의 결여이다.

중산계급이란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으니 그 하나는 시(市) 계급내지 부르주아 계급과 동일한 뜻으로 생각되는 것인데 이는 특권적인 귀족과 예농(隸農)과의 중간에 있는 계급

이라는 본래의 의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중(中) 정도의 재산을 가진 계급’이란 뜻으로 이 경우에는 자본가와 노동자와의 중간에 위치하는 계급을 말한다. 그러나 후진지역에서는 사회발달의 미성숙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의미의 중산계급도 육성되지를 못했다. 오늘날 정치사회학에서는 사회계층구조가 많은 중산계급을 주로 하는 다이아몬드 형(型)을 이루는 사회에서는 건전한 민주정치가 발전될 수 있으나 그것이 소수의 부자와 다수의 빈자로 되는 피라미드 형(型)을 이루는 사회에서는 전제정치의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이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는 대중정당의 미발달이다.

대중민주주의시대에 있어서의 정치란 요컨대 조직과 조직의 대결이라고 볼 수가 있다. 한 알의 찹쌀 알은 그것이 한 알씩 한 알씩 흩어져 있어서는 큰 역할을 못하는 법이다. 그 흩어진 찹쌀 알을 한데로 주워 모아 이를 솥에 다 익힌 후 절구질을 하여 찹쌀떡을 만들게 될 때 비로소 그것은 질적 변화를 가져와 맛있는 것으로 될 수가 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대중민주주의 하에 있어서도 잡다한 견해를 가지고 사망에 흩어져 있는 일반 대중의 여론을 각각 그 경향에 따라 분류 조직하여 이를 강력히 정치에 반영시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민주정치 하에서 바로 이와 같은 조직의 대표적인 것은 정당이다. 따라서 대중정당의 건전한 발달 없이 건전한 민주정치를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런데 민주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힘차게 달려가려는 후진제 국가는 그 사회의 미성숙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물질적 및 정신적인 조건의 결여로 말미암아 광범한 대중의 기반 위에 조직을 가진 대중정당을 육성시키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책보다는 인물을 중심으로 모인 수많은 군소정당간의 추잡한 파쟁의 계속은 건국 초의 중대한 민족적 과제를 수행해 나갈 수 없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한 필연적으로 후진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지도세력의 육성을 저해하게 했다. 아시아 후진국의 민주주의가 진통을 거듭하게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섯째는 공산주의의 압력의 증대이다.

민주주의는 굳은 인내심을 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시행착오의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산세력을 목전에 둔 지역에서는 그런 완만한 방법에 대하여 회의의 감정을 느끼게 하기가 쉽다. 끝으로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과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한 대규모적이며 급속적인 경제를 지향하는 나머지 그 개발에의 가장 직접적이며 강력한 노선으로서 민주주의 체제보다는

공산주의 비판

인터내셔널리즘(Internationalism)이라는 것은?



김창순(金昌順) <평론가>

1.

세계를 하나의 붉은 가정(家庭)으로 만드는 것이 공산당의 혁명사상의 최고 목표다.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그네들은 프롤레타리아트의 국제주의에 의거하고 있다. 보통 인터내셔널리즘으로 불리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면 인터내셔널리즘이란 무엇인가?

1919년 3월 2일 모스크바에서 결성된 코민테른(제3국제공산당)은 1928년의 제6차 대회에서 국제공산당의 기본강령(基本綱領)을 채택하였다. 이 강령의 제3장 ‘국제공산당의 궁극 목표 - 세계공산주의’에는 ‘하나의 붉은 세계’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산주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명시하였다. 그 가운데서도 민족문제, 식민지문제에 관한 규정은 오늘의 세계구조(世界構造)에 있어서 공산주의의 활동과 작용(作用)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게끔 한다.

첫째로 그 강령은 말하기를…… ‘국제공산당이 기도(企圖)하는 궁극목표는 공산주의적 세계기구를 자본주의적 세계체제에 대체(代替) 하는 데 있다. …… 세계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자본주의의 세계체제로부터 사회주의의 세계체제로 이행(移行)하기 위한 가장 필요하고 결정적인 전제조건(前提條件)인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이 독재는 각국, 또는 수개 국에 있어서 사회주의의 승리의 결과만을 가지고서는 실현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승리를 위하여 새로 탄생한 프롤레타리아 공화국이 기존(既存) 프롤레타리아 공화국과 결합하여 제국주의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식민지를 끌어넣으면서, 이 연방(聯邦)의 망(網)이 점점 확대하여, 최후에는 이 연방이 세계 프롤레타리아의 영도 하에 인류의 결합을 실현하는 세계사회주의 공화국 동맹으로 결성되지 않으면 안 된다.’

둘째로 이 강령은 말하기를…… ‘그와 같은 프롤레타리아에 의한 권력의 획득은 의회(議會)에 다수의 의석(議席)을 점유(占有)하여 기성(既成)의 부르주아 국가기관을 평화적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전체주의적 체제를 선택할 위험성이 없지 아니하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외국으로부터의 자본원조라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가불 국내에서 자본을 축적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워낙 가난한 살림에 저축할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따라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국내의 자본축적을 강행하려고 하면 그것은 일반소비 수준의 저하와 소득분배의 불균등조차도 불가피적인 해악으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종의 강제저축의 실행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치적인 독립과 더불어 필연적으로 생활수준의 향상을 기대했던 일반대중에게 이것을 강요하는 일은 - 만일 온 국민들이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즐거이 따라갈 수 있는 뚜렷한 국가 이념과 훌륭한 지도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 커다란 불만을 자아내게 하기가 쉽다. 그리하여 그 불만도가 심해지면 개중에는 구 정치체제에 대한 향수를 느끼는 자도 생기게 될 지도 모른다. 이런 모양으로 후진국에서는 생활불안은 곧 정치 불안을 격화시켜 그렇게 강하지 못한 신생정부를 위협하게 한다. 여기에 후진국가로서의 커다란 고민이 있다.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서구적 의회제 민주주의를 도입한 아시아의 신생독립국가로서는 ‘아이오와 주에서 자란 혼합종(混合種) 옥수수’는 멕시코에는 맞지 않으며 그 이식에는 멕시코의 조건에 맞는 품종부터 먼저 선택해야 한대라고 언명(言明)한 유진 스테이리(Eugene Staley)의 말을 심중히 검토해 보아야 할 단계에 이른 것이다.

그러면 서구적 민주주의는 아시아 후진국의 정치풍토에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정치이념일까. 민주주의란 원래가 오직 발달된 어떤 지역과 국민에게만 적합한 것일 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뒤떨어진 여러 나라에 있어서도 인내와 노력, 시행과 착오의 오래고 고된 과정을 거침으로써 마침내는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는 것일까.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민주주의는 인간의 기본적인 제권리와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인류가 오랜 시일에 걸쳐서 쌓아 올린 귀중한 유산이다. 따라서 그 방법이 완만하다고 하여 이를 버린다면 인간은 문명 상태로 부터 야만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하여간 이 문제는 앞으로 각계각층으로부터 진지한 공동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따뜻한 한마디에
전우애는 싹튼다.

폭력의 단호한 행사에 의해서만 파쇄(破碎)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본다면, 공산당의 세계주의, 국제주의라는 것이, 인종 간(人種間)의 공존, 민족 간의 공존, 국가 간의 공존이 아니라, 계급전쟁에 의한 공산주의적 세계기구의 실현에 있음을, 조금도 감추지 않고 있다. 여기서 간과(看過)해서는 안 될 사실은 그 수단에 있어서 기성질서(既成秩序)의 평화적 정복(征服)이 아니라, 폭력의 단호한 행사에 있는 점이다.

2.

공산당의 학설 및 이론 선전기관들은 코스모 폴리타니즘(cosmo-politanism)에 대하여 배격의 일관작업(一貫作業)을 하여왔다. 코스모 폴리타니즘에 있어서는, 세계인(世界人)으로서 국가, 민족을 초월하여 생각하고, 행동하는 초계급적 세계주의를 말하는 것인데, 공산당의 인터내셔널리즘(Internationalism)에 있어서는 계급독재의 국제주의를 완강히 내세우고 있다. 즉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라는 것이다. 이 주의는 모든 국경을 초월하여 하나의 통일된 인류사회를 실현한다는 이상을 배격하고 있다. 하나의 계급이 하나의 계급을 제압하고, 말살하는 세계적 권력기구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것의 방법으로서 기성질서(既成秩序)의 평화적 정복이 아니라, 폭력의 단호한 행사라는 것이다.

3.

역사의 경험이 말하여 주는 바와 같이, 집권(執權)하기 전의 공산당의 인터내셔널리즘은, 국경(國境)없는 노동 계급의 단결을 눈동자처럼 아끼라고 했지만, 또 집권 후의 인터내셔널리즘도 그 외피(外皮)에 있어서는 집권의 그것과 다름이 없지만, 일단 집권하여 국가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거기서는 새로운 국가주의(國家主義)가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오늘날의 공산제국(共產諸國)의 현실적인 지배사상(支配思想)은 소위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가 아니라, 일국 사회주의건설(一國社會主義建設)의 맹렬한 국가주의인 것이다.

1961년 제22차 소련공산당대회에서 채택된 신강령(新綱領)과 20개년 계획만 하더라도 그것은 소련의 국가주의에 모든 것을 봉사시키고, 또 복종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우선 소련만의 일국(一國)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청사진(靑寫眞)이다 뿐이지, 중공과 기타 공산국가 까지도 포함시킨 공산세계의 건설계획은 아니었다. 그렇다

면 이것은 형식만의 형제지간 관계이다 뿐이지, 진정한 국제주의의 정신은 아니다. 여기서 중공의 반발이 일어난다는 것은 차라리 있음직한 일도 보아야 할 것이다.

이리하여 소·중공 이념투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핵심이 내셔널리즘(Nationalism)의 대결관계로 표면화된 것 같다. 또 기왕(既往)의 코민테른의 전역정(全歷程)을 통하여 볼 때의 인터내셔널리즘이란 것은 기실 소련의 국가이기주의(國家利己主義)에 복종시키고, 봉사시킨 이론적 도구에 지나지 않다. 왜냐면 조직체계상으로는 소련 공산당도 코민테른의 일국 지부였지만, 지휘 계통상으로는 소련공산당을 코민테른의 상부에 가져다놓고, 소련공산당이 자국의 국가이기(國家利己)를 위하여 모든 공산당을 지배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있어서의 모든 공산당은 소위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충실하였다고 보다는 소련의 국경 밖에서 소련의 국가이기(國家利己)를 옹호하는 임무에 더 충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랬던 것이 이차대전 후에 몇 개의 공산정권이 출현하면서부터는 그들 스스로의 국가주의 외에 매어달릴 수밖에 없는 새로운 형편이 조성된 것이다. 과거에는 집권당이 아니었던 형편과 소련 공산당의 행정적 금전적 지배하에 있었던 조건하에서 주로 소련의 국가이익에 복무하는 일을 하여왔다면, 지금은 집권당으로서 자국의 이익에 복종해야 한다는 형편이 생긴 것이다. 물론 공산국가 상호간의 협조관계라든가, 소위 경제적 국제분업이라는 것을 통하여 새 시대의 국제주의라는 것을 창도하는 것을 잊지는 않았지만, 국가이익의 추구라는 현실 앞에서는 그러한 국제주의가 취약한 것임을 드러내고 말았다. 중공의 국가주의는 코민테른시대의 예측성을 벗어나야만 하는 것이었고, 따라서 소련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일대일의 평등관계를 주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보다는 국가주의가 더 현실적으로 우선(優先)하게 되었다. 코민테른의 일원화 시대로부터 오늘의 다원화 시대를 낳게 되고, 인터내셔널리즘 시대로부터 내셔널리즘 시대로 바뀌고 마는 것이다.

이것은 근 반세기의 소련공산당의 정책이 범(汎) 슬라브주의와 대(大) 러시아상을 절연(絶緣)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과 대조(對照)하여 볼 때 아무것도 기이(奇異)한 일일 수가 없다. 스탈린의 원주민 강제이주정책(原住民強制移住政策)과, 모택동의 티베트 정복은 본질상 다름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기저(基底)는 대(大) 러시아인, 대한인(大漢人) 사상의 내셔널리즘일 것이다.

이상에서 보노바와 같이, 인터내셔널리즘의 변질과정(變質過程)은 내셔널리즘의 팽창과정으로 보인다. 이것이 새로운 제국주의(帝國主義)를 낳지 않고 순수한 국제

주의 - 인종 간의 진정한 공존·민족 간의 그것, 국가 간의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

4.

앞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코민테른(제3국제공산당)의 기본강령은 공산주의의 세계구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세계 사회주의 공화국동맹을 결성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제국주의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식민지를 여기에 끌어넣어야 한다고 하였다. 바로 이 과제(課題)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그 강령 제3장 제3절 제6항은 공산주의의 민족문제, 식민지문제를 규정하여 놓았는데, 오늘날 공산주의의 팽창과 침투는 바로 이 규정을 기초(基調)로 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1, 인종의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민족의 완전한 자결권(自決權), 즉 국가적 분리의 권리까지 인정한다.

2, 반제투쟁(反帝鬭爭)을 위하여, 사회주의경제를 건설하기 위하여, 자본주의로부터 해방된 모든 민족의 군사적 민족적 세력의 자발적 결합과 집중.

3, 그 여하한 국민, 민족, 인종에 대한 일체의 제한과 속박에 대한 철저하고도 단호한 투쟁, 모든 민족과 인종의 완전한 동등권.

4, 자본주의로부터 해방된 민족의 문화를 소비에트 국가의 모든 힘과 수단에 의한 확보.

5, 완전한 민족적 평등을 실현하는 공고한 기초를 창조하기 위하여 종래 억압되었던 영역(領域), 변경(邊境) 및 식민지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향상의 전면적 촉진.

6, 배외주의(排外主義), 민족적 증오, 민족적 편견에 대한 투쟁 등을 망라하고 있다.

이것은 구질서(舊秩序)의 약점을 포착한 것으로서, 공산주의가 외연(外延)으로 팽창하고, 내침(內侵)으로 부식(扶殖)되자면, 요컨대 구질서의 약점을 찢러야 하는 전략 전술문제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자본주의 열강(列強)을 약체화시키자면 그들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식민지를 떼어내야 하는 것이 공산당의 전략문제로 되어가는 것은 벌써 상식문제로 되어졌다. 이래서 식민지 피압박민족의 해방과 소위 반제투쟁(反帝鬭爭)을 결부시키며, 또한 이것과 자본주의 국가내의 노동운동을 결부시키는 것이 국제공산주의 운동으로 되는 시대가 전개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자유세계가 크게 경계하고 현명해야 하는 것은 스스로의 체계 내에 공산주의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약점이 무엇인가를 확인하여 그것을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소시키고 청산해야하는 문제이다.

우리 한국도 그렇겠지만 옛날의 식민지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은 공산주의 활동의 국제적 규모를 더 확대시키게 되는 것이며, 그것의 성공을 거두게 하는 것이 된다.

현대의식(現代意識)에 있어서, 모든 형태의 식민주의와 제국주의를 배격하는 것은 벌써 누구에게도 부인될 수 없는 일이다.

이차대전 후에 있어서의 식민주의의 후퇴와, 민족독립국가의 속출(續出)은 기왕(既往)의 자본주의 세계구조의 자기탈피작용(自己脫皮作用)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또한 역사의 당연한 전환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바로 새로운 시대의식(時代意識)의 각성이 대두되는 바인데 구질서(舊秩序)의 자아탈피(自我脫皮)와 잔재청산(殘滓清算)은 오랜 진통과 시일을 요하게 되는 것만도 사실인 것이다. 바로 이 점을 파악한 공산주의는 구질서가 내포하는 약점을 악(惡)으로 몰아대면서 이것과의 투쟁을 선(善)과 정의(正義)로서 체계화시키는 윤리관(倫理觀)을 보급하여 온 것이다. 그리하여 공산주의는 그러한 선(善)과 정의(正義)의 옹호자, 전매적 독점자(專賣的獨占者)로 자처하면서 구질서의 약점과 윤리를 총체적으로 파괴하는 활동을 국제적으로 전개하게 된 것이다. 이 운동은 식민지의 운명에 있었거나, 있는 자의 인종과 민족을 공산주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공작에 총력을 집중하게 된 것이다.

우리 한국에서도 그러한 시대가 있었거니와 한때 식민지의 민족 인텔리들이 좌경노선(左傾路線)에 휩쓸려 들어간 것은 공산주의의 그와 같은 국제적 활동과 공작이 그만큼 성공한 것으로 인정하는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자유세계의 사람들은 오늘의 시대에 있어서도 그 어떠한 형태의 인종적 갈등과 싸움도, 또는 민족적 증오와 배타(排他)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공산주의의 세계 구조를 촉진시키는 일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적이 '백인(白人)의 시대'를 고집하는 따위의 시대에 뒤진 사고방식을 가지고서는 오늘의 세계를 긍정적(肯定的)으로 이끌어 나갈 수가 없으며, 현대의식(現代意識)의 공감(共感)을 획득할 수가 없을 것이다. 고작 하여 그러한 낙후(落後)한 사고방식은 세계 공산화의 인터내셔널리즘을 고무하여주는 효력 밖에는 더 유일할 것이 없다.

미국과 같은 문명국가에서도 아직 인종 전쟁 같은 타기할 양상(樣相)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세계의 유색인종(有色人種)을 적으로 삼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을 지닐 수도 있는 것이다. 자유세계에 있어서는 인종차별의 그 어떠한 형태의 선민사상(選民思想)도 이것을 청산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코민테른의 기본강령에 나타나 있는 인터내셔널리즘의 긍정성(肯定性)을 스스로 인정

해주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 공산주의의 소위 반제투쟁(反帝鬭爭)과 식민지 해방의 슬로건이 인종 및 민족해방을 정력적(精力的)으로 표방하고 있는 것은 구질서(舊秩序)의 잔재(殘滓)인 인종 및 민족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制限)이 상존(尙存)함으로서 비로소 그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만일 구질서의 부정적(否定的) 윤리(倫理)가, 과감하게 자아탈피(自我脫皮)를 꾀하여 인종과 민족에 대한 일체의 제한을 청산해버린다면, 코민테른의 기본강령에 나타나있는 민족 및 식민지 해방은 사실상 아무런 작용도 할 수 없는 무위(無爲)란 것으로 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울 것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가 외연적(外延的)으로 팽창하고 내침적(內侵的)으로 부식(扶殖)될 수 있는 발판이다. 이 발판을 우리 스스로의 능력(能力)과 현명(賢明)으로 끊어버리지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체내(體內)에서 공산주의를 키워주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정치의 타락과 파시즘의 대두에 있어서는 민족적 증오와 인종적 편견(偏見)이 횡행(橫行)하며, 또 국제정치의 다원화(多元化) 시대에 있어서는 왕왕히 배외주의(排外主義)가 등장한다. 공산주의를 두려워하기 전에 이것부터 두려워해야 한다. 그러므로 자유인(自由人)의 자발적 결합과 민족의 완전한 평등은 현대의 윤리이며, 이것 없이는 공산주의의 공세를 무위(無爲)란 것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없다.

◇배은망덕?

소련 신문 「크라스나야 즈베즈다」는 1963년 8월 25일의 지상(紙上)에서 중공을 다음과 같이 비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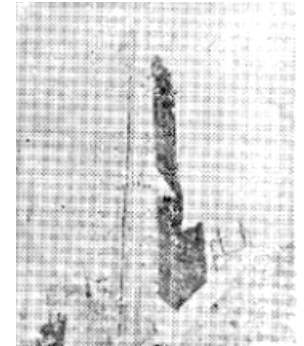
‘현재 북경의 지도자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우리 소련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핵병기의 위력으로서 수천 수백만의 중공 인민의 생명을 구출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국가와 주권의 안전을 가져왔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 1958년에 있었던 대만해협의 위기 때 소련이 중공을 지지했기 때문에 중공은 미 제7함대의 공격을 면할 수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소련의 비난에 대하여 중공은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소련이 우리를 지지한 것은 물론 사실이다. 그러나 소련이 우리를 지지한다는 성명을 정식으로 발표한 것은 대만해협의 위기가 최소한, 핵전쟁에까지는 발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였다. 그 후 1959년, 흐루시초프가 미국을 방문하고 난 뒤, 그는 우리가 대만문제를 일으키는 것조차 반대했다.’

소련의 AMM 현황과 장래

홍성표(洪聖杓)



지난 11월 7일 소련은 모스크바광장에서 그의 46주년 혁명기념일에 행하는 항례(恒例)의 군대와 일반시민의 시위에서 최초로 지금까지 자랑해오던 AMM(Anti-missile, missile) 즉 유도탄 요격 유도탄 3기를 최초로 공개시킴

로써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아울러 소련의 타스 통신은 이 유도탄은 원거리 무인요격 로켓부대에서 대단한 성능이 이미 연습에서 실증되었으며 이들 대공 로켓은 공중 또는 대기권에서의 여하(如何)한 근대적 무기의 공격도 격퇴할 수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어 소련군 참모총장은 비행 중의 적 로켓은 전멸하는 로켓 개발면에서 중대한 전진이 있었다고 연설하였다는 데 이러한 연설을 공감하는 일부 모스크바의 서방측 군사전문가들은 말하기를 금반(今般) 혁명기념일에 출현한 3기의 유도탄 요격 유도탄은 고도 약 30km에 달할 수가 있으며 비행 중의 적 로켓을 전멸시킬 능력을 보지(保持)하고 있다고 논평하였다. 그러나 반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금반(今般) 출현한 유도탄 요격 유도탄이 실전단계에 돌입하였는지는 의문이라고 하였는데 미국의 방위전문가들이 소련은 대(對) 대륙간탄도탄을 요격하는 유도탄을 전시하였지만 효과적인 대(對) 유도탄체제가 소련에는 아직 없다는 오래 전부터의 견해를 뒤집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여하튼 소련이 이 탄도탄 요격 유도탄을 개발하고 있다는 말을 최초로 발설한 자는 소련의 마리노보스키 국방상(國防相)으로서 그는 1961년 10월 23일 제22회 당 대회 석상에서 소련군의 현황에 관한 보고 연설 가운데 특히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비행 중의 로켓을 파괴하는 문제가 성공리에 해결되었다는 것이라고 말한 것부터 클로즈업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62년 7월 22일 소련국방성 감찰장관 에레멘트는 제44회 건군기념일 전날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성명을 통하여 소련 전문가들은 비행 중의 로켓을 파괴하는 문제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장치를 처음으로 만들어 냈는데 이것은 소련 과학자·기술자들의 커다란 성과의 하나라고 하고 계속해서 그는 창설 역사가 짧은 소련 로켓부대는 소련의 자랑이며 지구의 여하(如何)한 지점에도 공격할

수 있는데 이들의 로켓부대는 벌써 2000개소에 배치되어 있으며 그들은 정확도를 개발하고 있다고 하고 이어서 소련의 대공(對空) 방위력은 대단히 개선되어 있으며 영공을 침범하는 여하(如何)한 비행물도 이것을 격추하는 데는 1발이나 2발의 로켓으로 충분하다고 호언하였다.

이를 뒷받침 하는 것으로써 62년 7월 10일 흐루시초프 소련 수상은 크렘린에서 개최한 세계평화평의회대회에서 소련이 유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유도탄을 보유하고 있음을 명백히 하였으며 그 몇 일 후인 7월 16일에는 방(訪)소 중이던 21명의 미국 신문편집인들과의 회견에서 소련은 외기권(外氣圈)을 나는 파리를 명중시킬 수 있을 정도로 명중률이 정확한 미사일 요격용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호언함으로 유명해 졌다.

금년 들어서 소련의 스핏츠 공군부사령관은 5월 1일자 이스베스치야 지(紙)에 소련의 로켓은 다만 공격용으로 사용되는 것만이 아니고 날아오는 적의 탄도탄을 격추할 수 있다고 언명한 후 금반(今般) 실제로 시위에서 공개한 것이다.

지금까지가 소련의 고위층이 성명이나 회견 또는 지상(誌上)을 통하여 탄도탄 요격 유도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발표한 것들인데 이러한 보유설이 나올 때마다 서방측에서는 내적으로는 예의 검토하여 왔겠지만 외부로는 반신반의 또는 과소평가해서 그의 웅수를 가한 것이다.

그러나 서방측 특히 미국에서 소련의 탄도탄 요격 유도탄을 보유하고 있다는 데 대해 가장 정직하게 표현한 것은 금년 8월 미 상원외교위원회에서 국방성의 대변인이 말하는 가운데 미국은 현재 행하고 있는 대륙간탄도탄에 대항하는 방위 개발의 노력은 그 규모와 성과에 있어서 소련과 비교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 동(同) 위원회에서 브라운 국방성 방위연구기술국장은 첫째 다가오는 유도탄을 탐지하고 둘째 탄두의 진위를 식별하고 셋째 목표를 선정해서 넷째 유도탄을 공격하여 다섯째 그것을 격추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요격 유도탄을 개발하기에 앞선 결정적 요소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수폭(水爆)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테라 박사는 소련은 유도탄 요격체제에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함축성 있는 말을 함으로써 주목을 끈 바 있다.

소련이 실물을 공개한 4일 후인 11월 11일에 미국 방위전문가들은 미 육군이 보유한 48Ft의 Nike-Zeus로써 이 소련의 대공 유도탄과 능히 대적할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소련의 탄도탄 요격 유도탄이 미국의 Nike-Zeus와 대등하다는 것을 암시하여 주는 것 같은 인상을 깊이 준다.

그렇지 않아도 금반(今般) 출현한 대공 유도탄의 길이가 약 50ft이고 2단계 로켓이라고 발표한 것을 보아서 Nike-Zeus와 유사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대공 유도탄 Nike-Zeus는 1956년부터 개발하기 시작한 후 소련의 흐루시초프 수상이 자국이 보유한 탄도탄 요격 유도탄은 대기권을 나는 파리로 떨어뜨릴 수 있다고 호언한 3일 후인 1962년 7월 19일 미 본토 캘리포니아 주 반덴버—크 기지에서 발사한 대륙간 탄도탄을 8,325km 떨어진 중부 태평양에 있는 과제린 섬(도(島))에 배치한 실험장에서 Nike-Zeus로 발사하여 날아오는 Atlas탄두를

격추시키는데 성공한 이래 오늘날까지 9회에 걸친 실험을 통하여 그의 위력을 입증시킨 바 있다.

그런데 미국은 금반(今般) 3월 말에 소련의 탄도탄 요격 유도탄 기지가 레닌 그라드에 건설하고 있는 것 같다는 강력한 정보를 입수한 이외에 이렇다 할 만한 탄도탄 방위체제에 관한 시설에 대한 정보가 흘러나오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실물을 공개하기에 이르러 과연 소련이 금반(今般) 출현한 AMM이 실전용일 것이냐 하는 의문을 갖게 한 것이다.

그러면 소련이 과연 AMM을 보유하고 있으며, 있다면 어느 정도의 완전무결한 방위체제를 정비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미 국방성의 연구기술국장 브라운 씨의 방위체제의결정적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보면,

첫째, 다가오는 적의 탄도탄을 탐지하는 것이 첫 단계인데 이러한 탐지장치에 있어서 미국의 예를 보면 유명한 북극권을 연락하는 5000km의 탐지거리를 가진 Bnews망(網)이 이미 캐나다의 Clear 기지와, 그린란드의 Thule 기지가 완성된 이후 예정기일보다 약간 늦기는 하였으나 영국 Fylingdales 기지가 금년 9월 10일 경에 완성을 보아 소련에서 발사하는 ICBM이나 IRBM이 캐나다와 그린란드의 Bnews망(網)은 미국 본토에 영국의 Bnews망(網)은 영국 본토에 핵탄두가 투하하기 4분 전에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 이외에 ICBM 탐지망으로서 Midas 위성이 이미 4개가 발사 상송되어 지구를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는데 이 Midas 위성은 적외선 검출장치를 적재하고 있어 소련이 로켓을 발사하면 곧 그의 열을 감촉(感觸)해서 제1보로 지휘본부에 송신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Midas는 작년 말까지 계획상에는 12개 내로 15개를 남북극을 통하는 원(圓) 궤도에 간격적으로 항상 순항 회전케 할 예정이었는데 발표된 것만이 4개 뿐이고 그 외에는 미국도 케네디 대통령이 군사목적으로 사용하는 위성 발사는 비밀로 취급한다는 조치에 입각하여 Midas 4호가 61년 10월 21일 발사된 후부터는 발표된 바 없어 현재까지 완전히 수를 알 수 없으나 필요한 수는 20-30개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 외에 Samos 위성까지 동원하여 적의 Rocket을 탐지하는데 이용하려고 하는 현재 지상에서 발사하였다가 다시 지상으로 낙하하는 ICBM만이 미소 양국 다 같이 위협의 대상이 아니라 폭격위성까지 출현될 가능성이 있어서 미국은 위성탐지조직망으로써 우주탐지 추적망(Spadats)을 완성하여 이 안에는 전술한 Bnews 망(網)을 비롯하여 미 본토를 횡단하는 전파의 벽인 스파사와 소련 국경지대에 설치한 비밀장치인 고감도선수신기 등을 통하여 소련에서 로켓을 발사하면 즉시 발사된 로켓의 목적 낙하될 시각 및 장소까지도 2분 후면 곧 탐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소련은 아직까지도 미국의 BMEWS 망(網)과 같이 탐지망이 완성되었다는 정보도 없으며 또 MIDAS와 같은 위성도 지난 11월 14일에 발사한 코스모스 2호 내에 포함된 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그러한 목적으로 발사되었다고 한 정보가 없는 것으로 보아 탐지망에서 상당히 뒤떨어진 감을 주고 있다.

둘째, 탄두의 진위를 식별하는 문제에 있어서 식별 레이더가 작동하여, 비행하여 오는 탄두가 실물의 핵탄두인지 혹은 각종 전자장치를 적재하고 식별 레이더를 기만하기 위한 위장(Decoy) 탄두인지를 구별하는 것인데 이러한 구별은 식별레이더로 포착된 비행물체는 계산기에 송신되어 계산기의 전자두뇌는 각종 위장 물체의 신호를 기록하여 놓고 이것들과 비교검토해서 백만 분의 3 초안에 실물인가 위장물체인가를 색출해 내는 것이다.

셋째, 목표물 선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대륙간탄도탄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1개의 대형 핵탄두인 것으로 착각하기 쉬우나 실은 최근에 와서는 한 개의 탄두 내에 여러 개의 소형 핵탄두를 적재하였다가 목표 상공에 와서 분산하여 투하되게끔 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를 이미 62년 1월 24일 아침 미국이 케이프 케나베달 실험장에서 쏘아 에이블 스타 로켓을 사용해서 5개의 인공위성을 동시에 상승 발사하였으나 실패에 돌아가고 말았지만 이는 1개의 탄두 내에 수 개의 소형 핵탄두를 적재할 수 있음을 입증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 개의 소형 핵탄두 중 1개의 탄도탄 요격 유도탄으로 어떻게 선정해서 일시에 전멸시킬 수 있으며 또 그 위에도 개중에 강력한 ECM 장치를 적재한 위장 탄두가 혼합되어 있다면 요격 유도탄들은 더욱 그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목표선정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복잡한 이외에 탐지용 레이더로써 추적하던 적의 대륙간 탄도탄은 최근에 개발하여 실용단계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구형(球型) 로켓의 출현인데 이 구형(球型) 로켓은 발사된 후 탄두발사용으로 상단계(上段階)에 장착되었다가 필요한 경우에 탄두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 지점이 추적레이더에서 예상하던 항적과는 급격히 변화할 경우 여하(如何)히 목표물을 선정하여 공격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형(球型) 로켓은 이미 소련에서 62년 3월 16일 크렘린 궁전에서 개최된 선거민(選舉民) 집회에서 흐루시초프 수상이 행한 선거연설 가운데 우리들의 학자와 기술자들은 크로바리아(지구의 뜻)라고 부르는 새로운 대륙간 탄도탄을 창조했는데 이 로켓은 요격 로켓으로서 격추될 수 없다고 호언하는 가운데 구형(球型) 로켓의 개발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서방측에서는 추측하고 있어 역시 구형(球型) 로켓에 대한 구구책(構究策)도 세웠을 것이라고 믿어진다.

넷째 적의 탄두를 공격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대륙간 탄도탄은 그의 탄두가 별로 크지 않은데 이러한 작은 탄두는 고공 1000km 내외까지 상승 도달하였다가 다시 낙하하는 데 이러한 탄두를 공격하는 것은 하늘을 나는 파리를 소총으로 쏘아 떨어뜨리는 것보다 더욱 곤란할 것이다.

그래서 일개 핵탄두에 대하여 공격할 때에 재래식 탄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핵탄두를 사용하여 발사하면 적의 대륙간 탄도탄두가 날아오는 부근에서 폭발시키면 미국 육군의 Nike-Zeus의 예를 보면 탄두의 핵위력은 1MT(TNT 100만톤)로서 반경 수km 내에서 날아오는 적의 핵탄두를 요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에 고공에서의 중성자는 적의 핵탄두 내에 침투하여 서서히 핵분열을 일으켜 핵폭발이 일어나지 않고 불발탄으로 되는 것이다.

다섯째, 격파하는 체제에 있어서 중성자로 적의 핵탄두 내에 침투시키는 방법이나 혹은 적의 탄두표피를 고공에서 파괴시키느냐하는 방법인데 후자의 경우는 요격탄두의 핵폭발 시의 열에 의한 파괴와 또 인간폭격위성(人間爆撃衛星)의 경우엔 팽 충전같이 확산하는 탄두를 사용하듯이 요격탄두에도 극히 소형의 핵탄두를 다수 적재하였다가 목표물에서 확산하여 파괴시키는 방법 등이 있는 것이다.

이상의 체제가 완비되어야만 요격 유도탄을 개발하는 데 과연 소련이 이상의 조건 중 어느 정도를 충족시켰느냐하는 것이다. 미국의 예를 보면 상기 조건을 충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Nike-Zeus는 고공각(高空角)이므로 저공으로 핵연료를 사용하는 대륙간 탄도탄이 공격해 오는 것에 대비하여 Nike-Sprint를 개발하는 외에 여하(如何)한 고도에서도 반격할 수 있는 발전된 레이더를 사용하는 Nike-X까지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적의 공격용 핵탄두를 반격해서 추격하는 문제는 그렇게 용이한 것 같지 않다.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 다음에 초래되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로서 미국의 예를 들어보면 12-14억 불(弗)을 투자하여 개발한 Nike-Zeus는 미국의 대도시나 공업 중심지 12개소의 기지를 설치하고 1개 기지에는 20-30기의 Nike-Zeus를 1965년까지 배치하는데도 그의 효과성은 100%도 되지 못하고 겨우 60-65%밖에 되지 못할 것이라고 하니 35-40%의 소련의 ICBM이 미 본토에 투하되는 결과로 소련이 1965년까지 현재의 ICBM만도 100여 기인데 그때 가서 얼마나 많은 ICBM을 제조할 것이냐도 미지수이지만 상상하기에 수백 발로서 1발 당 10-100MT급 핵탄두인데 이러한 핵탄두가 투하될 경우 얼마나 큰 피해를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은 가궁할 만한 것이 된다.

그런데 소련은 미국과 사정이 달라 완전히 서방측 공격권으로 포위된 위치에 있으며 적어도 사면으로부터 공격해오는 미국의 핵탄두만도 지난 11월 6일 미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수만 보아도 대륙 간 미사일이 519기, 수중의 잠수함으로부터 발사할 수 있는 폴라리스 미사일이 160기라고 하니 이러한 막대한 숫자는 계획상으로 1965년에 가서 대륙간 탄도탄이 1,358기, 폴라리스 탄이 464기로 증가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때에 가서 소련의 AMM 체제가 완전히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명중률이 100%가 되지 못하는 이상 어떻게 대비할 것이며 또 미국보다 더 넓은 지역을 방어하여야 한다는 지리적인 조건으로 보다 많은 거액이 소요되는데 이러한 거액을 경제적인 문제에 관련하여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는 기술적 문제와 더불어 해결할 요건이 허다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볼 때 소련은 제2시대용 ICBM을 발표해서 61년 봄부터 캄차카 반도 주변에서 중부 태평양 수역 등을 목표로 원거리 발사 실험을 할 때 그의 일부가 AMM의 개발과 관계가 있었고 또 61년 가을에 40회 이상에 걸쳐 실시한 소련의 핵실험 중 폭발 고도 160km 이상의 것이 AMM용의 핵탄두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였다는 과거에 입수된 정보와 금반(今般) 46주년 혁명기념일의 시위에 공개한 실물을 대조 평가해볼 때 상당한 진전은 있었다고 하나 전술한 바와 같은 기술적인 미해결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효율성을 건주어 볼 때 너무나 큰 부담이며 장래에 있어서 요원한 문제가 아닌가 본다.



새해가 되면 일 년에 몇 십 년을 다 살 것 같이 희망과 여러 가지의 계획을 짜기에 골몰한다.

그러면서도 의례히 낙엽이 지고 외투 깃을 세우기 시작하면 아 울해도 허송 세월했구나 하는 송년의 아쉬움에 마음이 산란해지곤 한다.

1962년도 예년과 별차 없었지만 꼭 한 가지 다른 점은 몸의 구석구석까지 애국 애족의 절박한 감정을 느껴본 일이었다.

한국을 전혀 모르는 유럽에서 영화 열녀문과 내가 입었던 치마저고리를 것 발처럼 흔들면서 한국을 소개하던 일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찡해지는 추억이다.

나라에 돌아가면 자손만대의 터전을 닦기 위한 일이라면 뼈가 가루되도록 해야 겠다고 발을 구르면서 몇 백 번 다짐했는지 모르겠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 새삼 그때의 감회가 되살아난다. 그러나 돌아와서 무엇을 했느냐 하는 자성에 얼굴을 붉히면서 여전히 송년의 아쉬움을 느낀다.

내년엔 하늘에 살고 하늘을 정복하는 빨간 마후라들의 웅대한 포부와 그 투지에 못지않게 나의 스크린에서도 불꽃을 튀기는 강인한 연기를 하여야지 하는 송년사 겸 허송한 세월의 변명을 뇌까리면서…….

희망을

장병 여러분, 그간 국가민족을 위해 임무수행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언제나 어김없는 계절들을 맞고는 보내고 또 이 해(年)마저 보내야만 하는 이 마지막 달을 기해 우선 지면으로나마 인사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 계묘년에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특히 국내는 제3공화국의 탄생의 역사적인 해인만큼 의의 깊고 보람된 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은 예년과 다름없이 언제나 이즈음이 되면 또 한해를 허송하고 말았구나 하는 후회를 하곤 하는데 금년도 연초에 세운 계획과는 판이한 결과가 되어버려 후회를 금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직업치곤 기구한 편인 모양.

인사



그렇지만 우리 예술인들도 공군과 다름없이 언제나 이상은 창공에, 정열은 일터에 쏟으면서 현재 맡은 바 임무수행에 최선을 경주하고는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긴밀한 유대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 끝내 장병 여러분의 건승을 빌며 계묘년을 보냅니다.

송년

송년사

오빠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어느덧 금년도 다 저물어 가는군요. 그동안 별달리 이렇다 할 무엇을 한 것도 없이 또 한 살을 더 먹게 되다니 어쩐지 부끄럽군요.

촬영관계로 이리저리 쫓겨 다니다가 오랜 만에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 제 자신을 반성해보면서 지난날의 여러 가지 일들을 반추해 봅니다.

오빠가 늘 말씀해주시던 파스칼의 명상록이 오늘따라 더 기억에 생생하게 떠오르는군요.

오빠! 지난날에 때 묻은 모든 일들을 그 넓고 푸른 하늘 멀리 깨끗이 날려 보내고 내년부터는 좀 더 보람 있고 생생한 피안의 세계로 출발음치도록 새로운 설계도를 꾸며봅시다.

오빠! 내년부터는 꼭 마음먹은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도록 노력해요.

그럼 아무쪼록 몸조심하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오빠 안녕!

송명환

제3공화국의 길목에 서서...



////////////////////////////////////

우리는 지금 어느 시점에 서 있는가? 제3공화국으로 들어가는 길목은 어떤 길인가? 답하지 않아도 이 나라에서 자라난 이 나라 국민이라면 알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해방 후 몇 차례 운명적인 고삿길을 걸어왔다. 그때마다 우리는 새 희망을 다짐해 왔다. 그러면서도 그 무엇인가에 우리의 애절한 염원은 짓밟히고 말았다. 우리의 힘이 모자랐던 것이다. 우리의 애국심, 우리의 충성, 우리의 각오, 우리의 노력이 모자랐던 것이다.

우리는 지금 또다시 여기에 운명적인 고삿길목에 서있다. 이 고삿길 이야말로 지금까지의 오욕적 패배를 영광 있는 승리로 바꾸는 최후의 병참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특집을 꾸며보는 것이다.

////////////////////////////////////

제3공화국 수립의 역사적 의의

류홍렬(柳洪烈) <서울대 교수>

4·19 및 5·16 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 건설에
그 역사적 의의가 있는 만큼 다시는 과거와 같이.



제 3 공 화 국 의 길 목 에 서 서 :
▲ 특 집 ▼

1.

우리는 어느덧 즐거웠던 민족의 해방을 맞이한 지 18년, 뜻 깊었던 대한민국의 수립을 본지 15년을 겪게 되었다. 이 짧은 연간에 있어서 우리는 불행히도 뜻하지 않았던 6·25전란을 겪는가 하면 4·19와 5·16의 혁명을 맞보고 이제 제3공화국의 수립을 목전에 두게 되었다. 이러한 때에 제3공화국 수립의 역사적 의의를 살펴봄도 뜻있는 일이라 하겠다.

제3공화국 수립의 역사적 의의를 살펴보려면 먼저 제1공화국 및 제2공화국의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제1공화국 수립의 역사적 의의를 단적으로 표현한 글은 다음과 같은 대한민국헌법의 전문이라고 본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正義人道)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 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하고 또 자유로이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檀紀)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이러한 전문으로 시작된 대한민국의 헌법은 전문 103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고, 이 헌법으로서 제1공화국은 수립되게 되었었다. 이 헌법 전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제1공화국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섰던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데 그 역사적 의의가 있었고, 그것은 민족주의, 민주주의, 국제평화주의를 국시(國是)로 삼고 있었다. 한편 제1공화국의 헌법은 삼권분립의 원칙하에 제정되어 입법권은 단원(單院)인 국회에서 가지고 행정권은 국회에서 선출한 대통령이 가지며 사법권은 임기 10년의 법관으로써 조직되는 법원에서 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제1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에 취임한 이승만은 불의의 6·25전란을 치른 후 반공주의를 국시(國是)로 삼는 한편 자유당을 결성하여 거듭 법 위의 법인 헌법의 개정을 단행함으로써 영구 집권의 독재를 꾀하고, 주권재민(主權在民)의 민주주의를 짓밟게 되었다. 그리하여 완력과 금력(金力)이 횡행하는 가운데 선거와 개헌이 거듭되고 일인독재 하에 국정은 날로 부패의 도를 가하고 있었고 그것은 1960년에 시행된 3·15의 정부통령선거에서 절정에 다다르게 되었다.

2.

이와 같이 제1공화국의 대통령이던 이승만이 12년간에 걸쳐 독재를 누리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국시(國是)를 짓밟고 온갖 부정불의를 자행하게 되니 정의감과 조국애열(祖國愛熱)에 불타는 청년학도들은 드디어 봉기하여 4·19 혁명을 일으키게 되었다. 그러나 뜻 깊은 4·19 혁명의 뒤처리는 혁명의 주체세력이 아닌 구 정치인들로 구성된 과도정부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종래의 국회 의원으로서 개최된 국회에서 개정된 내각책임제의 헌법에 따라 정권이 민주당으로 넘어감으로써 제2공화국의 탄생을 보게 하였다.

그러나 제2공화국의 집권자가 된 민주당의 장면 국무총리는 정파 간의 파쟁(派爭)과 혼란된 정국에 편승하여 날뛰던 불순

분자들의 남북회담설(南北會談說) 등으로 정국을 험사리 안정시키지 못하였다. 이러한 민주당 정권의 우유부단한 시책은 무능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으므로 드디어 5·16의 군사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제2공화국은 겨우 9개월 간의 단명으로 끝나게 되었다.

5·16 군사혁명의 주체세력은 곧 계엄령을 선포함으로써 삼권을 장악하는 한편 다음과 같은 혁명 공약을 국민에게 맹서하게 되었다.

1. 반공을 국시(國是)의 제1의(義)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2.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더욱 공고히 한다.
3.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舊惡)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청신(淸新)한 기풍을 진작시킨다.
4.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주(傾注)한다.

5. 민족적 숙원인 국토 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 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6.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이 혁명 공약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군사혁명의 주체세력은 강력한 군정을 시행함으로써 제1공화국 이래의 국시(國是)이던 반공태세를 명실 공히 강화하고 국제친선주의를 증진시키는 한편 종래의 폐풍(弊風)인 사회의 모든 부패와 악습을 일소하여 국가자주경제체제를 갖추어 국토 통일의 실력을 배양하고 이러한 일들이 성취되면 새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넘기고 군인 본연의 임무에 돌아갈 것을 약속하였다.

이러한 일들을 성취하기 위하여 군사혁명정부는 먼저 교원노조 관계자들을 교단에서 떠나게 하고 동남아세아 및 아프리카 대륙의 신생 국가에 친선사절단을 보내며 국가재건 국민운동본부부를 두어서 새 기풍의 진작을 꾀하고 화폐를 개혁하며 농어촌의 고리채를 정리하는 한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 이를 착수하게 되었다.

3.

이리하여 군사혁명정부는 제1공화국에서 저지른 비민주적인 일인독재정치와 온갖 부패를 제거하고 제2공화국의 우유부단한 시책을 일신함으로써 2년 후에는 참신한 정치인들에게 정권을 이양할 계획을

제 3 공화국의 길로
▲를
진
주
는
서
:

세우게 되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1962년 12월 17일에는 국민투표에 의하여 헌법의 개헌안이 신임을 얻어 제3공화국의 기틀이 될 새 헌법의 제정이 결정되게 되었다. 이 새 헌법의 전문에서는 제3공화국수립의 역사적 의의를 단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하게 되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4·19 의거와 5·16 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정의인도(正義人道)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 제도를 확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各人)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여 1948년 7월 12일에 제정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이러한 전문으로 시작된 새 헌법은 전문 121조(條) 및 부칙 9조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동(同) 부칙 제7조 2항에서는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되는 기관은 이 헌법시행 후 1년 이내에 구성되어야한다는 정권이양에 관한 기한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새 헌법에 따라 이미 제3공화국의 대통령이 선출되고 이어 국회의원이 국민투표로 선출됨으로써 제3공화국이 수립되기로 되어 있다. 제3공화국수립의 역사적 의의는 전개(前掲)한 새 헌법의 전문에도 보인바와 같이 3·1 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4·19와 5·16의 혁명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생 공화국을 건설함에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이 나라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온갖 부정 불의 부패의 소인(素因)이 일소되어 있어 야 할 것이다. 그 사이 군사혁명정부에서는 혁명을 국민혁명으로 확대시키기 위하여 정치인의 세대교체 체질개선을 부르짖어 왔으나 그 성과가 제3공화국에서 얼마나 나타나게 될지 주목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건국이념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정치가 이상적으로 구현되기 위하여 서는 최소한도로 다음의 네 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함을 부기하고자 한다.

- 1, 국가의 공공정책은 국민의 대표들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결정되며 그 의결 과정에 있어서는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 2, 이 대표들은 일정한 사이를 두고 주기적으로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 3, 이와 같은 선거에 있어서는 보통선거권 일인일표의

원칙, 그리고 비밀투표가 보장되어야 한다.

4, 이상과 같은 국민대표의 정책결정, 선거, 그리고 기타의 정치행동 전반에 걸쳐서 협박 또는 부당한 압력이 없는 정치적인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이 잘 준행(遵行)됨으로써 복된 제3공화국이 이룩되고 다시는 이 나라에 폭력에 의한 혁명이 없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추력(推力)’에 대한 애착은 인간 욕망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다는 성육보다 도리어 강하다라는 말이 있지만 이 말이야말로 우리의 건국이념인 자유민주주의를 짓밟고 독재와 온갖 부정 불의 부패를 이 나라에 가져오게 한 독소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제3공화국은 4·19 및 5·16 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그 역사적의의가 있느니만큼 다시는 과거와 같이 권력욕에 날뛰는 나머지 민족과 국가를 저버리는 부정 불의 부패를 되풀이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정치라는 것은 그릇된 것을 바로잡는다는 것을 뜻함이니 정치에 뜻을 두는 사람들은 먼저 그 스스로를 바로잡고 나아가서 사회와 국가를 바로잡아주기 바란다. ‘정(政)’이라는 글자는 ‘정(正)’이라는 글자와 ‘수(手)’라는 글자를 모은 글자인 것으로서, ‘손(手)’으로 ‘정(正)’을 취함을 뜻함이다. 다시 말하면 ‘수취기정(手取其正)’하는 사람들이 제3공화국을 살려 이 겨레와 이 나라를 복되게 만들어달라고 부탁한다. 이것이 곧 3·1 정신을 계승하고 4·19 및 5·16의 이념을 살리는 길이며 제3공화국의 나아갈 길인 것이다.

제 3 공 화 국 의 길목 에 서 서 : ▲

☆ 평화에의 힘

아이젠하워는 전쟁과 평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전쟁을 싫어한다. 그러나 우리는 침략세력을 막기 위하여 우리의 힘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 힘은 반드시 군사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비군사적인 것에서 기대할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 서독의 신(新) 전차

서독은 이번에 신(新) 전차를 만들어 내었다. 레오파르트라는 녀네임을 가진 이 전차의 정식 이름은 ‘도이치 표준전차’인데 서독군은 스스로 이 전차를 ‘중형전차’로서는 세계 제일이라고 자랑하고 있다. 성능은 다음과 같다.

높이 = 2.38m

전장(全長) = 9.5m

완전무장 전차중량 = 39톤

엔진 = 벤츠 제(製) 다중연료 10기통 830마력

연속주행 = 22시간

시속최고 = 70km

비포(備砲) = 영(英) 빅카즈 150mm 68발 연속발사

4m 수심 도하, 폭 3m 호(壕), 높이 1m의 장벽을 넘을 수 있고, 승원 4명 명중 정도는 2.5km의 거리에서 80% 정면장갑의 부피는 비밀로 되어 있다.

서구민주주의의 소화에 대한 관견(管見)

이보형(李普珩) <동대 교수>

개인의 평등, 자유, 생명, 행복의 추구를 내용으로 하는 서구민주주의의 이념은 그러므로 서구민주주의만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 이념은 어디서 어느 때 살든 간에 인간으로서 는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것이므로……



1,

서구민주주의를 어떻게 하면 소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하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일은 무엇 때문에 서구민주주의를 소화시킬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일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만일 서구민주주의가 우리 민족 또는 우리 국가의 발전에 조금도 기여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소화 여부의 문제를 생각할 필요조차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긴요하게 요청되는 일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 땅에 확립되지 않고서는 발전은 고사하고 우리의 생존조차 기대할 수 없다는 굳은 신념이라 하겠다. 특히 오늘날 민주주의에 대하여 혼란 적 사상이 유포되고 있는 현실에 있어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은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2,

그러면 민주주의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생존조차 기대할 수 없다는 신념은 어디로부터 유래하는 것인가? 우리는 이 신념을 서구 민주주의의 이념과 우리의 특유한 역사적 경험으로 부터라고 말할 수 있다.

서구민주주의의 이념은 인간을 인간으로 대접하는 이른바 휴머니즘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 즉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다는 것, 모든 사람은 자유, 생명, 재산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러 권리를 갖고 있으며 이 권리는 천부불가양(天賦不可讓)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정부는 이 권리의 옹호, 보장에 그 목적이 있으며 이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때에는 그 정부는 정부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의 평등, 자유, 생명, 행복의 추구를 내용으로 하는 서구민주주의의 이념은 그러므로 서구민주주의만의 것이라 고는 할 수 없다. 그 이념은 어디서, 어느 때, 살던 간에 인간으로서 는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것이므로 서구민주주의

의는 인간 생존의 가장 숭고한 이념을 내걸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의 인간으로서 떳떳한 생활을 하려고 하는 한, 민주주의의 이념을 부인할 수 없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떳떳하게 생활한다면 우리의 민족, 국가가 발전하리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의 특유한 역사적 경험은 민주주의의 확립이 직접 우리의 현대에 있어서의 생존을 규정지우고 있다는 것이다. 서구민주주의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은 해방 후의 일이므로 처음에는 썩 생소하게 느껴졌을 지도 모르나 공산주의와의 대결에서, 특히 6·25 사변에서 고가(高價)한 피의 대가로서 우리는 서구민주주의가 우리 민족이 생존해 나갈 수 있는 유일의 길임을 직접 체험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다른 나라사람이 아니고 바로 우리에게 있어 조금이라도 동요되는 빛이 보인다면 그것은 우리의 역사적 경험을 망각하고 있다는 비탄을 넘어서 역사의 조류에 반역하고 있다는 규탄을 받아도 할 수 없는 일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생각할 때에 우리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은 확고부동한 것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다.

3,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서구민주주의를 우리의 것으로 소화시킬 수 있느냐? 이에 있어서는 서구민주주의가 어떠한 역사적 배경에서 자라났는가를 잠시 생각하는 것이 편리할 것 같다.

제 3 공화국의 기록에서:
▲특집▼

서구민주주의는 우선 그 이념이 시민혁명의 과정에서 이루어 졌다. 즉 절대 왕권과의 항쟁에서 정치참여의 길이 막혀있던 부유한 시민들이 그들의 정치적 입장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부르짖은 것이 민주주의의 이념이었다. 이들은 또한, 그 이념을 구현시키기 위하여 종래의 신분제 의회를 타파하고 다수결 원칙이 적용되는 대의제 의회의 수립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즉 수적으로 다수인 시민은 그들의 수로서 왕 또는 귀족의 소수특권계급의 횡포를 막으려고 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대의제는 처음에는 어디까지나 부유한 시민들만의 것이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의 평등과 자유와 권리를 부르짖었으나 실은 동일한 신분에 속하는 그 밖의 일반국민의 평등, 자유, 권리는 그다지 중요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시민혁명의 결과 민주주의의 이념이 확립되고 대의제정치의 원칙이 인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어디까지나 제한된 의미밖에는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이념은 결코 시민의 것으로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 이념은 모든 사람에 적용될 성질의 것이었으므로 따라서 시민혁명 이후 서구사회에 있어서는 이들 이념의 현실화라는 것이 하나의 큰 과제가 되었다. 이 과제의 달성에는 때로는 평화적 방법이 때로는 폭력적 방법이 사용되었으나 어떠한 방법이 사용되었던 간에 그것을 추진한 중요한 동인은 서구사회가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으로 사회에 있어 시민이 차지하는 층이 나날이 두터워져 갔다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처음에는 부유한 시민으로써만 구성되었던 대의제는 선거권의 확장 - 드디어는 보통선거권의 실현을 통하여 국민 전체의 의사를 반영하는 대의제로 발전해 갔다. 이와 더불어 정치활동의 자유, 선거의 비밀보장이 서구민주주의의 중요한 원칙이 되었다.

이와 같이 생각할 때에 서구민주주의는 그것을 성립시키는 사회의 유력한 지주로서 시민계급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시민계급의 건전한 육성이 서구민주주의가 이상적으로 실현되느냐 안 되느냐의 관전을 장악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서구민주주의가 서구사회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발전되려면 건전한 시민계급의 육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육성될 시민계급이란 물론 특수한 계급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경제가 성장하여 항산(恒産)있는 국민 층이 증대할 때 이 국민 층이 즉 민주주의의 지주가 될 시민계급인 것이다. 그러므로 서구민주주의가 제대로 소화되려면 국민경제가 안정되고 발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말하자면 대다수 국민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윤택하게 살 수 있다는 밑받침이 이루어짐으로써 우리나라의 민주정치도 순조로운 길을 밟게 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국민경제를 안정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순전히 경제적 문제이기에는 하나 실은 여기에 있어서도 민주주의는 중대한 관련을 갖고 있다. 서구사회의 경제적 발전에는 우리와는 다른 여러 가지의 물질적 조건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민주주의의 이념이 정신적으로 기여한 점을 무시할 수는 없다. 즉 모든 사람의 평등, 자유, 권리를 근본적으로 인정한 서구사회에서는 결국 각 개인의 능력, 재능, 창의성을 歡 영하였다. 다시 말하면 개인이야말로 창조의 구극적(究極)의 근원이라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국민경제의 안정 및 발전을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작성하든지 그 계획 자체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있는 대의제의회를 통하여 신중히 검토되고 입안되어야 할 뿐 아니라 이 계획은 창조의 근원인 개인 즉 모든 사람의 평등, 자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후진국가에서 조속히 국민경제를 성장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일시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나 국민에게 요구한 희생의 과정에서 국민의 평등, 자유,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면 그 뒤에 설사 국민경제가 소기(所期)의 수준까지 성장되었다 할지라도 이미 민주주의는 한낱 허명을 지니는 결과를 가져온다. 왜냐하면 한번 잃어버린 평등, 자유, 권리를 다시 회복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든 잘살면 된다는 사고방식은 노예의 길로 들어가는 것과 다를 것 이 없다. 그러므로 물론 경제적 성장에는 비상한 각오와 희생이 요구되는 것은 사실이나 그 근본에 있어 민주주의의 이념은 항상 고려되고 이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되어야 한다.

이와 아울러 주의할 필요가 있는 말은 서구민주주의가 결국 시민사회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발전한 것이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전통이 없는 우리나라에는 도저히 체질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말이다. 시민사회적 전통이 우리나라에 없었던 것은 사실이므로 이 말에는 일리가 있는 듯하나 그러나 그것은 민주주의가 이 땅에서 실현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하는 논거는 혹시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민주주의가 이 땅에서 뿌리를 박기란 전혀 불가능하다 는 논거는 못 된다. 만일 민주주의가 이 땅에서 불가능하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의 평등, 자유, 권리란 도저히 결정될 수 없는 특수한 나라란 말인가? 그렇지 않다면 서구민주주의가 우리의 체질에 맞지 않는다는 것과

제 3 공화국의 기록에서:
▲특집▼

같은 말은 특히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일 수록 경경(輕輕)히 할 말이 아닌 것이다. 더욱이 우리 국민은 그동안 민주주의의 미명 하에 가진 희생을 당하는 동안에 개인의 평등, 자유, 권리의 고귀함을 깨닫게 되었고 완전히 자기의 의사를 외부의 압력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귀중한 한 표로써 표시할 줄 알 정도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이 설사 서구사회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경제적 조건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 땅에 있어 민주주의가 실현되리라는데에 희망을 둘 수 있는 유력한 근거로 되어있는 것이다.

4,

오히려 우리는 서구민주주의를 어떻게 소화시키느냐하는 문제와 더불어 무엇이 서구민주주의의 실현을 방해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동시에 제기해야 할 것이다. 이 점에 있어 전통사회라는 규정을 받는 우리사회에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는 여러 독소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그 독소 중의 최대의 그리고 근본적인 것은 권위주의가 아닌가 생각된다.

권위주의, 이것은 민주주의국가에 있어 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일반국민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항상 국민으로부터 정치운동의 위탁을 받은 사람들이 걸리는 병폐인 것이다. 이들은 그들의 권력이 국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받은 자리에 올라서자 그 권력의 유래를 잃어버린다. 그리하여 그 권력을 자의로 휘두르기 시작한다. 이때에 이러한 권력자들은 항상 구세주인체 자기 스스로를 가장하고 어떠한 위기를 조작하거나 또는 침소봉대한다. 이것은 정치적 권력의 부패적 속성이 빚어내는 비극이기는 하나 또한 권력자의 자기능력에 대한 과대평가, 오만심으로 부터도 발생한다. 국민의 동의에 의하여 정치운동의 위탁을 받은 사람이 이와 같이 변질하였을 때 이미 그는 권력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나 그러나 전통사회에서 권위주의적 권력행사에 관습화되고 만성화된 국민은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 이리하여 여기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는 외적으로는 존재하지 만 내적으로는 민주주의가 압살되는 위기에 당면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권위주의는 비단 전통사회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과 같은 사회에서도 일찍이 토마스 제퍼슨은 민주정치가 잘못하면 이러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하루바삐 국민이 실제정치에 관심을 갖는 일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국민의 무관심주의야말로 권위주의를 싹트게 한다고 강조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국민의

<104P로>

제3공화국 국민의 기본 자세

신영철(申永澈)
〈한국일보 논설위원〉

국민은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은 지난날의 퇴영적(退嬰的)인 타성과 깨닫기 결별해야 한다.



제3공화국의 길로 들어서서:
▲특집

국민은 구경꾼이 아니다.

8·15, 6·25, 4·19와 5·16이라는 역사의 격동을 겪는 동안 우리 국민들의 정치의식 속에는 어느덧 한 타성이 자리 잡게 되었다. 그것은 전형적인 후진 현상의 하나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는 그 권위와 권력이 엄청나게 소용돌이쳤던 것이며 그 전환도 급격하였다.

그래서 국민들은 제사(諸事)에 적극적으로 작용해 들어가지 않는 퇴영적 타성을 몸속에 지니게 되었던 것이다.

또 그런대로 정신과 생활의 안정을 지키기 어려웠던 국민들 사이에는 인간 정신 퇴폐에 따르는 이기심의 고속도(高速度)적인 번식이 엄청난 독소로서 버티어 서는 것이 되었다.

그런 결과로 사회와 민주주의의 정통성과 지성은 병들기가 일쑤였다. 일종의 정신적 무정부상태와 '산다는 것을

행동하는 것'이라는 '지적 불량'의 풍조를 저변으로 하는 사회의 카오스는 그렇게 해서 형성되었다.

물론 사람들은 조화의 덕을 쌓고 이성애의 신뢰를 회복하고 인간 신뢰의 기틀을 세우기를 꺼려하였다.

한편 국민의 어느 부분은 자신들을 정치적 사회적 불신의식 속에 매몰시켜 왔으며 또 반항의 정열만을 되새겨 보고 있었다.

이것은 놀라운 정신적 위기상황이다.

이런 정신적 위기를 바탕으로 정부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나무랄 데 없는 정치적 위기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

적어도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가장 뼈저리게 지적되어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암흑의 정치의식 상황일 것이다.

오늘날과 같이 많은 국민들이 정치를 자기의 것으로 감각하지 않고 이른바 정치인들의 전속 사항으로 돌리기만 한다면 우리가 참답게 구제될 날은 멀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물론 국민들만을 나무랄 것은 아니다.

국민 일반의 정치적 불감은 근본적으로 왜곡된 역사의 소산이며 일그러진 현실의 반사라 할 수 있으나 보다 직접적으로는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충족시켜 줄 것을 충족시켜 주지 못한 데 연유한다.

그렇더라도 국민은 아니 그럴수록 국민은 정치가 지난날과 같이 그 형식적 외연확대에만 머물게 하지 않기 위해 즉 실질적 족충(足充)의 축적을 가져오게 하기 위해 양성적으로 작용해 들어가는 품성을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정치라는 무대와 국민들의 실제적 생활무대가 여전하게 합일되지 않았는지 자신의 지위는 커녕 나라의 체통도 바로잡을 수가 없는 것이다.

국민은 정치에 대해서 양성의 의지를 가져야 하며 정치는 그 구체적 실천의 의미 내용을 국민 속에서 찾아내고 떠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3공화국 탄생을 맞는 역사의 전환점 위에 선 우리는 장래 할 새 정치토양이 반드시 그렇듯 국민과 정치가 합일하는 선에서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라지 않을 수 없다.

10·15와 11·26 두 차례의 선거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보여 주었던 정치적 무관심은 따라서 적극적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은 언제까지나 정부가 하는 일을 북새꾼의 눈으로만 볼 수는 없는 것이다. 하기가 정치를 북새꾼의 입장에 서서 관망하기만 한다면 감각적인 자기위안은 충분히 기대 가능하다.

그러나 그러한 사이에 또다시 국민과 정치가 그 사이를 격리시키는 바가 되고 그것에서 가중되어 올 새로운 불충족과

정치적 사회적 불안정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결국 그러한 새 불안이나 새 압력을 받는 측은 국민인 우리 자신인 만큼 혹 피해를 입는다 해도 우리 이외의 다른 사람이 입는 것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그 퇴영적인 타성과 깨끗이 결별하여야 한다.

정치는 남의 일이 아닌 바로 우리의 현실생활 형태인 것이다.

또 국민은 그저 앉아서 정치를 구경하고만 있을 것도 아니고 또 정치는 국민에 구경꾼의 입장에 서지 못하도록 구체적인 설득을 마련하여야 한다.

구경꾼이나 북새꾼이 없는 정치 - 그것은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스스로의 힘과 책임과 판단으로 성취시켜 놓아야 할 것인 것이다.

국민이 국가를 이룩한다.

한 나라가 생동하고 전진하는 모습을 갖추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전 국민적인 단결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일체의 벽은 헐어져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나라에는 국민들의 총집결을 자연스럽게 이룰 수 있는 민족적 국가적 이념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사회에서는 개인이라는 것이 평등하고 균질인 주체이다. 물론 이 평등하고 균질 주체들은 그 사이에 교호(交互)되지 않는 장벽을 쌓고 있다는 특질을 또한 가진다.

따라서 이 교호(交互)되지 않는 장벽은 반드시 개체보다 고위에 있는 국가적 혹은 민족적 목표를 거쳐서야 극복될 수 있으며 그 래야만 비로소 광범한 국민적합의가 성립되는 법이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한 나라 한 겨레의 집합적 이상의 설정 과정이라고도 할 것이다.

하긴 이러한 민족의 집합적 이상은 한 나라의 역사와 함께 전이하는 가변적인 것이다.

아무튼 우리는 국민의 총단합을 성취시키기에 앞서 집합적인 이상을 정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러한 집합적인 이상의 정립을 위해서 건강한 역사의식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아직도 황무(荒蕪)의 상태에 놓여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일찍부터 정당한 역사적 사고와 과학적 사고가 결핍되어 왔다.

사회가 앞을 향해서 내 닫는 묵직한

흐름을 과거로부터 현재로 향해 간주하고 거기에서 변화의 패턴과 행방을 찾으면서 현실에서 미래에의 구도를 그리려는 생각이 없이 지내왔던 것이다.

그래서 역사적 상으로서의 인간의 인식은 참답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물론 이러한 중대한 마이너스적 의식 구조를 형성시킨 책임은 그 동안 우리 역사를 지배했던 외재적 조건에 많은 부분이 달려 있다.

특히 우리의 근대정신개화라는 것이 일제 식민통치아래서 정궤(正軌)를 잃은 채 진행된 것이었고 해방 후에 있어서도 그것의 성장은 겹친 격동 와중에서 많은 저해를 받았던 것이 다.

그리하여 우리는 일그러진 감각의 오차를 의식하기조차 힘든 상태아래 있게 되었고 냉혹한 현실이나 기성사실들이 짙은 막을 막고 있었던 까닭에 꿈과 내일을 일부러 기피하는 따위의 슬픈 습성을 배워오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인간소(人間疎)와 인간의 비인격화현상을 몰아서 가져오는 대중사회 화현상 속에 그대로 돌입한 우리 사회는 미처 스스로의 모습을 되돌아 볼 겨를마저 가지지 못하였던 것이다.

선의를 에너지는 거세되어 갔으며 역사를 구사하는 성실한 의식은 초점을 잃어 갔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는 충족되지 않는 생활공간이 우리 주변에 엄청나게 버티고 있음을 몸으로서 실감하게 되었고 그것에 대한 지혜로운 통찰의 필요가 생겨나게 되었던 것 같다.

그것은 오늘의 불충족이 영원하게 이어질 수는 없다는 위대한 민족적 각성의 도정이었다 할 수도 있다.

하마터면 우리는 E.H.K가 말한 비역사적민족이 될 뻔도 했다. 그에 의하면 비역사적민족이란 곧 이상이 없는 민족인 것이며 앞을 내다보지 않는 때문에 과거를 보지 않는 민족인 것이다. 이제 새롭게 탄생한 제3공화국은 그와 같은 일체의 맹목을 용감히 타파하여야 한다.

새 공화국에서야말로 우리 겨레는 의욕적인 역사적 민족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 역사가 서 있는 입장에 대해 깊은 통찰을 가짐과 아울러 그 주체적 역사적 위에서 민족의 집합적 이상을 그리고 그것을 매개로 단합된 민족의 에너지를 총화(總和)시켜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국민이 이룩하려는 국가 - 모든 계층이 합의하고 협력하는 생명력 있는 국가는 이룩될 것이다.

국가는 더욱이 민주주의적인 국가는 어느 의미에서나 조화를 통해 부단히 여과되면서 '양(良)의 부분'에 접근해 들어가는 것을 생명으로 한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를 다스릴 책임 있는 '모랄'을 가지는 국민들의 건전한 의지가 앞선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결국 국가는 국민이 이룩한다는 말이며 그것 때문에 역사의식도 집합적 이상도 민족적 단합도 필요한 것이다.

좋은 국민 좋은 정치

앞에서 우리는 국민들의 정치적 불감을 자성하면서 단합된 단일적 민족 에너지의 배양을 촉구하였다.

또 그것이야말로 새로운 공화국의 국민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세가 될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우리는 좋은 국민이 좋은 정치와 좋은 국가를 이룩할 수 있을 것임을 말하긴 하였지만 반면에 좋은 정치가 좋은 국민을 만든다는 또 다른 측면엔 그다지 언급하질 않았다.

따라서 이 양자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것임에 비추어 우리는 여기에 좋은 국민이 자연스럽게 길러지는 좋은 정치의 상을 그려 보고자 한다.

다시 말할 것도 없이 좋은 정치는 국가가 국민의 가정(Home for the people)으로 되는데 있다.

그래서 현대국가는 모두가 과실의 사회화를 추구하는 것이며 복지국가적 지향을 갖는 것이다.

광범위한 각종 정책을 구사해서 국민의 실질소득을 최저생활에 필요한 일정 기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로 현대국가의 사회보장적 기능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정치 - 국민에게 생활과 정신의 충족과 안정을 주는 정치는 스스로 좋은 국민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정치의 이상의 경(境)은 하루아침에 성취되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내외적 조건들을 고려에 넣고 볼 때 우리 처지가 그러한 데까지 고루 미치기까지는 상금(尙今)도 많은 시간과 많은 경로를 거쳐야 할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정치의 궁국적(窮局的)인 모습이 그러한 데 위치하여야 할 것임은 자명한 것이다.

따라서 정치라는 것이 지난날과 같이 어디를 향해서 어떻게 운영되어 나가는 것이며 또 설사 정치의 목표가 있더라도 그것을 잘 알 길이 없거나 종잡을 수 없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제 3 공화국의 길목에서:
▲특집▼

정치는 우선 선명한 목표가 있어야 하며 그 것은 국민 일반의 자발적인 연대의식을 촉진하는 것이어야 한다.

가령, 형편에 따라서 그것이 국민의 내핍(耐乏)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다.

만일에 국가가 요구하는 내핍(耐乏)이 충분히 설득하는 힘을 가진 것이고 그 것에서 순리적인 납득의 근거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라면 국민은 지체 없이 동의의 판단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러한 정치의 목적이 지나치게 비대되는 나머지 민주주의가 자연히 밀려부터 유린되는 경우는 다르다.

아무튼 좋은 정치는 두엇보다도 전 국민적 소통의 관계를 순리를 쫓는 가운데 유지하여야 한다.

좋은 정치에 따라서 국민의 일방적인 협력을 기다리고 앉아 있을 것만이 아니라 스스로가 국민생활 속에서 체계를 이루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횡적으로나 종적으로나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소통의 관계와 연대의 관계는 반드시 한 민족사의 내일을 밝혀주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주위에는 너무도 짙은 분열적 요소들이 독기를 품고 있다.

대부분의 겨우 이른 바 정치인들에게서 국민들은 공감보다는 반발을 느끼기가 일쑤이다.

그것은 그들의 정치하는 품이 지극히 원칙적인 데부터 빗나가고 있는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역조(逆調)들에게 외면만 할 수는 없다

어느 때는 그 같은 역조(逆調)들이 우리 역사와 소매를 나누고 꺼질 것이어야 한다면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과 몸가짐은 성(誠)하고 선한 의욕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구경꾼일 수만은 없는 것이며 좋은 국민의 손으로 좋은 정치 좋은 국가가 이룩될 것임을 다시금 자강하는 바 있어야 할 것이다.

☆AMX30 전차

서독이 최근 레오파르트라는 우수한 전차를 생산하자 프랑스는 그와 성능이 비슷한 AMX 30이란 전차를 만들어 내었다. 전차부대 출신인 드골 대통령의 명령으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서독의 레오파르트 전차와 프랑스의 AMX30 전차는 메이 프랑스 연병장에서 쌍방의 성능테스트를 행했다.

☆정보관리

조지 워싱턴은 헌법집회의 대표들에게 헌법의 내용이 사전에 누설되면 비준을 얻기가 힘들 것이라는 의미에서 신문 기사들을 경계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공화당이 선거에서 패할지도 모른다는 그의 고문들의 걱정 때문에 노예 해방선언을 3개월 동안이나 감추어 두었었다.

제3공화국의 경제발전책

- 한국농업의 근대화와 공업화의 기본 문제 -

신태환(申泰煥) <東大教授>

농업생산에 하등의 기여도 하지 못하는 막대한 잠재실업자를 농촌에서 배제하고 잔여 농민의 수중에 그만큼 저축력을 증가시킬 때……



제3공화국의 기록에서:
▲특징

제3공화국이 해야 할 일이 많은 가운데 인구의 과반수의 생업인 동시에 낙후된 전(前) 자본주의적인 상태에 있는 농업을 근대화하고 그것을 통하여 한국공업화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 아닌가 한다. 자본주의적 토지자유라든가 자유로운 농업노동의 이동이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한국 농업은 경제적으로는 근대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농민의 삼분지일이 단위 농가를 먹일 수 없는 영세농이라는 것, 농업생산이 전체적으로 시장생산이 아니고 자가(自家) 소비를 위한 생산의 잉여를 상품화한다는 것, 그리고 그 때문에 농민 사이에 사실상 생산자의식이 없다는 것,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따른 토지개혁에 의하여 봉건적 부제지주(不在地主)를 배제함으로써

농민과 지주사이의 예속관계는 없어졌으나 사실상 농업생산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하는 막대한 잠재 실업자가 농촌에 기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의 배제 가능성이 없는 사회 구조상의 침체상태가 있다는 것을 볼 때 확실히 한국농업경제는 전(前) 자본주의상태에 있다고 단언할 수 있고 폭발적인 인구증가와 아울러 볼 때 한 번도 이것을 파괴하지 않고는 농촌문제 내지 한국경제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라고 본다.

한국농업의 근대화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농촌에 기생하고 있는 막대한 양의 잠재실업을 농촌으로부터 배제시키는 작업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줄 안다. 농촌의 잠재실업자는 생산적 농민의 잠재 저축을 먹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사실상 농업생산에 공헌하는 바 없이 농촌에 의지하고 있느니 만큼 그들이 제거된다고 하면 잔여농민의 수중에 그 빼앗기는 만큼의 저축력이 생길 것이고 잔여농민의 실질소득이 증고(增高)할 가능성이 생긴다. 그렇게 되면 잔여농민의 소비가 증가될 가능성이 있는 동시에 생산의욕이 자극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상쇄작용위에 적극적으로 농업생산을 돌우는 정책을 쓴다고 하면 농민 수중에는 확실한 저축력이 생길 것이다.

그러면 잠재 실업자들을 어디로 옮길 것이냐는 것이다. 여태껏 정부에 의하여 취해진 정책은 도로공사라든가 댐을 구축(構築)하는 등 주로 사회간접자본 조성을 하는데 농민을 동원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런 사회간접자본 조성만을 가지고는 그것이 즉각적인 생산효과가 투하된 자본량에 비해 적다는 것과 농촌으로부터 제거된 농민을 농촌밖에 영구히 정착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대개는 사업의 종료와 동시에 그들이 농촌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시적 고용효과밖에는 내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잠재실업의 도시 대공업에의 흡수를 기대해 왔다. 그러나 그 성과는 현상으로는 구우지일모(九牛之一毛) 격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도시의 대공업이라고 하는 것이 철저히 노동절약적인 기계 설비를 사용하고 경영조직을 갖는 것이기 때문이다. 생활비가 비싼 도시로 들어오는 농업 노동자군은 도시의 자유노동자화(化)하여 있으나 사실상은 유랑하는 실업자 군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농촌의 잠재실업자가 사회간접자본 조성면에 동원되거나 도시공업에 흡수되는 이 두 방법에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잠재실업자를 농촌에서 항구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생각한다. 그것은 노동집약적인 수출산업의 중소기업을 농촌 중간도시나 인구 조밀한 촌락에 산포시킴으로써 농촌 실업자가 있는 곳에서 그들을 흡수 정착시키자는 것이다. 이 방법에 의한 잠재 실업자와 잔여 농민의 분리의 가능성은 세계경제의 동향

과 합치되는데서 온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의 세계경제의 동향을 볼 때 고도로 공업화한 나라들은 임금고(賃金高)로 말미암아 노동집약적인 산물인 그들의 생활필수품이라든가 생활편의품을 그들 자신들이 직접 조달하는 것이 불리하고 따라서 이런 부문의 산업은 이것을 점차로 내놓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동향에 비추어 볼 때 후진국의 살길은 일시라도 빨리 선진공업국가들이 하던 그러나 앞으로 내놓지 않으면 안 될 노동집약적인 공업을 빼앗아 국내에 확립하는 그 제품을 가지고 그들의 시장에 팔기 위하여 뛰어드는 것뿐이다. 물론 후진국 사이에 경쟁을 생각해야 할 것이나 이런 세계경제의 움직임에 비추어 우리는 수출산업의 중소기업을 농촌에 산포시켜 농촌의 과잉 인구를 흡수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방법에 의한 것 같으면 농촌의 잠재실업을 그들이 있는데서 흡수해서 거기다가 생업에 정착시킬 수 있고 동시에 공업의 발달을 기대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 가령 1억 5천만 불을 들여 자본집약적인 다시 말하면 노동절약적인 제철소를 만든다고 하는 경우에 그 고용효과와 5만 불짜리 노동집약적인 수출산업의 소(小) 공장을 그와 같은 자금으로 만든다고 하면 3천 개의 공장이 중간도시나 촌락에서는 결과가 되고 그것들이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에 오는 고용효과는 그 승수적(乘數的) 파급효과까지 생각할 때 상상 이상으로 클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현실로는 여기서 정책적 선택의 방향은 자명한 것이라고 본다.

수출산업의 중소기업을 농촌에 산포함으로써 잠재실업을 흡수하는 작업을 택할 때 다음에 취해야 할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농민에게 생산자의식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다. 생산성이라든가 수지타산 이라든가를 제대로 생각하지 않는 농민들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깨뜨리는 것이다. 정부도 여러 가지 농촌진흥정책이라는 것을 써왔다. 그러나 농촌은 이조(李朝) 5백 년의 긴 잠을 아직도 자고 있고 그런 동안은 농업생산성의 상승이란 있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런 농민의 생산자로서의 태도를 깨우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농협(農協) 사업도 있으나 지역사회 개발 사업을 확대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에 우리는 이 사업을 활발히 한 일이 있었고 우리가 기억하기에도 구(舊) 자유당시대 정부의 농촌사업 중에 가장 성공한 것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간 그 사업이 농촌진흥청사업으로 흡수됨으로써 부진(不振)상태에 들어간 것 같다.

이 사업이란 봉건적인 잠을 자고 있는 농민으로 하여금 농업생산자라는 영광의 자리로 끌어 올리는 동시에 그들이

제 3 공화국의 기록에서:
▲농업

생산자로 움직일 수 있는 최초의 힘을 주는 것으로 한국의 농업혁명을 위하여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 아닐 수가 없다. 인도를 위시하여 동남아의 많은 나라들이 이 지역사회개발사업의 전개를 통하여 큰 성과를 얻고 있다고 하는 것은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자연발생적인 촌락이 약 2만에 달한다고 한다. 그렇다고 하면 한 30년 계획으로 연 수 백 부락(部落)식 재정 형편을 보면서 약 반수쯤 모델 빌리지 모범부락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모델 빌리지가 약 반수에 달하면 남은 과급효과에 의하여 자연 따라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역사회개발사업을 독립 강화하고 그 운동을 재개하라고 강조하고 싶다. 지역사회개발사업을 통한 농촌의 생산단위의 확립은 농업근대화의 구체적인 시동력(始動力)을 주는 것이다.

농촌생산단위의 확립과 잠재실업의 처리와 함께 해야 할 또 하나의 사업은 농업생산성을 올리는 농업기술의 향상이라는 것이다. 종자의 개량, 심경(深耕), 추경(秋耕), 용토작업(容土作業), 유기비료(有機肥料)의 적용 등등 재래의 농업 생산성을 올리는 노력도 노력이거나 우리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체 영농자금의 자본화라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년(過去年) 막대한 액의 영농자금이라는 것을 방출했는데 그것이 전혀 자본화하지 못했고 오히려 농촌의 물자를 조장시키는 효과만 컸다는 것은 많은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칭(世稱) 막걸리 자금화한 영농자금은 인플레이 갭만 늘리고 말았던 것이다.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일체 영농자금 중 소기업자금 수리자금 등도 기왕의 농업개발을 위하여 사용되던 자금을 통틀어서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방향으로 이것을 자본화되도록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효과 없는 재래의 방법은 지양되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개발사업에 있어서 모델 빌리지를 중심으로 경지 정리라든가 소기계농구의 도입을 위하여 과거의 영농자금을 투입 자본화하고 농업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집단 농 형식의 발전과 또 한편 개인 농장의 발전을 도모한다고 하면 영농자금의 자본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 농업생산성을 급속도로 상승시킬 수 있다. 비난의 소리가 높다고는 하지만 과거의 수리사업자금의 자본화가 오늘날 큰 평야지대의 관개문제를 일부 해결해서 그래도 농업생산에 움직일 수 없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농사자금의 자본화가 얼마나 모리하다는 것을 가르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경제에는 세 가지의 불균형이 있다. 그 하나는 농촌산업과 도시산업과의 불균형이고 다음은 국내소비산업과 수출산업과의 불균형이고, 마지막은 대공업과 중소기업과의 불균형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그간 중농정책을 말로는 부르짖으면서도 농촌을 전(前) 자본주의적양상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고 외환부족에서 오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수출보다는 원조자금에 의한 수입에 의하여 국내시장에서 이를 보는 말하자면 인플레이 효과에 의한 환율을 벗겨먹는 그런 무역만을 일삼아 왔기 때문에 수출산업은 신장되지 못하였고 원조나 차관에 의한 대자본 설비의 도입에만 힘을 썼고 자기자력으로 쌓아 올릴 수 있는 중소기업은 이것을 무시해 왔기 때문에 상술한바 세 가지 불균형이 생겼던 것이다. 전술한 바 우리의 정책인 수출산업의 중소기업을 원료공급의 편의 제품의 마케팅 루트 등을 고려한 입지조건을 살펴서 농촌중간도시나 촌락에 산포함으로써 잠재실업을 흡수한다고 하는 것은 도(道) 간의 세 가지 불균형을 거꾸로 가면서 시정하지는 것이다. (불균형이 시정될 뿐 아니라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하여 주리는 나라의 산업연관을 확고히 하자는 것이다. 5개년 계획에 나타난 일부의 수입대체산업인 판유리 공업, 시멘트 공업 등은 그것이 대기업이면서도 국내원료를 사용한다는 의미에서 한국의 산업 간의 연관을 살리는 것들이다. 그러나 단순한 국내소비산업을 원조나 차관에 의하여 그 자본설비와 원료까지도 구매한다고 할 때 그런 것은 보유 외환이 부족해지거나 소진될 때는 산업이 정지되지 않으면 안 되는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자본설비의 구입에 있어서의 선불 원료구매비 등으로 항상 외환에 압박을 가하고 외환 부족을 가져오고 인플레이를 자극한다. 그 때문에 외환사정과 부침을 같이 하는 산업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해방 후 한국인의 소비대상으로 등장한 많은 신종 외국상품들은 한국인의 소비를 자극했고 거기서 오는 신종상품에 대한 모방 효과는 소비를 증대시켰고 그 수요에 맞추기 위하여 자본설비를 가속도적으로 증가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과잉투자에 의한 자본설비와 그것에 쓰이는 원료구매를 합한 외화수요는 일증월가(日增月加)하여 그 누적이 오늘의 외환 부족을 더욱 악화하게 하였던 것이다. 그 때문에 국내소비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과잉투자를 막고 외환의 여유를 획득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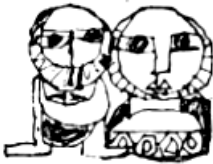
이상 요약하면 농업의 상술한바 근대화 없이는 한국의 공업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다. 농민의 그런 혁명에서 오는 국민의 실질소득 향상이야말로 점진적으로 공업화의 기본이 되는 것이고 외국원조에 의한 산업연관을 무시한 공업화는 경제에 뿌리지는 못하고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경제의 성장을 가져오지 못하는 것이다.

제 3 공화국의 기록에서:
▲집

제3공화국과 승공(勝共)

유봉영(劉鳳榮)
〈조선일보 주필〉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 이 자유의 향유는 튼튼한 경제적 토대가 없이는 어려운 것이니……



우리 국민이 공산주의에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해방 후 일부 국민들은 일제 때 애국지사들이 항일투쟁을 전개하고 있을 때 공산주의자들도 이에 동조 협력한 것만을 알고 또 공산사회의 실정이라든가 공산 제국주의자들이 세계정복의 야망을 품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을 잘 알아차리지 못 했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도 한국의 자주독립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오인했던 것이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이 실제로 한국의 자주독립을 바라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 가지 면에서 알게 되었다. 그것을 처음 노골적으로 표시한 것은 해방 당년인 1945년 12월 27일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한국의 신탁통치를 결의했을 때의 일이다. 3상회의에서 그러한 결의가 행해졌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에는 공산주의자들도 일반국민과

마찬가지로 신탁통치를 반대했던 것이다. 그러나 4, 5일이 채 못 가서 그들은 태도를 일변하여 처음과는 정반대로 신탁통치에 찬성한다고 떠들어 대었던 것이다. 이것이 모스크바에 있는 국제 공산당의 지시에 의한 것임은 두말할 것도 없는 것이며 또한 이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안중에는 제 조국과 제 민족이 없고 오직 공산당과 소련이 있을 뿐이란 것을 사실로서 증명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 후의 일이지만 남로당(南朝鮮勞動黨) 즉 공산당의 간부인 박헌영(朴憲永)이 조선은 소련방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외국기자에게 공언한 것은 그 사실을 더욱 명확히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은 1946년 3월과 1947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 덕수궁에서 열렸던 미·소 공위(미소공동위원회(美蘇共同委員會))때의 일인데 공산주의자들은 미·소 공위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서 민주제도에 의한 한국정부가 수립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소련의 사주를 받아 가면서 미·소 공위의 진전을 백방으로 방해해서 필경 공위를 결렬시키고 말았다는 사실이다. 38선으로 남북을 분단한 자체가 원래 잘못

제3공화국의 기록에서:
▲특집

된 일이지만 미·소 공위가 성공되었다면 남북통일이 이루어졌을지도 모를 일인데 공산당의 방해로 이것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은 천고의 유한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사사건건 다른 단체와의 협력을 거부하여 민족분열을 조장하였으니 그 한 가지 예로서 3·1절이나 8·15 광복절 같은 민족적 행사까지도 그들만이 별도로 행했던 사실을 들 수 있다. 이렇게 되고 보니 자연 민주주의나 민족주의를 지향하는 우익 측과 공산당을 주체로 한 좌익 측 간에는 대립과 충돌이 잦아질 수밖에 없었다. 그 때 일부 인사들이 이 양 측을 화합시켜 보려고 소위 좌우합작운동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이것이 성공될 수 없음은 명약관화한 일이었다. 해방으로부터 1948년 8·15 때 정부가 수립되기까지 약 3년이나 되는 기간 중에 일어난 사회혼란은 주로 좌우익의 대립충돌에 기인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이 공산당을 싫어하고 민주주의 측을 지지했기 때문에 좌익 세력은 차츰차츰 쇠퇴해 갔고 그 반대로 우익 세력이 확고해져서 1948년 5월 10일의 제헌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의원 총석 수 198석 중에 좌익계로 볼 수 있는 자는 20여 명에 불과했던 것이다. 허지만 권모술수에 능하고 투쟁력이 강한 전기 좌익계 의원들은 국회 내에서도 준동을 개시하여 미군 철수 결의안을 국회에 제안하기도 하고 좌익 측에 유리한 입법을 하려고 애써 오다가 국회에 남로당 프락치를 결성한 사실이 발각되어 검거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공산당의 반국가적 행위는 이런 일에만 그친 것이 아니다. 이보다 더 중대히 보아야 할 것은 폭력 또는 무력으로 미군정 또는 우리자신의 정부를 전복하려고 한 사실들이다. 군정 때에 있는 것은 1946년 10월의 대구폭동사건과 1948년 3월의 제주도 반란사건이고 정부수립 후에 있는 것은 48년 10월의 여수·순천반란사건이다. 이들 반란사건 때문에 많은 인명이 희생되었고 적지 않은 재산이 파괴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이 범한 죄악 중에 가장 큰 것이 6·25 사변임은 두말할 것도 없는 것이다. 6·25 사변을 일으킨 것이야말로 천인이 공노할 흉악하고도 잔인한 행위로서 우리 민족은 물론 전 세계 자유국민에게 대한 용서 받을 수 없는 크나큰 죄과인 것이다. 이 전란 때문에 수백 만 동포의 귀중한 생명이 희생되었고 국토의 대부분이 황폐화했으며 미국을 위시한 참전 16개국의 장병중 상당수가 만리이역에서 하염없이 전장의 이슬로 사라져 버렸고 또 참전국과 그 외의 자유국가들의 물질적 부담도 적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이 사변 때문에 생긴 인적 물적 손실이 얼마나 컸던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6·25 사변 때에 직접 피해를 당했거나 이 사실을 목도(目睹)한 우리 국민들이 공산주의에 대하여 강력한 증오심을 품게 된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며 당시의 정부 역시 강력한 반공 정책을 썼으므로 남한 내에서는 공산주의자를 별로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6·25 사변에서 우리가 얻은 이득이 있다고 하면 이 때에 공산주의자들을 일소해 버린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인생이란 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잊어버리기가 일쑤 이어서 6·25 당시로 말하면 공산주의를 불공대천의 원수로 알아서 적개심이 불타듯 하였지만 그 후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적개심이 차츰차츰 희박해지게 되었고 또 6·25 사변을 경험해 보지 못한 청소년들이 성장하게 되니 자연 공산주의에 대한 증오감이 상대적으로 감소되었다는 사실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상태 하에 있을 즈음 4·19 혁명이 일어났으며 정국의 혼란을 계기로 해서 몇몇 혁신 세력이 나타나기도 했던 것이다. 이들 혁신 세력을 모두 공산주의로 볼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이 중에는 약간의 용공분자가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이러한 사태 하에서 일어난 5·16 군사혁명이 '반공을 국시의 제 1 의로 삼고'운운한 구절을 그 혁명공약 중에 삽입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다. 반공정책의 실천에 힘써 온 혁명정부의 뒤를 이은 제3공화국 역시 전과 같은 반공정책을 써야 할 것은 너무도 분명한 일이다. 다른 정책은 집권자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을지 모르나 반공 정책에

한해서는 누가 집권하건 어떠한 정부가 수립되건 절대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국민 각 개인의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또는 우리 조국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는 이 정책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공존을 말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지리적 역사적 제 관계로 보아 공산주의와의 공존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최소한 남북통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공산주의자들과 사생을 겨루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그러므로 제3공화국에 들어서서는 반공이라는 목표를 조금 전진시켜서 승공 즉 공산주의에 이겨야 한다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공산주의에 이길 수 있겠는가 문제될 터인데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야 할 것이다. 그 하나는 적극적인 방법인데 공산집단을 타도하여 우리에 대한 그 들의 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소극적인 방법인데 우리의 모든 실력을 증강시키는 반면 공산주의 힘을 상대적으로 약화시켜 공산주의가 차츰차츰 후퇴함으로써 자멸의 길을 밟게 하는 것이다. 첫째 방법은 시원스러운 일이지만 이에 는 무력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중대한 국제적인 관련을 갖고 있는 것이므로 그 실현이 용이치 못한 것이다. 더욱이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소련으로 말하면 그 국력이 미국과 견줄만하고 또 과학 특히 핵무기나 로켓 무기에 있어서 미국과 막상막하의 처지에 있으므로 알볼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 우리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공은 7억에 가까운 세계 제 1의 인구를 가지고 있어 역시 연하게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첫째 방법은 우리 단독으로는 도저히 실천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모든 자유우방들도 이 문제에는 매우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의 방법은 우리의 힘을 강화하는 동시 상대적으로 공산주의의 힘을 약화시켜 그들로 하여금 자멸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어느 때나 필요한 것이며 국제적인 분규를 일으킬 염려도 없는 것이다. 이것이 소극적인 방법이지만 현 정세 하에서는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국방력을 약화시켜서는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자들은 언제나 위협한 것이며 또 어느 때에 6·25와 같은 침략을 자행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국방력의 강화는 그들 집단을 타도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우리자신을 방위하여 안전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우리의 힘을 강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

제 3 공화국의 기록에서:
▲특집▼

익명

The Secret Name



임어당(林語堂)
하정옥(河正玉) 역(譯)

<제5회>

※ 소련대사연표(蘇聯大事年表)

I, 혁명기

- 1870년……레닌 탄생.
- 1879년 12월 21일……조지아의 고리에서 스탈린 탄생.
- 1894년……니콜라스 2세 황제에 즉위.
- 1895년……레닌 체포, 5년의 판결을 받고 시베리아로 추방됨.
- 1898년……사회민주노동당결성.
- 1900년……12월 21일 당의 기관지 <불꽃(BKPA)>를 창간, 레닌은 논설위원의 한 사람이었다.
- 1903년……사회민주노동당이 런던에서 제2차 대회를 개최. 이로 인해 당은 둘로 나누어졌다. 다수당인 볼셰비키와 소수당인 멘셰비키가 그것이다.
- 1904-5년……노일전쟁(露日戰爭).
- 1905년……1월 22일은 바로 혁명이 시작된 ‘피의 일요일’. 10월 20일서부터 30일까지는 발틱 해에서 흑해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스트라이크가 일어났다.
- 성(聖) 페테르부르크의 노동자들이 소비에트를 처음

가장 중요한 것 몇 가지가 있으니 그 하나는 우리의 경제를 발전시켜 생활을 유족히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것만 유감없이 잘 된다면 공산주의를 두려워할 것이 조금도 없는 것이다. 정치, 군사, 문화를 가릴 것 없이 경제적인 토대가 든든치 못하다면 제대로 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 다음은 국민 모두가 그 기본 자유를 향유하고 질서 있는 사회를 유지하는 것이다. 공산사회에도 질서는 있을 것이지만 자유라는 것은 찾아 볼 수 없는 것이다.

자유는 인류생활에 있어 생명 다음으로 존중하는 것이다. 생명만 있고 자유가 없을 때는 그 생존의 가치를 찾아보기 힘들 경우가 많은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우열을 분명히 가려 낼 수 있는 것이 자유가 있고 없는 점이라고 하겠다. 만약 민주제도를 자칭하면서도 국민의 기본 자유가 인정되지 못하는 국가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진정한 민주국가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첫 출발을 하게 된 제3공화국에서는 위에서 말한 바 국방의 강화와 경제적인 발전 향상과 국민의 기본 자유 확보와 사회질서의 유지 등 몇 가지 사항을 완수함으로써 공산주의에 이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세상일이란 언제나 기회보다도 준비가 더 필요한 것이다. 앞으로 기회는 얼마든지 있을 것이므로 준비를 게을리 해서는 될 수 없다. 그것은 기회가 오더라도 준비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88P 에서>

계몽 즉 교육의 보급, 교육수준의 향상은 민주정치 발전의 중요한 요소의 하나라고 말한바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구민주주의의 소화에 있어 직접정치를 담당하고 있는 이른바 지도층에 있어 권위주의적 일체의 언행이 불식되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우리 사회는 전통사회니만큼 지도층에 있는 사람 외 일거일동은 지대한 영향을 일반국민에게 끼치는 것이다. 이들이야말로 누구보다도 민주주의의 이념에 투철하여야 하며 그들 자신이 법을 운용하는 동시에 법을 지킬 줄 알아야 하며 만일 국민으로 부터 위탁받은 사항에 있어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일을 하였다면 주권자인 국민의 규탄을 받을 때에는 즉각 여하(如何)히 높은 자리라 할지라도 폐리(敝履)와 같이 벗어던질 단단한 각오가 있어야 할 줄로 믿는다. 즉 서구민주주의의 소화를 위하여는 특히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굳은 신념에 불타야 되고 스스로 민주주의적인 모든 방식의 선도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현실에 있어서는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와 같은 올바른 자세만큼 긴급한 일은 또 없을 것이다.

조직하여 스트라이크를 지휘하였던 것이다. 다음 10월 30일에는 니콜라스 2세가 국민의 자유를 부여. 12월에 레닌을 소환했다.

1906년……5월에서 7월 사이에 제 1차 국민의회 소집해산.

1907년……5월에서 7월 사이에 제 2차 국민의회 소집해산.

1907년~12년……제3차 국민의회 성립, 유산계급이 우세했다.

1912~17……제 4차 국민의회(1912년 11월~1917년 3월).

1910년……스탈린이 당의 활동자금 조달을 위해 티플리스 지방에서 은행을 터는 일에 관련하였다가 체포되어 시베리아로 유형 갔다. 막심 리트비노프는 도난금 수송의 죄로 체포되었다.

1912년……〈진리보(眞理報, Pravda)〉를 처음 발행.

1914년……8월 1일, 독일이 선전포고. 레닌은 제네바에서 제국주의 전쟁은 내란으로 변할 것이라고 주장.

1916년……요승 라스푸틴이 분격한 러시아 귀족들에게 암살되었다.

1917년……3월 8~14일에 3월 혁명 발생. 3~10월 사이에 임시정부가 수립되어 사회주의 혁명당, 멘셰비키, 볼셰비키를 다 이에 포함시켰으며 케렌스키가 이들을 영도했다. 그러는 사이 3월 15일에는 니콜라스 2세가 퇴위했고 3월 25일에는 스탈린이 돌아왔다. 7월 17일 페트로그라드에서 선원들이 반란, 레닌은 핀란드로 도피하였다가 10월에 몰래 귀국했다. 10월 23일 볼셰비키 당은 쿠데타를 계획, 드디어 11월 7일 페트로그라드에서 혁명을 일으켜 새로 볼셰비키 정부를 세우고 토지를 농민들에게 분배해 주었으며 경찰과 상비군은 완전히 해산시킬 것과 모든 관원은 인민들이 파면시킬 수 있고 노동자가 공업제도를 비난할 수 있을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국민의회의 소집은 약속만 했을 뿐 계획적으로 개회를 못하게 했다. 11월 25일 선거에 볼셰비키 당은 총수 3천 6백만 표 중에서 9백만 표, 사회주의 혁명당은 2천만 표를 획득하였다. 레닌은 철도노동자들의 연립정부를 수립하자는 요구를 거절. 리코프, 카메노프, 지노비예프 그리고 인민위원회 15인 중의 11인이 직위를 사퇴하고서 항의를 표시하며 ‘책임을 질 수 없는 정권을 세우고 혁명을 파괴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12월 20일 이후로는 체카(비밀경찰)를 만들어 사회민주당원에 대한 테러를 하기 시작했다.

1918년……1월 18일 체카 경찰은 국민의회를 해산 시켰다. 이튿날 레닌의 군대는 의회기념일을 경축하는 페트로그라드의 노동자들을 사살하여 막심 고르키의 분노를 샀다. 고르키는 “진리보(眞理報)가 거짓말을 한다……”고 비난했다. 3월 3일 볼셰비키가 군인의 사기를 떨어뜨린 뒤 그들은 브레스트-리토프스크 강화조약에 조인하고 토지를 할양해 줌으로써 독일과의 전쟁을 끝마쳤다. 여름으로 접어들자 체카의 테러는 더욱 심해져서 대대적으로 민주사회주의자(멘셰비키와 사회혁명당원)들을 잡아갔다. 또 정부는 노동조합까지도 흡수해버렸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파업의 권리마저 박탈당했다(제 1차 러시아 노동조합회의).

1918~20년……내란 - 백색테러, 적색테러 - 볼셰비키 당은 농민의 곡창을 점취(占取), 그들의 완전한 승리로 경제는 말할 수 없는 혼란 상태에 빠졌다.

1921년……2월에 스탈린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조지아에 침입. 2월 23일~3월 17일 크론스타트의 선원과 노동자들이 반란, 〈소식지(Izvestia)〉를 통해 감금되어 있는 노동조합 지도자의 석방을 요구했다. 이것은 체카에 대한 그들의 끊임없는 공포심이 왜 제정시대의 관헌에게보다 더한가를 가리키는 것이다. 트로츠키와 투카체프스키가 반란을 평정하고 노동자와 선원들의 가족을 그 인질로 데려갔다. 3월 8~16일 경제적인 혼란에 당면하여 제 10차 당대표 대회에선 자유농업시장의 개방을 선포하고 무역과 소규모적인 사유기업을 허용했다(신경제정책…NEP). 그러나 볼셰비키의 독재는 여전히 유지되었으며 당내 노동자 반대파의 제거가 역시 요구되고 ‘각 공장의 집중경영관리’를 찬성했다.

1921~2년……전반적인 혼란과 노동자의 생산의욕 저조로 대기근이 발생. 4월 3일의 제 11차 당대표대회에서 스탈린을 총서기로 선출하고 자유노동조합을 ‘과거 자본가의 유물’이라고 선언했다.

1922년……6월 8일, 사회혁명당의 지도자 22인이 심문을 받자 앨버트 아인슈타인, 막심 고 리키, 아나톨 프랑스 등 많은 사람들이 항의를 제출했다. 10월에는 무솔리니가 정권을 쥐는 한편, 12월 25일 레닌 발병(發病), 스탈린의 득세를 우려하여 유서를 써 두었다.

1923년……1월 4일 레닌은 그의 유서에 스탈린의

당총서기직을 파면시키라는 건의를 첨가, 1월 25일에는 <진리보(眞理報 Prauda)>에 스탈린을 공격하는 글을 발표했다. 3월 5일 또한 레닌은 스탈린이 자기 아내를 모욕했다고 하여 스탈린과의 동지관계를 단절하였으나 5월 8일 이후 레닌의 병은 더욱 악화되어 이때부터는 죽을 때까지 다시는 정사에 간여하지 못했다.

1924년……1월 21일 뇌일혈로 레닌 사망했다.

II, 반사회주의 반동기

1924년……트로츠키 실각.

1927년……12월 27일 제15차 당대표대회에서 스탈린이 대(對) 트로츠키 투쟁에 승리, 카메노 프와 지노비에프를 제거해 버렸다.

1928년……제 1차 5개년 계획(1928~1932)으로 집단화를 강행, 자작당, 부농(自作黨, 富農)의 토지를 박탈하고 산업의 공업화에 주력하였다. 이 5년 동안에 우크라이나 지방에서는 추방과 기근으로 인해 인구가 5백 만이나 감소되었다.

1929년……10월 22일 노동조합을 소멸시키자 조합장은 노동조합의 기능이 ‘공장협조(工場協助)에 있다고 규정하고 노동자들로 하여금 임금의 저락(低落)을 바라게 하였다.

1930년……9월 6일 노동명령은 산업 공장의 직업을 버리게 하여서 ‘산업기율을 위반’케 하였다. 11월에는 히틀러가 국회에서 107석을 획득하는 한편 12월 15일 당의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어리석은 파괴생산자(破壞生産者) 즉 한번 직장을 버려버린 사람들을 다시는 아무 직장에서도 쓰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1931년……1월 8일 노동명령을 발하여 임금장부를 만들게 하고 노동자들의 행동을 억압하여 1938년의 생산성적부(生産成績簿)의 선성(先聲)이 되었다. 한편 4월 12일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생산수준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큼을 발견했다.

1932년……11월 15일 노동법을 수정 발표했는데 제 47조에서 노동자가 무단히 하루 결근하면 당장 면직시키는 것은 물론 식량배급 카드를 압수하며 어느 계절을 막론하고 전 가족을 운반도구조차 주지 않고 공장 숙사에서 내쫓아 버린다고 했다. 12월 27일에는 노동명령으로 국내이주의 증명서제(證明書制)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노동조합은 스탈린 외 영도에 따라 임금의 불평등을 반대했다.

1932~3년……헛된 인력소모와 농민들의 가축 도살로 인해 인위적인 기근을 조성시키고 말았다.

1932년……스탈린의 젊은 부인이 우크라이나 지방의 기근에 대한 항의를 한 탓으로 피살되었다.

1933년……1월 노동조합장은 소속노동자들이 일반 노동자들을 도와서 ‘순수하고 간단한 노동조합주의’를 조성케 한 그들의 태도를 문책했다. 그리고 4월 6일 임금 저락(低落)을 반대하는 자들은 ‘계급투쟁의 적’으로 지적받았다. 특히 이 해 봄에 들어서서 더욱 더 임금에 대한 집단적인 담판(談判)을 금지했었다. 한편 독일에서는 히틀러가 1월 10일 총리에 취임하여 3월엔 이미 독재자가 되었으며 5월에는 노동조합을 손 안에 완전히 움켜쥐어 버렸다.

1934년……1월에 ‘불운의 제17차 당대표대회’를 소집. 1966명의 대표 중 1108명이 후에 숙청당하거나 실종되었으며 중앙위원 139명 중 98명이 대부분 1937~8년에 잡혀 총살되었다. 12월 1일에는 반(反) 스탈린파의 영도자인 키로프가 페트로그라드에서 스탈린의 독아(毒牙)에 피살당했는데 이 죄를 나중에는 카메노프와 지노비에프에게 덮어씌웠다.

1935년……1월 15~17일에 카메노프와 지노비에프가 반역죄 및 키로프 모살죄로 심문을 받았다. 한편 스타카노프 생산증진운동이 전개되어 이 운동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노동의 황홀경’ 혹은 ‘맹렬한 노동’ 또는 ‘정신이상적인 분발’의 쾌감(?)을 즐겼다. 제 7차 국제공산당대회에서는 각국에 인민전선의 책략을 실시하도록 명령하고 국제연맹과 합작할 것을 찬성, 각국에서의 자본가와 사회민주당에 대한 반대를 정지시켰다.

1936년……7월 프랑코가 스페인에서 전쟁을 일으켰다. 8월 19~23일 카메노프와 지노비에프가 두 번째로 심문을 받고 볼셰비키 당의 노(老) 당원 16명이 처결되었다. 동년 여름에는 시베리아로 추방되었던 톱스키 자살. 트로츠키는 압박에 못 견디어 노르웨이로 떠나고 히틀러 라인 지구로 진군해 들어갔다. 11월에는 신헌법이 통과됨.

1937년……1월 23~30일 피아타코프, 라데크 등 많은 사람들이 심문을 받았다(그들 17명 중 13명 총살됨). 이 한 해 동안에 볼셰비키 지도자들과 그들의 처자들 중에 자살하거나 실종되거나 한 사람이 수 없이 많다. 6월 12일에는 투카초프스키를 비밀리에 심문(9명의 장성급총살). 1934년 군사회위원이었던 80인이 거의 다 실종, 피살된 장교를 모두 합하면 무려 3만 명에 달한다.

1938년……3월 2~15일 리코프, 부카린, 야고다

를 심문, 리코프는 비분 끝에 사망했다. 거의 다 1937~8년 사이에 제17차 당 대표대회의원이었던 1966명중 1108명이 체포되고 중앙위원 139명 중 98명이 체포 총살되었는데 이것은 흐루시초프에 의한 것이다. 3월이 되자 히틀러는 오스트리아를 점령하고 다시 9월 30일 뮌헨 회의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자 12월 28일 노동 명령을 발하여 히틀러가 편성한 생산성적부(生産成績簿)에 따라 것을 지시하고 한 공장에서 6년간 일해야 비로소 사회안전복리를 얻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노동자가 30분간만 늦어도 자동적으로 1932년 11월 규정에 따라 처벌되었다.

III, 식민지 확장기

1939년……1월 1일에 노동부를 발행. 3월 15일에는 히틀러가 프라하에 진군하여 메멜을 점령하고 3월 31일에는 영·프가 폴란드에는 공격을 받지 않으리라고 보증한 바 있으나 8월 23일의 스탈린과 히틀러 협정으로 인해 제이차대전의 싹이 트기 시작하여 드디어 9월 1~17일에 폴란드 침입, 대전은 폭발하고 말았다. 이후 10월 10일에 이르기까지 모로토프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와 우호조약을 맺고 이상 3국에 소련이 진주하기로 했다. 그러나 핀란드가 소련과의 우호조약에 불응하자 스탈린은 11월 29일 47개 사단의 병력과 3천 대의 비행기, 일군의 탱크 부대를 이끌고 핀란드에 침입했다.

1940년……2월에 나치·소비에트 무역협정을 맺고 스탈린은 석유와 곡물을 나치군에 공급했다. 3월 12일 핀란드는 카렐리안 지협(地峽)과 항고 해군기지를 소련에 할양하고 히틀러는 4~6월 사이에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를 공격. 그 사이 스몰렌스크 가까이 있는 카틴 숲에서 만여 명의 폴란드인 포로(장교와 지식인들)를 학살하기도 했다. 6월 26일에는 노동명령을 20분 간의 지각도 범죄로 취급하여 2~6개월의 처형을 내리며 복역 기간의 입금은 25퍼센트를 감하고 물론 사회복리를 상실시키며 숙사에서 축출해 버리기로 규정했다. 게다가 7월 22일 노동명령의 조례로서 사보타지(20분간 지각)의 징벌방법을 점심식사 전후의 이석(離席) 시간에만까지 적용키로 했다. 8월 3~6일 침략의 마수는 드디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3국을 합병시켰다. 8월 20일 트로츠키 멕시코에서 암살

당하고, 9월 27일 베를린, 도쿄, 로마 추축(樞軸) 결성.

1941년……생산법규를 정하여 노동시간 초과 및 지각의 방지를 위한 관리자 측의 인원증가 요구를 거절. 4월 13일 스탈린 일본과 불가침조약 체결. 6월 22일 히틀러 소련에 침입. 8월에는 처칠과 루즈벨트 대서양헌장(大西洋憲章)에 조인.

1945년……2월에 알타회담. 3월에 스탈린이 폴란드의 지하운동 지도자 16인을 초대해가지고 체포했다. 5월 8일에는 드디어 독일이 항복하고 6월 25일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국제연합헌장을 제기. 7~8월에 포츠담회담에서 스탈린은 점령 하에 있는 동구(東歐) 각국에 자유선거를 실시하고 공민의 권리와 정부를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했다. 8월 6일 역사적인 히로시마 원폭 투하가 있자 8월 8일 소련은 일본에 선전포고, 8월 10일에 일황 히로히토 항복조건의 접수준비(接受準備)를 선포, 8월 14일 항복했다. 1946~8년 공산당은 먼저 동구(東歐) 각국의 반대당 후보자를 체포하고 허위선거를 실시한 뒤 다시 각국의 정권을 빼앗았다. 열거하면

동독 : 1945~6년 공장을 파괴하고 신문을 억압하며 허다한 사람들을 숙청한 뒤 - 1946년 4월에 소위 ‘자유선거’를 실시.

폴란드 : 1947년 3월에 대표 천 백 명을 또 11월에 3백 명을 더 체포한 뒤 - 1947년 1월에 ‘자유선거’를 실시.

체코슬로바키아 : 1947년 가을 비밀경찰은 각종의 공포 수단에만 종사하다가 - 1948년 2월 선거도 없이 정변을 일으켰다.

헝가리 : 1946~7년 소농민(小農民) 당(黨) 지도자들을 체포 또는 유괴하여 추방한 뒤 - 1947년 8월에 ‘자유선거’를 실시.

불가리아 : 1946년 여름 농민당(農民黨) 지도자 반수 이상을 감옥 또는 수용소에 가둬 놓고 - 동년 10월에 ‘자유선거’를 실시.

루마니아 : 1945년 공산당은 경찰과 법원을 억압 - 1947년 12월에 국왕 미카엘로 하여금 왕위를 내놓게 하였다.

1947년……9월 15일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 3국과 우호 및 상호협조조약을 맺어 사회적 경제적 제도의 불변을 약속했다.

1948~9년……이 때를 전후하여 스탈린은 각국에 식민정부를 세웠는데 1948년 11월 25일 체코슬로바키아에, 4월 13일 루마니아에, 7월 22일

세계인권선언 <부록>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 제 3회 총회서 채택>

전문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과 평등하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승인함은 세계에 있어서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인 고로, 인간의 무시와 경모(輕侮)는 인류의 양심을 침파(侵破)한 야만행위를 야기시켰으며 또한 인간이 언론 및 신앙의 자유와 공포 및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할 세계의 출현은 일반 인민의 최고의 원망(願望)으로서 선언되었던 고로, 인간이 전제와 압박에 대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반역에 호소하지 않을 수 없게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라면 인권은 법의 지배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은 긴요한 것인 고로,

각 국가 간의 우호관계의 발전을 촉진함은 긴요한 것인 고로,

국제연합의 제 국민은 기본적인 인권 인신(人身)의 존엄성 및 가치, 남녀동권(男女同權)에 관한 신념을 헌장에 있어서 재확인하며 또한 가일층(加一層) 큰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함을 결의한 고로,

가맹국은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세계적인 존중 및 준수의 촉진을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달성할 것을 서약한 고로, 이와 같은 권리와 자유에 관한 공통의 이해는 이 서약의 완전한 실현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고로, 따라서 이에 총회는 사회의 각 개인 및 각 기관이 각 가맹국 자신의 국민 간 및 가맹국의 관할 하에 있는 지역의 국민 간에 있어서 이와 같은 권리와 자유와의 존중을 교육 및 교화에 의하여 촉진할 것, 또한 그 세계적이고 유효한 승인과 준수를 국내 및 국제의 점진적 조치에 의하여 확보하는데 이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을 항상 염두에 두고 노력하게끔 모든 국민과 모든 국가가 달성할 공통의 기준으로서 이 선언을 포고한다.

▲제1조 자유평등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자유이며 존엄과 권리에 대하여 평등하다. 인간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며 동포의 정신으로써 상호간 행동하여야 한다.

▲제2조 권리와 자유의 향유에 관한 무차별 대우

① 누구든지 인종, 피부의 색, 성, 언어, 종교, 정치상 혹은 그 밖의 의견 국민적 혹은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그 밖의 지위 등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본 선언에 게시되고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또한 개인의 소속 국 또는 지역이 독립지역이든가 신탁통치지역이든가 그의 어떠한 것의 주권제한 하에 있음을 불문하고 그 국가 또는 지역의 정치상 관할 상 또는 국제 상의 지위에 따르는 어떠한 차별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폴란드에, 8월 11일 불가리아에, 그리고 1949년 2월 1일 헝가리에, 10월 11일 동독에 각기 세웠고 이 외에도 알바니아, 조지아, 우크라이나,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몽골이 있다. 그들 중에는 원래부터의 독립민족도 많다. 이와 같이 발틱 3국과 핀란드의 카렐리안 지협(地峽)과 항구를 포함하여 20개국이나 된다.

IV, 봉괴기

1953년……3월 5일 스탈린 사망, 말렌코프가 총리에 취임. 6월이 되자 체코슬로바키아에서 파업이 일어나고 또 베를린에서 일어난 파업은 동독 전역에 퍼졌다. 이해 여름 베리아 피살. 7월 11일~8월 1일 보르쿠타(시베리아) 광산에서 파업이 일어났다.

1955년……2월 8일 말렌코프 물러나고 4월 18일 나기 실각과 함께 헝가리에서 추방되었다. 5월에 흐루시초프가 티토에게 사과를 표하고 7월에 제네바 회담이 열렸다.

1956년……2월 12~25일 제 20차 당대표대회에서 흐루시초프는 스탈린을 살인자이며 음모가라고

<151P로 계속>

◇ 핵금(核禁) 條約과 흐루시초프

흐루시초프가 핵금(核禁) 조약에 조인한 이유는 무엇일까?

해리만 씨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 ① 소련도 미국이나 영국과 같이 핵전쟁을 회피해야만 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40년 동안이나 고생해서 쌓아 올린 이른바 '영광에 충만한 혁명'을 핵전쟁으로 무로 돌리고 싶지는 않다는 것.
- ② 미국과 동일한 입장에서 방대한 핵무장 경비를 소비재산으로 전용하고 싶다는 것이다. 군비의 비생산성은 미국에 있어서도 커다란 문제이지만 국민의 총생산이 미국의 절반도 안 되는 소련에서는 보다 더 큰 문제다.
- ③ 중공에 대한 문제이다. 흐루시초프는 마오쩌둥을 억압하고 싶어 하고 있다. 소련이 핵금(核禁) 조약을 체결하면 중공은 반대한다. 세계 공산국은 물론 중립국도 전쟁을 주창하는 중공을 비난할 것이며 따라서 소련을 지지하기 때문이다.

▲제3조 생존 자유 신체의 안전

누구든지 생존 자유 및 신체의 안전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제4조 노예의 금지

누구든지 노예 또는 고역(苦役) 하에 억제되지 아니한다. 어떠한 형식의 노예 및 노예매매도 금지한다.

▲제5조 비인도적인 대우 또는 형벌의 금지

누구든지 고문 또는 잔학한 비인도적인 혹은 불명예스런 대우 혹은 형벌을 받지 않는다.

▲제6조 법 앞에 있어서 인간으로서의 승인

누구든지 법 앞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향유한다.

▲제7조 법 앞에서 있어서의 평등

모든 인간은 법 앞에 있어서 평등하며 또한 여하(如何)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향유한다. 모든 인간은 본 선언에 위반하는 어떠한 차별에 대하여서도 또한 어떠한 차별의 어떠한 교사(敎唆)에 대하여서도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향유한다.

▲제8조 기본적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누구든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하는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한 있는 국내재판소에 의한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를 향유한다.

▲제9조 체포 구금 또는 추방의 제한

누구든지 전단적(專斷的)으로 체포되며 구금되며 또는 추방되지 않는다.

▲제10조 재판소의 공정한 심리

누구든지 그 권리 의무 및 자기에 대한 형사상의 고소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독립적인 공평한 재판소에 의한 공정한 공개심리를 완전히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향유한다.

▲제11조 무죄의 추정 죄형법정주의

① 누구든지 형사범죄의 고소를 받은 자는 자기의 변호에 필요한 모든 보장이 부여된 공개의 재판에 있어서 법률에 의하여 유죄라고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향유한다.

② 누구든지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국내법이나 국제법에 의해서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로 말미암아 형사범죄에 관해서 유죄 판결되지 않는다. 또한 당해 형사범죄가 행하여진 때에 적용될 형벌보다 중한 형벌을 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사생활 명예신용의 보호

누구든지 사사(私事) 가족 가정 혹은 통신에 대한 전단적(專斷的)인 간섭 또는 명예 및 신용에 대한 공격을 받지 않는다. 누구든지 이러한 간섭 또는 공격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향유한다.

▲제13조 이전과 거주

① 누구든지 각국의 경계 내에 있어서 이전 및 거주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누구든지 자국을 포함한 어떠한 국가로부터도 퇴거하며 또는 자국에 귀향할 권리를 향유한다.

▲제14조 박해

① 누구든지 박해로부터의 보호를 타국에 있어서 구하며 또한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이 권리는 비정치적범죄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 및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부터 진실히 야기되는 소송의 경우에는 원용할 수 없다.

▲제15조 국적

① 누구든지 국적을 보유할 권리를 향유한다.

② 누구든지 전단적(專斷的)으로 국적이 박탈되며 또는 그 국적을 변경할 권리가 부인되지 아니한다.

▲제16조 혼인과 가정

① 성년의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의한 어떠한 제한도 받음이 없이 혼인하며 또한 가정을 이룰 권리를 향유한다. 성년의 남녀는 혼인 중 및 그 해소(解消)시 혼인에 관한 평등한 권리를 향유한다.

② 혼인은 배우자로 될 의사를 갖는 자와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만으로써 성립된다.

③ 가정은 사회의 자연스럽고 기본적인 집단 단위이며 사회 및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향유한다.

▲제17조 재산

① 누구든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향유한다.

② 누구든지 그 재산을 전단적(專斷的)으로 박탈당하지 않는다.

▲제18조 사상, 양심, 종교

누구든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 또는 신념을 변경할 자유 및 단독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또는 공사(公私)로 교육, 행사, 예배 및 의식 집행에 의하여 그 종교 또는 신념을 표명할 자유를 포함한다.

▲제19조 의견발표

누구든지 의견 및 발표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기의견을 가질 자유 및 모든 수단에 의하여 또한 국경을 불구하고 정보 및 사상을 구하며 받고 또한 전할 자유를 포함한다.

▲제20조 집회(集會) 결사(結社)

① 누구든지 평화적인 집회(集會) 및 결사(結社)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누구든지 결사(結社)에 속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제21조 참정권(參政權)

① 누구든지 직접적으로 또는 자유로이 선출되는 대표자를 통하여 자국의 통치에 참여할 권리를 향유한다.

② 누구든지 자국에 있어서 평등하게 공무에 취할 권리를 향유한다.

③ 국민의 의사는 통치 권력의 기초로 되어야 한다. 이 의사는 정기(定期)의 진정한 선거에 의하여 표명되어야 한다. 이 선거는 평등한 보통선거에 의하여야 하며 또한 비밀투표 또는 이와 동등한 자유로운 투표절차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제22조 사회보장

누구든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향유하며 또한 국가적 노력 및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또한 각국의 조직 및 자원에 응하여 자기의 존엄성과 자기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실현할 권리를 향유한다.

▲제23조 노동의 권리

① 누구든지 노동하며 직업을 자유로이 선택하며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을 얻으며 또한 실업에 대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향유한다.

② 누구든지 아무런 차별 없이 동등의 노동에 대하여 동등의 보수를 받을 권리를 향유한다.

③ 노동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인간의 존엄성에 적합한 생활을 자기 및 가족에 대하여 보장하며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사회적 보호수단에 의하여 보충되는 공정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향유한다.

④ 누구든지 그 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노동조합을 조직하며 또한 여기에 가입할 권리를 향유한다.

▲제24조 휴식여가

누구든지 노동시간의 합리적인 제한과 정기적 유급휴가를 포함한 휴식 및 여가를 얻을 권리를 향유한다.

▲제25조 생활의 보장

① 누구든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적 시설을 포함한 자기 및 가족의 건강 및 복리를 위하여 충분한 생활수준을 향유할 권리 또한 실업, 질병, 능력 상실, 배우자의 상실, 노령(老齡) 또는 불가항력에 의한 그 밖의 생활 불능의 경우에 보장을 받을 권리를 향유한다.

② 어머니와 어린이는 특별한 보호 및 원조를 받을 권리를 향유한다.

모든 아동은 적출(嫡出) 여하를 불문하고 동일한 사회적 보호를 향유한다.

▲제26조 교육

① 누구든지 교육을 받을 권리를 향유한다. 교육은 적어도 초등 또는 기초적 단계에 있어서는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 교육 및 직업교육은 일반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하며 또한 고등교육은 능력 본위로서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개방되어야 한다.

②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존중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 및 인종적 또는 종교적 단체 간에 있어서의 이해 관용 및 우호관계를 증진하며 또한 평화유지를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③ 부모는 아들에게 부여할 교육의 종류를 선택할 우선적 권리를 가진다.

▲제27조 문화

① 누구든지 자유로이 사회의 문화생활에 참여하며 예술을 향락(享樂)하며 또한 과학의 진보와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한다.

② 누구든지 창작한 과학적 문학적 또는 미술적인 제작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무형 및 유형적 이익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향유한다.

▲제28조 사회적 국제적 질서

누구든지 이 선언에 제시된 권리 및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및 국제적 질서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제29조 사회에 대한 의무

① 누구든지 인격의 자유 및 완전한 발달이 가능한 사회에 대하여서만 의무를 부담한다.

② 누구든지 권리 및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타당한 승인 및 존중을 보장할 것과 민주적 사회에 있어서의 도덕공공질서 및 일반의 복지의 타당한 요구를 충족할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에만 복종하여야 한다.

③ 이 권리 및 자유는 여하(如何)한 경우에도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여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 권리와 자유에 대한 파괴적 활동

여하(如何)한 국가단체 또는 개인이 이 선언에 게시되어 있는 권리 및 자유의 어떠한 부분을 파괴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는 행위를 수행할 어떠한 권리도 이 선언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일구이언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지난번 대(對) 중공 공개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말할 나위도 없이 만일 제국주의자들이 전쟁을 도발한다면 각국의 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을 멸망시키고 말 것이다. 이것은 의논의 여지조차 없다’

그런데 동 위원회는 중공을 반박하는 성명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느 편이든 전쟁을 도발하는 자는 자신을 포함한 전 세계 30억 인류를 지구상에서 소멸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은 논의할 여지조차 없다’

여기서 우리는 소련 공산주의자들의 일구이언을 뚜렷이 볼 수가 있다. 전쟁이 일어난다면 지구에는 사람의 그림자가 없어지고 마는데 그들이 말하는 이른바 제국주의자를 누가 소멸시킨단 말인가?



제3제국의 흥망(요약)

W·R·샤이어 저(著)

〈제5부의 하(下)〉

승리와 패배 (下)

4월 6일 새벽 압도적으로 우세한 독일군은 기갑병단의 총력을 기울여 그리스와 유고에 엄습하고 급진격을 개시했으며 공군은 사전에 무자비한 폭격으로 적군을 약화시켰다.

벨그라드는 히틀러의 지시대로 지붕 높이로 비행하는 폭격기에 의해 3일 간에 땅에 말라 붙어버렸으며 1만 7천의 폭사자(일반시민)와 다수의 부상자를 내고 폐허화되었다. 예하 지휘관들이 이렇게도 효과적으로 명령을 시행한 데 해 히틀러는 대만족이었다.

아직도 28개 사단이나 남은 잔존 유고군은 17일에 항복했으며 6개월간의 전투에서 이탈리아 군에게 굴욕적인 패전을 강요해온 그리스군은 4개 사단의 기갑사단을

포함한 15개 사단의 독일군 앞에 굴복되었다. 무솔리니가 온 겨울 동안에 걸쳐 실패만 거듭하던 것을 히틀러는 봄날의 몇 일 동안에 깨끗이 해치웠다.

히틀러가 서투른 무솔리니의 아픈 가시를 뽑아준 것은 발칸 한곳뿐이 아니었다.

리비아에서 이탈리아군이 섬멸 당하자 히틀러는 마땅치 않으나 경장갑 1개 사단과 약간의 공군부대를 북아프리카에 보낼 것에 동의하고 독·이 동맹군의 총지휘를 롬멜 장군이 맡도록 했다. 롬멜은 용감하고 기력이 풍부한 전차대 장교로서 시레나시아에 기습을 가하였으며 12일도 못되어서 이집트 국경 불과 몇 마일 지점인 바르디아에 도달하고 중동 및 이집트의 영군(英軍)을 위협하게 되었다.

영국에 대한 승리에서 의기양양한 히틀러는 이것으로서 영국이 얼마나 타격을 받고 절망적인가를 깨닫지 못했다. 그리하여 그는 중동과 이집트에서의 이점을 활용하지 않고 또다시 그는 관심을 소련으로 돌렸던 것이다. 히틀러는 그의 전략을 이렇게 말했다.

“장차 수에즈운하에 공격을 가하고 궁극적으로 영국을 지중해와 페르시아만 중간지역의 현 위치에서 몰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하는 점은 바르바로사 작전이 완료될 때 까지 결정지을 수 없다.”

소련문제가 최우선적이고 기타의 문제는 2차적이라는, 그의 견해는 그릇된 판단이었다. 당시 히틀러는 그의 병력의 일부분만 가지고도 영국을 치명적으로 강타할 수 있었을 것이었다. 그러나 히틀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소련정복은 당초의 계획보다 짧은 시간에 완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 나폴레옹을 패주시킨 러시아의 동장군이 앞을 가로막고 말 것이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일찍이 서방측에서 한 번도 정복하지 못했던 광대한 지역을 불과 6개월 동안에 점령하여야만 했다. 6월에 남동의 유고 및 그리스에 있는 대군대를 포장도 되지 않은 도로와 남아빠진 단선철도로서 멀고 먼 거리를 소련국경까지 서둘러 수송했다

이리하여 6월 22일 일요일 아침 히틀러의 장갑 기계화된 무적불패의 군대는 대거 소련국경을 넘어 밀려들었다. 소련군은 전 전선에서 전술적으로 기습공격을 받았으며 불과 몇 일도 지나지 못하여 몇 만이라는 병사가 포로 가되고 소련의 전군은 순식간에 포위당해 버렸다.

정세의 전환

1941년 초가을에 접어들어 히틀러는 대(對)소 전쟁이 끝장이 난 것으로 믿었다. 발틱해로 부터 흑해에 이르기까지 2천 마일의 전 전선에 걸쳐 독일군은 예정계획대로 진격

을 했으며 점점 더 자신을 얻은 히틀러는 9월 말경에는 보병 40개 사단을 해체하여 그 노동력을 공업에 사용하는 준비를 갖추도록 지시하기 까지 했다.

소련의 2대 도시, 레닌그라드와 모스크바의 함락이 눈앞에 다가온 듯하였다. 히틀러는 9월 18일에 레닌그라드 또는 모스크바가 설사 항복을 하더라도 수락할 수 없다고 엄명을 내리고 2대 도시의 존재는 지구표면에서 말살해 버리도록 지시했다.

“이 도시들을 송두리째 명도(明渡)해 주겠다는 신청은 거부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주민의 생명을 구하고 이들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또 하여서는 안 되는 문제이다.”

10월 3일 히틀러는 베를린에서 소비에트의 붕괴를 선언했다.

“나는 오늘 선언한다. 동방의 적은 타도되며 결코 다시 일어서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히틀러의 이러한 자만은 지나친 과대망상에 불과했다.

6월 22일에 기습공격을 받은 소련군은 퇴각하다가 최정예부대의 일부를 잃기는 했으나 7월에 접어들면서 그들은 점차 완강한 저항을 시도했으며 필사적인 저항으로 독일군에 중대한 손해를 주었다. 소련은 히틀러가 상상하던 바 이상의 훌륭한 장비를 갖추고 있었으며 신예 사단을 끊임없이 전투에 투입했다. 헬더 장군은 당시 일기에 이렇게 적고 있다. ‘적의 사단병력을 대개 200으로 산정하고 있었으나 이미 적은 360개 사단을 투입한 것이 확인되고 있다. 한 다스를 분쇄하면 소련은 또 다시 새로이 한 다스를 투입한다.’ 그때까지 독일에서 소련에 관하여 발표한 사항은 년센스가 많았던 것이다.

독일군 최고사령부에서는 7월에 최초의 전략에 관한 커다란 의견 대립이 생겼다. 이에 히틀러는 많은 장군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기가 전단을 내리기로 했다. 그들은 포획의 목표를 모스크바에 두느냐 또는 레닌그라드와 우크라이나에 두느냐에 대해서 대립하고 있었으며 장군들은 모스크바가 군수생산의 사회적 존재일 뿐 아니라 운수교통의 중심임을 히틀러에게 지적했다. 그러나 히틀러는 우크라이나의 식량지대와 공업지구 그리고 코카서스의 유전에 탐욕적인 눈독을 들이고 있었으며 8월 21일에 반항적인 참모본부에 새로운 지령을 내려 히틀러는 자기고집을 관철했다.

소련남부에 대한 공격은 9월 26일 66만의 포로를 투입함으로써 부분적으로 끝장이 났다. 이것은 히틀러에게는 ‘세계 사상 최대의 전투이며 실로 경이적인 성과였다.’ 그러나 그곳에서 독일군은 2개월이나 답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장마철이 다가와서 소련의 도로는 수렁이 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 다음에는 겨울, 극한 그리고 눈이 계속될 것이었다.

모스크바 진격

마지막 히틀러는 장군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모스크바 진격 재개에 동의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고 있었다. 남부전선의 장갑부대를 재정비하여 전선에 투입하기에는 10월 초순까지 걸렸다.

10월 2일 비로소 대공세가 개시되었다. ‘태풍’으로 불리는 동 작전은 모스크바 전면에서 최후의 전투부대를 섬멸하고 소련을 봉괴시키도록 되어 있었다.

나폴레옹이 옛날에 진군한 바 있는 도로를 따라 진격하는 독일군의 위세는 최초에는 질풍과 같았다. 10월 20일 독일군은 모스크바 40마일 지점에 까지 도달했으며 그곳의 소련정부 및 외교사절들이 허둥지둥 불가 강의 쿠비세프로 철수했다. 독일의 헬더 장군은 날씨가 좋고 지휘만 대담하게 하면 러시아의 혹독한 추위가 오기 전에 모스크바를 점령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던 것이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진흙수렁의 계절이 되었다. 차량으로 이동하는 대군은 스피드가 느려지고 때로는 부득이 정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제야 말로 꼭 같은 모스크바의 길을 더듬던 나폴레옹군대의 비참한 운명이 독일장군들의 머리를 어지럽혔다.

폭설과 영하의 기온이 소련을 엄습했으나 동복장을 갖추지 못한 독일군에서는 중태의 동상환자가 속출했다. 맹렬한 추위는 사람뿐 아니라 장비에도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11월 그믐, 눈보라 치는 혹한에 싸여서도 히틀러와 그의 많은 장군들은 모스크바가 곧 수중에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모스크바 외 남, 서, 북의 삼면에서 독일군은 목표로부터 불과 2, 30마일에까지 도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최후의 얼마 안 되는 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히틀러는 생각했다. 그의 군대는 승승장구 500마일이나 진격해 왔던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최후의 30마일에 불과했다. 최후의 한번만 더 분발하면 승리할 것 같았다.

소련의 심장부에 대한 총공격은 1941년 12월 1일로 결정되었다. 전선에 집결된 공전의 대전차부대는 강철같은 저항에 부딪혔다. 12월 2일 독일군의 정찰대대가 크렘린을 바라볼 수 있는 히프키에 돌입했으나 저항군에 의해서 다음날 아침 격퇴되었다. 그것이 독일군이 크렘린을 바라보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었다. 12월 4일 모스크바의 기온은 영하 31도로 내려갔으며 다음날에는 다시 5도가 더 내려갔다. 모스크바를 포위하여

반원을 그린 200마일 전선 전역에 걸쳐 독일군은 저지당하고 있었다. 1941년 중에 소련의 전투능력을 분쇄한다는 희망은 이제 막다른 골목에서 허물어져 버렸다.

다음날인 12월 6일 소련군은 전면 200마일에 걸쳐 100개 사단으로 돌진해왔다. 모두가 깊은 눈 속에서의 전투를 위한 장비를 갖춘 백전연마의 군대였다. 히틀러가 상상도 못했던 이 강대한 반격군은 독일군을 강타했으며 제3제국은 끝내 그 타격으로부터 재기하지 못했다. 12월과 1월에 걸쳐 퇴각하는 독일군은 흡사 130년 전 패주하여 눈보라 속을 헤매는 나폴레옹의 군대와 같았다. 이러한 독일군의 완전체멸을 막은 것은 후퇴를 불허하는 히틀러의 강철같은 결의와 독일군인의 강인한 성격이었다. 그러나 실패는 너무 컸다. 2년 간 패전을 모르고 싸워온 독일군은 이제 비로소 우세한 적군 앞에서 퇴각하고 있었다. 독일육군의 불패의 신화는 사라지고 말았다.

모스크바 전선에서 소련군의 반격이 개시된 다음날인 12월 7일 일요일 지구의 다른 편에서는 커다란 사건이 일어났다.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한 것이었다. 히틀러는 일본에 엄숙한 비밀약속을 주고 있었으며 이제 그것을 지키느냐 또는 파기하느냐를 결정할 시기가 닥쳐온 것이다.

히틀러의 대미선전포고

1941년 12월 7일 일요일, 상오 7시 30분, 진주만에 대한 일본의 기습은 워싱턴과 마찬가지로 베를린에도 뜻밖의 공격이었다. 히틀러가 일본의 대미전쟁에 참전할 것을 구두로나마 일 외상 마쓰오카에게 약속하였건만 일본은 독일 측에 말 한 마디 없이 기습을 감행했으며 또 당시 히틀러는 소련에서 허둥지둥 퇴각하는 장군들을 수습하기에만도 부담이 너무 벅찼었다.

그러나 일본의 기습공격은 히틀러가 그때까지 즐겨 사용하던 방법이었으므로 히틀러는 이를 찬탄하고 일본 대사에게 “그대들은 올바른 방법으로 선전포고를 했다. 그 방법이 유일의 적절한 방법인 것이다.”하며 기뻐했다. 그리고 히틀러는 일본에게 준 구두 약속을 지킬 것을 즉각 결정했으며 12월 11일 하오(下五) 2시 30분 정식으로 미국에게 선전을 포고했다.

히틀러 및 나치즘을 비난하고 그들의 U보트에 대해 공공연히 전투적 행위를 감행하는 미국에 분통을 터뜨려온 히틀러는 일본의 참전은 선택된 시기만 보아도 우리들에게는 특별한 값어치가 있다고 히틀러는 미국의 전쟁 잠재력을 과소평가하고 또 동시에 일본의 군사력을 턱없이 과대평가하고 있었다. 히틀러는 이어서 말했다.

“러시아의 추위가 뜻밖에 빨리 왔기 때문에 독일국민의 사기는 여지없이 놀린데다가 아메리카의 참전은 머지않아 필연적인 것이라고 믿어져 의기가 꺾여 있었다. 따라서 일본의 개입은 우리들의 입장으로 보아 가장 시기에 적합한 것이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영국만을 상대로 전쟁을 하며 승리에 득의양양하던 히틀러는 이제 세계 최대의 3대 공업국을 상대로 싸우게 되었으며 군사력이 주로 경제력에 의존하는 전쟁을 하게 된 것이다. 더욱이 이들 3개국의 인적 자원은 추축국들의 그것을 훨씬 능가하건만 히틀러와 그의 장군들은 냉엄한 현실을 고려하지도 않았다.

1942년 2월 20일 경 발틱 해에서 흑해에 이르는 소련군의 공세는 멈칫해 쳤다. 3월 말에는 깊은 진흙탕의 계절이 시작되어 피투성이 전선은 비교적 평온하여졌다. 그 해의 동계작전을 통해서 독일군은 무서운 손해를 입고 있었다. 162개 사단 중 공세 가능한 사단은 8개 사단에 불과했으며 16개 기갑사단의 전체 사용가능한 탱크 수는 1개 사단의 상비수도 못되는 140대에 불과 했다.

독일군대가 휴식하며 재군비를 하는 동안 히틀러는 다가 올 하계공세계획을 세우는데 바빴다. 만약 코카서스의 석유가 손에 들어오지 않으면 전쟁은 그만 두어야 한다고 히틀러는 생각했다. 독일군에게는 전차, 비행기, 자동차를 움직이는 석유가 절실히 필요했던 것이다. 또,

한. 구멍투성이의 군대를 보충시킬 병력도 필요했다. 히틀러는 루마니아, 헝가리 등의 군대를 끌어모으고 이탈리아에게도 부대의 소련 진출을 호소했다.

1942년 여름 추축국에게는 최초의 행운이 닥쳐왔다. 북아프리카의 롬멜은 5월 27일에 공세를 재개하고 6월 말에는 나일의 삼각주에서 65마일 되는 엘 알라메인에 들어가 있었으며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다. 그 때 롬멜은 전차 겨우 13대를 가지고 그곳에 도착했으며 이를 보충하여주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소련전선에서 좌절된 히틀러는 이를 거절했다. ‘우리의 전력은 사라졌다’고 롬멜은 7월 3일의 일기에 적었다.

여하튼 1942년 여름 히틀러는 다시한번 세계의 정점에 있는 듯이 보였다. 독일의 U보트는 한참 번성하는 미국, 캐나다, 스코틀랜드의 조선소에서도 보충해낼 수가 없는 월 평균 70만 톤의 영·미 선박을 격침하고 있었다.

9월 말 경 히틀러가 정복한 지역을 지도에서 보면 기절할 정도로 광대했다. 북극에서 이집트까지, 그리고 대서양에서 중부 아세아 주변까지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외관상의 영광도 사실은 상처투성이였다. 히틀러가 강제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할 병력, 장비 및 수송수단이

스탈린그라드와 코카서스에의 진격은 차츰 더 강해지는 소련군의 저항으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었다. 10월 한 달을 통해서 스탈린그라드 시내에서는 격렬한 시가전이 벌어지고 있었으며 독일군은 터무니없는 손해를 내면서 한 건물에서 다음 건물로 조금씩 진출했다. 새로운 독일군 사단이 차례로 투입되어 대번에 산산조각이 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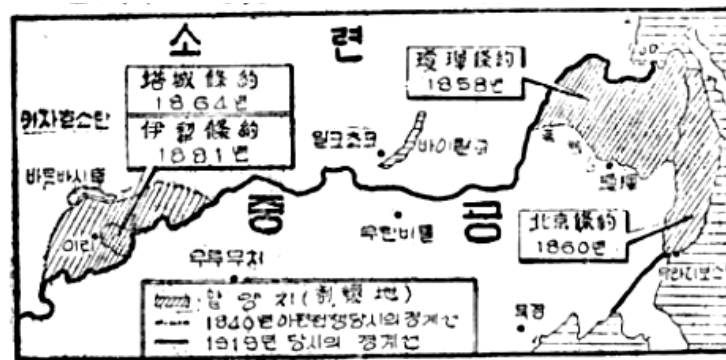
이집트의 영국군은 오랫동안 고대하던 병력, 전차, 대포, 비행기의 강력한 증원을 받았으며 '사막의 여우'라고 불리어지던 롬멜은 공세를 중지하고 9월 3일 수세를 취했다. 그리고는 비엔나의 산중으로 병기를 떠났다.

로템은 히틀러에 복종하여 섬멸을 감수할 것이냐 불연이면 철수하여 잔존병력이나나 살릴 것이냐 망설였다. 10월 4일 밤 사태가 더욱 악화되자 하는 수 없이 군법회의에 회부될 것을 각오하고 부대를 건져내기 위해 철수할 것을 결심했다. 얼마 안 되는 장갑 부대를 구출하는 것이 고작이었으며 그로부터 15일 간에 600마일 후방인 뱅가지 까지 후퇴했다.

스탈린그라드의 비운

연합군이 북방에 상륙하던 날 엄청난 규모의 소련군은 레닌그라드 북서쪽에서 추축국 전진을 돌파했다. 독일군 20개 사단과 루마니아군 2개 사단이 포위되었으며 히틀러에게 퇴각을 요청했다. 이번에도 히틀러는 분통을 터뜨리며 이를 거부하고 진지를 사수할 것을 명령했다. 장병은 굶주림에 지치고 부상병은 치료를 받지 못하며 동사자가

「근대중국약사」(1954 간행)에 게재된 문제의 지구(地區)



-군사적 문제를 중심으로-

지난 7월 5일부터 7월 20일까지 모스크바에서 개최되었던 소·중공 간의 이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양국 회담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고 더욱이 3개국의 부분적 핵실험 금지조약 조인으로 말미암아 소·중공 양국 간의 관계는 결정적으로 악화되고 말았다. 오늘날 세계의 대세에 역행하여 전쟁 불가피론을 주창하며 독자적인 노선을 걷고 있는 중공 자체 내의 모순을 은폐하기 위하여 장차 어느 지역에서 어떠한 행동을 감행할 것인가를 주로 군사면에 치중하여 중공의 핵무기 개발, 국경분쟁 등 여러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1. 군사적 면

소·중공관계를 악화시킨 잠재적인 원인의 하나로서 군사문제가 개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석하여 보면 중공은 자기의 힘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사실, 대만해협과 중·인 국경지방에서 소련의 의도에 반대하는 행동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 또 월남의 공산화를 도모하기 위한 월남 게릴라전 확대, 충동이 이를 억제하려고 하는 소련의 냉전정책과 미묘한 형태로 대립되고 있는 사실 등을 들 수 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중공의 핵무기 계획의 진척과 동남아 지역에 대한 정책의 강화에 따라 소·중공 관계는 필연적으로 더욱 더 미묘한 대립점을 이룰 것임에 틀림없다. 돌이켜 보건대 중공군의 근대화는 주로 한국동란 이래 소련의 군사원조로 이루어진 것인바 육해공군을 막론하고 그 주요장비는 모두가 소련의 원조로 장비된 것이다. 즉 육군은 1959년경까지 구식장비의 육군부대중 약 반수(80여 개 사단)가 근대화되어 소련제의 장비로 무장되었으며 해군 역시 그 주력을 소련의 원조에 의하여 장비했는 바 신식함정은 전부 소련제이거나 또는 소련의 부속품을 사용하여 국내에서 조립한 것이다. 특히 잠수함 30척 중 20척은 소련이 제공한 것 이고 10척은 부속품을 도입하여 국내에서 조립한 것이다. 공군은 한국동란 이후 2천 대 이상의 제트기로 무장한 현대적 공군으로 발전하였는데 장비의 대부분은 소련의 원조에 의한 것으로 그 중에는 IL-28, MIG-19, MIG-17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한편 1958년 9월에 상하이에서 4인승 중공제 수상기(비룡호)가 조립되고 동년 10월에는 발동기 이외의 부속품이 모두 중공의 최초 제트연습기의 제작을 가능케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또 제트군용기의 일부가 소련으로부터 제공된 부속품에 의하여 중공에서 조립되었으며 기타 레이더 등 전자기기도 최근 광범위하게 확충되었는데 그 대부분이 소련에서 공급된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소련의 원조는 1959년 이래 소·중공관계의 악화로 점차 중단하기 시작됨으로 인해서 오늘날 중공 은 군 근대화면에서 막대한 지연을 초래하게 되었다. 1957년 당시 중공 국방부 훈련총감부장은 1962년에는 군의 근대화가 일정한 단계에 도달되고 1967년에는 무기의 완전자급이 가능하다고 떠들어 댔다. 그런데 60년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중공군의 근대화에 대한 보도는 전혀 볼 수 없었다. 이 사실은 소련의 기술자 철수 등과 관련하여 군 사원조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겠다.

오늘날 중공은 소련의 원조중단으로 말미암아 반신불수의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특히 탱크, 함정, 항공기 등은 보충용 부속품 공급이 두절되면 그 가동률이 급속히 저하하게 된다. 즉 61년부터 진먼(金門), 마쭈도(馬祖島) 방면에 중공 공군기나 함정(어뢰정 포함)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이를 증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30여 척을 보유하고 있다는 중공 잠수함이 거의 활동한 형적을 보이지 않고 있음은 소련이 제공만하고 그것을 전력화 하는데 필요한 원조를 충분하게 해주지 않고 있음에 기인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만일 제트기의 부속품 등을 중공이 자급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군용기의 대부분은 수년 이내에 가동할 수 없는 정도로 소모되어 버릴 것 이다. 항공기는 보수하지 않으면 연 10%의 비율로 소모한다. 국방문제에서 살펴보면 오늘날과 같이 양국 간의 대립관계가 더욱 악화됨에 따라 1950년에 소·중공 양국 간에 체결된 군사동맹도 장차 어떻게 변천될 것인가 의문시되고 있다. 오늘날 소련은 중공에 제공하지 않은 MIG-21형(型) 제트기를 인도나 쿠바에 제공 하고 있는 바 이 역시 소·중공대립의 한

국면이라고도 보여지는 바이는 오로지 소·중공대립이라는 문제에 국한된 것이라기 보다도 중공의 세력팽창에 소련이 겁을 내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은 제국에 대한 소련의 무기공급 정책과 아울러 중공군의 활동에 큰 제약을 가하고 있는 것은 석유문제이다. 62년도 현재 중공이 연간에 소비하는 석유(중유, 휘발유 포함)는 약 600만 톤으로 추정되는데 그 중 400만 톤이 국내 생산으로 가능한 바 국내 생산은 주로 크라마이를 중심으로 한 신장성(新疆省) 및 동북 지구에 있는 송료평원(松遼平原)이 주산지로 되고 있는데 그 현황을 보면 크라마이는 수송로가 멀어서 여러 가지 난점이 있고 옥문(玉門)은 이미 고갈 상태에 빠진 심정 하에서 부족량을 충족시키기 위한 석유 증산은 지난(至難)한 것으로 보인다. 그 실례로는 60년도 중공 목표량이 520만 톤이었으나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필요량의 삼분의 일에 해당하는 약 300만 톤은 자연히 소련의 원조로서 보충해야 하는 것이나 이미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소련의 원조 중단으로 오늘날에는 인접국인 인도네시아, 홍콩 등지를 이용하여 교묘한 방법으로 입수하고 있는 실정이나 그 부족량 충족에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따라서 군사 활동 중에도 큰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한국동란이 시작되기 전 소련은 비밀리에 북한 지역에 300만 톤의 석유를 저장하였다고 하는데 그 저장량은 1년의 작전행동에 의하여 소모되어 버렸고 결국 그 후 석유 저장량의 고갈에 의하여 공산측은 그 활동력을 상실하여 전선이 마비 상태에 빠지게 되자 휴전이 실현되었다는 설도 있다. 오늘날 중공은 소련의 원조중단으로 항공기 연료 및 윤활유 부족에 직면하고 있는 바 방공기의 가동률은 현저히 저하되었고 조종훈련시간은 월 8~10일로 부터 2~3일로 단축되었다는 설도 전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중공은 대(對)소 관계의 악화로 군사면을 위시한 제반 원조의 중단 및 감소로 군사적 활동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제반 난관을 극복할 것인가 하여 소위‘자립경제의 확립’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제반 경제정책을 재정비하는 한편 제 3차 5개년 경제계획(63년-67년)을 수립하여 경제의 전면적 재정비로 제반부문에서 타국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소련의 원조중단에 의하여 중공은 경제부흥면을 비롯하여 군사면에서도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이상 중공은 장차 소련과의 관계를 더 이상 악화시키거나 소련의 군사원조가 전면적으로 중단될 그러한 정책은 취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 핵무기의 개발

소·중공이 대립된 원인의 하나는 소련이 중공에 대한 핵무기의 양도를 거부할뿐만 아니라 중공의 핵무기 개발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공은 자력에 의한 핵무기의 개발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돌이켜 생각하건대 이미 55년 4월에 소·중공 간에는 원자력 평화이용 원조협정이 체결된 바 있고 소련의 원조계획에 따르는 최초의 원자로가 58년 6월 북경에 설치되었으며 그해 9월에 시동(始動)을 보았다.

그러나 그 후 소·중공 간의 관계가 악화되자 소련 기술자 철수 등으로 부진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데 최근 보도에 의하면 중공은 1~2년 이내에 핵실험을 실시할 것이라고 하며 중공 과학원장 곽말약(郭沫若)은 북경에서 개최된 모 집회에서 “소수국(小數國)의 핵독점은 오래 계속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연설하여 1~2년 후의 핵실험을 뒷받침하였다. 중공은 58년도에 이미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에 대한 의사를 발표하였으며 또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사실에 자극되어 핵무기 개발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즉 58년 5월 공군 사령관인 유아루(劉亞樓)가 처음으로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 의사를 해방군보의 논문 중에 발표했고 58년 8월 중공이 진먼(金門), 마쭈도(馬祖島)를 공격하였을 당시 흐루시초프가 중공에 대한 핵무기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시사, 59년 당시 국방부장 이었던 펑더화이(彭德懷)가 군사사절단을 인솔하고 소련을 방문하였을 때 핵무기의 양도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으며 소·중공 대립으로 소련의 핵무기 양도는 물론 핵개발에 비협조적이었다. 또 60년 소련은 중공의 핵무기 생산 계획이 이외로 대규모적인 것을 알고 4월에 중공에 파견하였던 기술자 1300여명을 본국에 소환하였다. 이러한 제반점에서 중공은 독자적인 핵개발에 더 한층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과연 중공이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규모는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오늘날 중공은 4개처에 원자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즉 북경 교외에 위치하고 있는 실험용 원자로(58년 9월에 시동된 소련원자로로서 열출력 7,000~10,000KW 연간 3킬로의 플루토늄 생산 가능)와 선양(瀋陽), 충칭(重慶), 시안(西安)에 위치하고 있는 3개 원자로이다. 그 외에 우한(武漢)에도 가지고 있다(미 해리만 국무차관보 언명(言明)는 설이 있다. 그리고 원료로 사용되는 우라늄 광산은 신장(新疆), 시장(西藏), 쓰촨(四川)성에서 채굴되며 우루무치 부근에 우라늄 광산을 정련하는 공장이 있다. 중공은 이러한 규모 하에서 과연 1~2년간에 핵실험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북경 원자로에서 생산되는 플루토늄에 기타 원자로에서 생산되는 양을 더한다면 실험에(필요한 양 - 히로시마, 나가사키급 이면 6킬로로 충분)를 훨씬 초과한다는 것이며 한편 63년 3월 경에는 체코로부터 기폭장치의 일부가 도착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 보아 중공이 능히 핵실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반면 핵실험이 곤란하다는 설도 있다. 즉 60년 4월에 소련 기술자 철수와 아울러 많은 중요설비와 물자공급이 소련으로부터 중단되었고 또 현재의 중공경제력으로 볼 때 핵폭발에 필요한 시설, 기구, 생산비용 등등 중에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만일 강행한다면 국민의 부담이 가중하다는 것이다.

그 외에 또 곤란한 문제로는 이러한 원자로에서 사용되는 핵연료는 소련으로부터 공급된 것으로서 그 재(灰)는 협정에 기초하여 단연코 소련에 반환해야 한다하며 원자로 안에서 생긴 재(灰)로부터 플루토늄을 채취하여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면 핵연료나 원자로는 자국의 것이 아니면 안 된다. 따라서 중공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생산하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되며 중공의 기술수준을 잘 알고 있는 자유중국 측에서는 3년~5년이라는 시일이 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하 간에 중공이 핵실험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바 핵실험 강행과 그 효과는 나변(那邊)에 있는가를 또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제반 악조건 하에서 무리하게 핵실험을 강행하려고 하는 중공의 의도는 군사적 의의보다도 심리적 효과를 더욱 노리자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일 중공이 핵실험을 실행하였다 하더라도 군사적 가치는 극히 적으며 작전규모로 개량하려면 다 시금 5년, 중공군이 수복으로 장비하려면 또 다시 5년(핵실험 후 수복장비까지 10년)이 필요하다고 미국전문가는 말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급히 서두르고 있는 중공의 저의는 심리적 및 정치적 효과에 국한될 것임이 명백하다. 즉 자유중국 및 주변 아세아 제국과 아프리카 및 중남미 제국에 대한 발원권강화와 그 역량을 과시하려는 저의, 진먼(金門), 마쭈도(馬祖島)에 장치한 핵탄두 국사포에 대항하는 무기를 보유하겠다는 저의와 소련과 대등한 방위력 유지라는 욕구를 조금이라도 만족시키고 동시에 미 군사기지에 포위되어 언제 핵공격을 받을지 모르는 불안감을 떨치는 의도로 분석되는 바이다. 중공은 또 IRBM생산도 중시하고 있는바 간쑤성(甘肅省) 란저우(蘭州)에 IRBM 연구실험소를 설치하고 발사장도 건설하였다는 설이 있다. 그리고 그를 연구하는 중심인물은 제이차대전 중 미 공군의 고문이었으며 로켓의 대가인 천세쎄(錢學森)이라고 한다. 이상 말한 바와 같이 소·중공 대립의 격화는 중공 당국자의 자력에 의한 핵개발 결의를 점차 굳게 하여 주고 있다.

3, 국경분쟁

다음으로 역시 도외시할 수 없는 문제는 소·중공 국경분쟁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미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데올로기 논쟁으로 야기된 쌍방 간의 대립은 양당 간의 대립으로 또 양국 간의 대립으로 발전하였는데 이것이 항쟁까지로 그 자태를 변한다고 한다면 과거의 역사에서 수많은 분쟁을 야기하였던 국경문제가 중요문제의 하나로 대두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영토문제는 이미 소·중공 논쟁 안에 나타나고 있다. 즉 중공은 흐루시초프가 쿠바에서 소위 제국주의에 타협하였다고 비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흐루시초프는 중공도 대만, 홍콩, 마카오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박하였다. 중공 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지난 3월 8일부 사설에서 다음과 같이 흐루시초프를 반박하였다. 소련이 대만, 홍콩, 마카오 등 문제를 제기한다면 중공도 이 기회에 제국주의에 의한 중국 침략의 역사를 논해야 하겠는 바 중국혁명이 승리를 가져오기까지 약 백여 년 간 미, 영, 프, 독, 일과 제정 러시아 등 제국주의는 중국을 침략 협박하여 많은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였다. 중공이 성립한 오늘 우리는 역대의 구(舊) 중국정부와 외국정부 간에 체결된 조약을 밝혀 인정, 폐기, 개정, 재체결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이에 있어서는 사회주의에 대한 정책과 제국주의에 대한 정책은 근본적으로 상위(相違)하다. 우리는 일관하여 조건이 성숙한 후에 회합을 통하여 현상을 유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한 바 있거니와 소·중공 관계가 악화한다면 국경 문제도 종래와는 다른 각도로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오늘날

인도와외의 국경문제, 네팔과의 국경조약, 파키스탄과의 국경조약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중공이 소련과의 국경문제를 도외시할 리는 없다.

중공이 대륙에서 정권을 장악하기 전에 스탈린은 중공수뇌부를 청하여 외부는 붉으나 내부는 희다고 평한 바 있다. 마오쩌둥 정권이 스탈린의 지령을 어기면서 독자의 농촌해방 방식을 취하여 혁명에 성공한 후 당분간은 소·중공 간에 제휴가 계속되었으나 양국 간의 상이한 역사적 전통과 환경 하에 불가피하게 오늘과 같은 대립이 표면화 하였던 것이다. 소·중공 간 역사를 들쳐보건대 제정 러시아 시대의 로마노프 왕조가 시베리아에 진출을 꾀하였던 3백여 년 전부터 중국의 청조 정부와의 사이에는 얼마간의 논쟁이 벌어졌는데 청조가 성황(盛況)했을 시기에는 북은 외흥안령(外興安嶺)을 국경선으로 정하고 현재의 시베리 아가 모두 중공령에 속하여 있었다.

이제 문제점으로 예상되는 소·중공 간의 국경을 살펴보면 약 7,200킬로로 세계에서 첫째를 헤아리는 긴 국경이다. 구(舊) 중국과 제정 러시아와 관계가 있는 것은 네르친스크 조약 - 1689년에 현 시베리아의 대부분을 점하는 외흥안령(外興安嶺)을 국경선으로 확정(청조 성황기). 쇠리(衰頹)조약 - 1858년 5월 러시아가 극동 진출을 도모한 시기, 흑룡강 연안에 있는 아이훈(愛琿)에서 체결된 조약으로 흑룡강(黑龍江) 이북을 러시아에 할양하였다(청조 예퇴기(衰退期)) 베이징조약 - 1860년에 체결된 조약으로서 아이훈(愛琿)조약과 텐진(天津)조약을 보완한 조약이며 현재의 몽고와 소련 간의 국경 및 신장 방면의 국경도 추가하여 확정하였다. 그리고 연해주를 할양하였는 바 러시아는 이때 태평양 연안에 항구를 얻어 '볼라디보스토크(東方征服)'항이라고 명명하였으니 이것이 오늘날 극동 지역을 위협하고 있는 소련 해군의 본거지이다. 이리(伊犁)조약 - 1881년에 체결된 조약으로서 이에 의하여 중공은 신장(新疆) 지방의 영토를 러시아에 할양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54년 베이징에서 발행된 지도에 1840년 이래 소위 제국주의 세력에 의하여 지역별로 세밀하게 기입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제정 러시아에 할양된 지역도 내포하고 있다. 이제 소련과 접경하고 있는 지역의 중공 인민의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현재 소련과 접경하고 있는 중공 지역 즉 신장 지역에 중공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중공의 각 성 자치구 중에서 최대의 면적을 점유하며 인구는 약 564만 명이고 13개 민족(위구르, 카자흐, 우즈베크, 타지크 등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가장 많은 것이 위구르 족으로서 전 인구의 74%를 점하고 있다. 이 위구르 족은 중앙 아세아의 토이기 계의 혈통과 문화를 고수하며 중공의 소수 민족 중 가장 취급 곤란한 민족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지역 인민들은 중공의 소수민족 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즉 소련은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가맹 공화국에 헌법을 제정하고 외교관계를 설정하며 군대를 보유케 하는 등 비교적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반하여 중공은 지방행정 외에 공안부대를 조직하는 정도의 권한을 부여하며 생활수준도 소련에 비할 바 없이 저급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에 불만을 느끼고 있는 등 지역 인민들은 반 중공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62년도에

는 5-7만 명에 달하는 중공 유목민들이 소련의 카자흐 공화국으로 피난한 사실들이 있었다. 이 외에도 1957년에는 동투르키스탄 공화국, 위구르 공화국을 설립하기 위한 반란이 일어났는데 수 개월 후에 진압되었고 60년 6월에는 신장성 소련령에 가까운 이닝(伊寧)과 타칭(塔城) 양 성에서 카자흐, 위구르, 우즈베크족 등 회교도가 집단으로 소련영사관에 밀려들어 반란을 위한 무기원조를 회구(希求)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그 후도 이들은 계속 반란을 전개한 후 다수가 소련령 내로 도주하여 소련으로부터 대환영을 받은 바 있다. 그리고 신장성 회교도들은 교량, 도로의 파괴, 석유채굴 방해 등을 계속하여 국경지구에서 격전이 벌어졌는데 소련은 이들에게 무기 까지 원조하였다. 이와 같은 빈번한 처사에 대하여 중공 당국은 62년 이닝, 타칭 외 신장에 있는 5개 소의 소련 영사관을 폐쇄하는 조치를 취했고 신장자치구에 소련인 출입을 엄중하게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리고 난신철도(蘭新鐵道) 란저우, 우루무치 경유 소련의 도르구시브 간의 건설 공사도 중지하였다고 한다. 한편 소련으로서도 U-2기와 같은 비행기를 사용하여 중공에 대한 정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이탈리아 콘티넨탈 통신보도) 중공의 군사적 전략적 가치 면에서 이 지역을 보면 크라마이의 유전과 두산쯔(獨山子), 위문(玉門)의 정유공장은 중요한 기지일 뿐 아니라 중공은 장차 일대공업지대를 설치하여 핵개발의 주요기지로 건설할 의도로 계획 중에 있다. 이상의 사실에서 볼 때 소·중공 관계의 악화로 이러한 국경문제가 복잡, 곤란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로서 과연 이러한 단계에까지 이룬다면 소·중공 관계 나아가서는 공산권 내의 동향이 미묘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4, 결론

이상과 같이 소·중공회담이 결렬된 이후의 중공동향을 군사적면에 치중하여 핵심적 국경 문제 등으로 구분하여 두서없이 논하여 왔는데 과연 중공의 강경한 태도는 장차 국제정세를 여하히 변동시킬 것 인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로 중공이 이후 계속 강경책으로 일관한다 하더라도 당분간 전면전쟁의 도발 가능성은 희박하다. 왜냐하면 전면 전쟁의 사전예방조치로서 미·소간에 이미 직통전화 가설되어 개통을 보았고 부분적 핵군 협정이 조인되었으며 흐루시초프가 시사한바와 같이 미·소 수뇌회담 개최 징후가 농후함으로써 소련은 서방세계와 접근할 것을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중공이 세계를 상대로 독자적인 전쟁을 야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중공은 변경지방에서 당분간 국지전 위기를 조성할 것이 예상된다. 즉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중공은 소련원조 중단으로 경제체제를 재편하는 현 단계에서 식량난과 유류난에 직면하는 등 제 부문에서 국내적 불안이 고조되어 가고 있어 이러한 국내적 불안의 해소책으로서 변경지역 침공에 이목을 집중시키자는 의도이며 또 하나로서는 소련의 서방진영 접근에 대한 반발로서 변경지방을 침공하여 중공 당의 이념인 전쟁불가피론을 입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로 중공은 대(對)소 비난정책을 전환하여 양국관계가 이 이상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며 사회주의제국의 환심을 얻어

중공 측에 흡수하려는 기도를 도모할 것이 예상되는데 그러기 위하여는 이 데올로기에 의한 국가 간의 대립으로부터 호루시초프 개인의 공격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이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넷째로 중공이 행동 가능한 국지전 도발 지역으로서는 중·인 국경분쟁, (금년 추동기가 위험) 월공 사수하의 월남 내 게릴라전 확대, 라오스 친공파 원조로 공산국 성립, 북괴를 사수하여 휴전선 일대의 충돌을 빈번화함으로써 한국 전후방의 군·민 사기 및 민심 교란으로 국내불안을 조성시키며 국토통일을 위한 대만 침공 등이 예상된다.

상기지역 중 중공이 어떤 지역을 택하여 공세를 취할 것인가 중·인 국경에는 이미 13개사단을 투입했다는 보도도 있어 가장 위험한 전쟁도발 지역으로 보이나 이 지역에서의 전투는 유류난으로 중공의 항공작전 수행이 거의 불가능하게 될 것임에 대규모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편 중공의 대만침공은 대만해협을 철통같이 방위하고 있는 미 제7함대로 말미암아 당분간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중공이 군사행동을 취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는 월남인 바 월공의 호치민(胡志明)을 사수하여 월남 내의 게릴라전을 계속 강화하여 중립화를 기도할 것이 예상된다. 현재 정도의 게릴라전이라면 경제력을 소모할 걱정도 없고 보급물자 등은 월공 자신이 조달되는 정도로 가능하기 때문인 바 소련의 원조를 바랄 필요도 적으며 라오스의 산악지대를 통행하는 사람들을 이용한 보급 루트를 확보하여 월남에 있는 공산 게릴라에게 물심양면의 보급을 계속한다면 중공은 적은 희생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따라서 국제 정세면에서의 큰 변동은 없을 것 같다.

이상의 여러 가지 사실을 종합하여 보건 데 중공이 최근 취한 일련의 행동으로 인하여 국제정국의 큰 변동은 당분간 초래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24 P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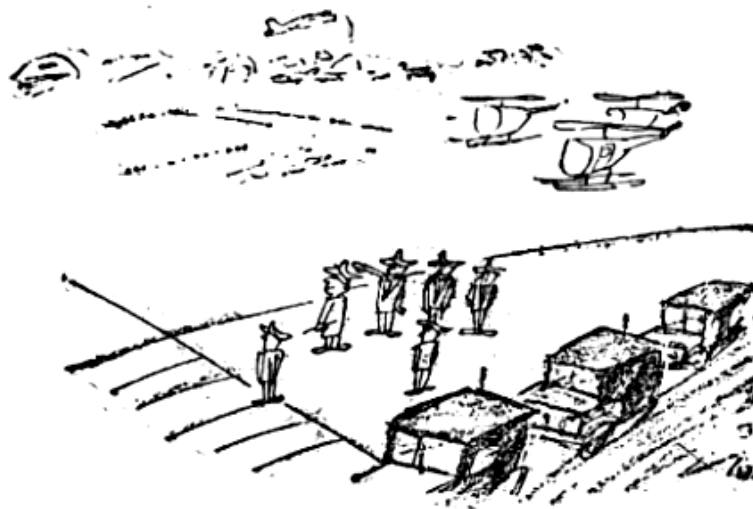
한마음 한뜻으로 새나라 꽃피우자

속출하고 있는 상태를 아무리 설명하려 해도 히틀러는 외면하기만 했으며 계속하여 고집을 부렸다. 지쳐 버린 그곳의 독일군에게 소련군은 관대한 조건으로 항복을 요구했으나 히틀러는 여전히 거부했다.

1943년 1월도 그름이 가까울 무렵 이곳의 역사적인 전투는 촛불이 진하여 꺼지듯이 끝장이 다가왔다. 2월 2일에는 24명의 장군을 포함하는 동상과 굶주림으로 지쳐버린 9만명의 독일군 병사들은 영하 24도의 추위 속에 펄딩이가 묻은 담요를 걸쳐 쓰고 시베리아 포로수용소를 향하여 얼음과 눈 위를 한없이 끌려가고 있었다. 그것이 2개월 전 28만을 헤아리던 궁지 높은 정복군의 전부였다. 스탈린그라드는 영미군의 북아(北阿) 상륙과 함께 독일군 최대의 패배였으며 이차세계대전의 전기였고 이로서 히틀러의 손에서 빠져 나간 이니셔티브는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만화로 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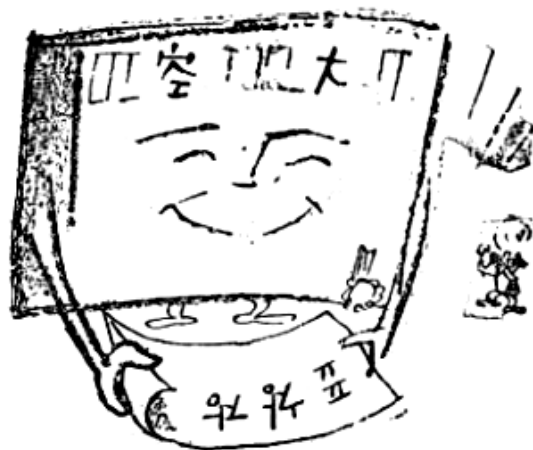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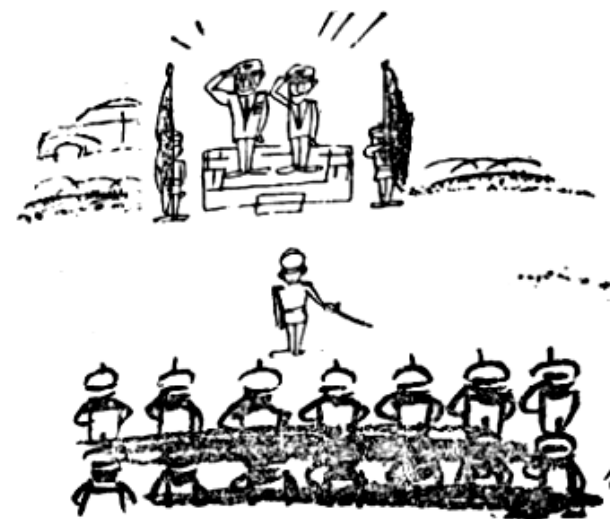
국가재건최고회의 박(朴)의장 10전비단(戰飛團) 시찰(1.18)



T-33 엔진 및 F-86D, H-19 헬리콥터
기체 창정비(廠整備)에 성공(3.18, 6.20, 10.5)



삼군 최우수 교육부대로 공대(空大)를 표창(2.12)



미 공군참모총장 르메이 장군 내한(4.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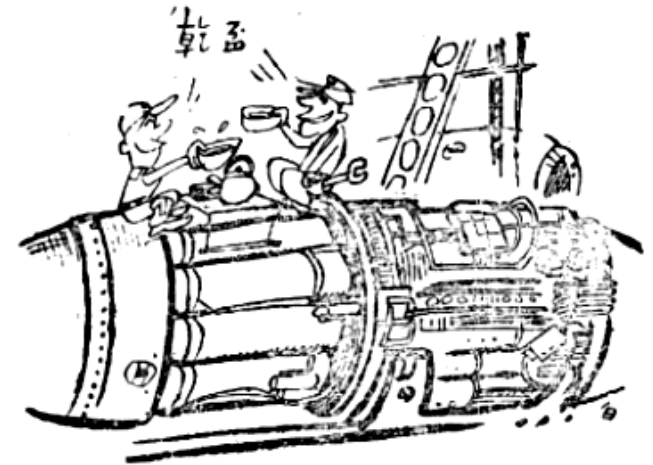
63년도 플라잉 브라더스에서 제 1위(4.26)



공군과학자문위원회 설치(7.30)



미 항공기 국내 창정비(廠整備) 계약(7.1)



F-86 엔진 수명 1,000시간 돌파(7.5) 및 T-28 엔진 수명 860시간 기록(8.8)



제1전훈비단(戰訓飛團)서 33,000시간 무사고 비행기록수립(8.22)



건군 15주년 기념 에어쇼(10.2)

오키나와를 다녀와서

<기행문> (상)

강신봉(姜信鳳)



(1) 오키나와란 곳

우선 오키나와로 보면 동경 127 통과하고 있는 조의 섬으로 태평양 단에서 대만 사이는 화 산도 이다.

큰 물결이 한 번 휩쓸면 그대로 묻혀버릴 가냘픈 도서인 것도 같다. 오키나와 본도는 제주도 보다 조금 더 크며 울릉도만큼씩 한 섬들이 몇 개 있고 나머지는 아주 작은 섬들이다. 이곳의 전 인구는 미국인을 포함하여 백 이십만 정도로서 오키나와의 주민이 약 백만, 미군과 그 가족들의 수가 이십만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기후는 아열대 적 해양성이나 몬순의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와 같이 계절풍이 불고 있다. 여름철에는 북회귀선이 바로 옆을 통과하므로 대단히 덥고 태풍이 많으며, 겨울에는 얼음이 얼지 않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여름철 못지않게 비가 많이 온다. 연중 습도가 팔구십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와 같이 맑고 살기 알맞은 습도의 기후 밑에서 살던 사람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당히 불편을 느끼게 되는 때가 많다. 겨울철이라야 12월에서부터 2월까지인데 우리나라의 가을 날씨 정도이므로 동복을 착용하는 기간은 대단히 짧다.

오키나와 주민들의 경제면을 생각해 본다면 이차대전 전만 해도 아주 미개해 있었는데 근래에 미군이 점령한 이래로는 상당한 발전을 하여 지금은 우리보다도 훨씬 윤택한 생활을 하고 있다. 생산이라고는 농업과 약간의 수산업뿐인데 농업으로는 남부 지대의 사탕수수와 북부 산악지대의 쌀 및 파인에 폴 등의 열대성 과일이 있을 뿐이다. 원래 화산도이므로 땅은 그다지 비옥하지 못하나 일기가 더우므로

를 지도상의 위치도 북위 26도선이 그마한 사십 여개 서안, 일본의 서남에 흩어져 위치하여 짜면 태평양의

쌀은 2모작을 할 수 있으며 사탕수수는 이년간 성장한 후에 거두고 있다.

도회지의 주민들은 주로 외국인을 상대로 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사면이 바다이므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다. 생선이 미약한 이곳 주민들의 경제는 주로 미국인을 상대로 한 직업에 의존되고 있으며 약간의 중계 무역에도 관계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경제가 완전히 신용적이고 확고한 체계 밑에서 운영되어 가고 있으므로 비교적으로 볼 때에 크게 발전할 수는 없어도 안전한 상태인 것이다.

정치적으로 오키나와의 형태를 살펴보면 좀 이상하게 되어 있다. 오늘날 미국의 한 영토처럼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주민들 자신에 의한 자치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외교권과 오키나와 전반에 관한 중대결재권만은 미군정 사령관이 장악하고 있어서 정치적 외교만은 간섭을 받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곳을 오로지 군사적으로만 이용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밖에 경제, 문화, 교육 등의 모든 부문은 주민들 자신의 자치를 허용하는 것이다. 정부 체제는 우리와 같이 삼권분립이며 수석이 있고 그 위에 미군정 사령관이 있다.

이곳 주민들의 종족을 따져 본다면 키가 작고 거무스름한 오키나와 본토인이 약 팔십 퍼센트, 일본인이 약 십오 퍼센트, 중국인 및 그 밖의 혼종이 약 5퍼센트 정도이다. 인종적으로 볼 때에는 별로 매력을 느낄 수 없지만 성격적으로 보면 너무도 친절하고 온순하며 인정이 많아서 외국인들로부터 상당한 신뢰를 받고 있다. 모든 생활 정신은 일본 그대로를 모방해 나가고 있으므로 어쩌면 일본의 한 지방에 온 기분이 든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과 하루속히 합병되기를 고대하는 이곳 주민들은 일본 국기를 그대로 게양하고 있으며 언어에 있어서도 오키나와 방언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일본의 교과서 그대로를 교육시키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오키나와는 한 때 중국의 지배를 받기도 했었으나 16세기경에는 찬란한 오키나와 왕국을 건립하였었다. 그러다가 일본의 침략을 받아 근대 및 백년 간 일본의 영토였었는데 이차대전 후에 미군이 점령하여 극동의 군사적 본산지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주민들은 미국 정부의 퇴거와 일본의 합병을 고대하고 한때는 데모까지 실시했었지만 공산, 민주의 세계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리 쉽사리 뜻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이곳 주민들의 임금 및 물가를 고려해 볼 때에 우리와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 미군 부대의 운전수가 보통 70불 정도를 받고 고등학교에 갓 취직한 교원의 봉급이 50불 정도였다. 물가는 대체로 교통비를 제외한 서비스의 가격은 비싸며 그 외의 상품은 20-30퍼센트쯤 싼 편이다. 교통비는 기를 값이 대단히 헐 하므로 서비스가면서도 상당히 싼 셈이다. 교통망은 자동차뿐이며 해외로는 배와 비행기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빈번하다.

다음으로 오키나와 주민들의 교육제도를 살펴보자. 협소한 나라이므로 그 규모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으나 대단히 자유롭고 평화적이며 점차적으로 실용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 같았다. 제도는 우리와 같이 6334 제도인데 어디를 가도

남녀 공학으로 되어 있어서 남녀간의 신비적 감정을 느끼게 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 있다. 이성간의 교제는 아주 자연스러우며 연애 감정은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애당초 개방적이며 확실한 교육을 하는 것 같았다. 대체로 이곳 학생들은 일본식이면서도 오키나와로서의 전통적인 젠틀맨쉽을 지키므로 사춘기적 사고나 교제에는 상당히 스스로의 신중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고등학교라야 열다섯쯤 되며 대학은 슈리(首里), 오키나와, 류큐(琉球)의 셋이 있을 뿐, 대학원 과정은 일본 등지로 유학을 하고 있었다. 국민학교까지 의무 교육이며 그 이상의 학교는 자비로 하게 되어 있다. 장학 제도는 대단히 빈약하며 대학을 마치면 일본, 미국 등지로 유학 가는 학생의 수도 상당히 많은 모양이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을 떠날 때만 해도 일본 및 오키나와 사람들이 영어를 상당히 잘할 줄로만 생각되었었는데 막상 가서 보니 영어에는 아예 한국인이 우수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학술적인 서적을 잘 읽는 사람도 회화에는 아예 질색인 모양이다. 그러한 언어적 장벽이 있어서 그런지 이곳 주민들과 미군과의 관계는 직업적인 관계 이외의 정신적 관계의 융합에는 아주 탄관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주민들은 하오리, 게다 같은 일본식 풍을 그대로 지키고 있으며 도저히 미국식의 풍을 닮아 가려는 기색은 좀체로 엿보이지 않았다.

어디를 가도 미 육, 해, 공군 및 해병대들이 들끓고 기후는 좋지 못하나 사람들은 참으로 정직하고 친절하며 인정이 많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2) 미군들과의 생활

우리 한국 공군이 오키나와로 유학을 가게 되면 카테나 베이스나 나하 베이스로 가게 되는데 카테나는 오키나와 중부 서안에 위치하고 있는 비행장에는 MATS(Military Air Transportation Service)가 이착륙하고 많은 요격기들이 준비하게 늘어져 있는 것이 눈에 띈다. 비행 훈련 계획 및 정비 계통으로 이곳에 오는 외국인이 많으며 나하 베이스는 오키나와의 수도인 나하시의 옆에 위치한 비행장으로 민간 여객기 및 C-130 수송기들이 거대한 기체를 넓게 은익을 펼치고 준비해 있다. 한쪽에는 F-102가 날쌔게 기체를 자랑하고 있다. 내가 갔던 베이스는 나하 기지의 623 비행 관제 정보 부대였다. 오키나와 본토의 남단에 위치한 나하시는 30만 정도의 인구를 수용하고 있으며 고쿠사이(國際) 스트리트를 비롯하여 나미누에란 곳에는 변화하고 유흥의 거리이므로 많은 미군들이 출입하고 있는 곳이다. 미군 및 그 가족들의 촌락은 부대 주변에 깨끗이 진열되어 있으며 우리 외국인이 이곳으로 유학을 가게 되면 장교는 BOQ에 그리고 사병은 BARRACKS에 머물게 되는데 일체의 행동이 그네들과 함께 하게 되므로 처음에는 예절 및 절차 등을 습득키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환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식당에서의 절차와 지켜야 할 예절에는 처음 사람으로 하여금 아무래도 어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니, 실례되지 않도록 미리 출국에 앞서 먼저 다녀온 사람에게 브리핑을 받고 가는 것이 좋다.

더욱이 미군 가정에 초대를 받았다는가 파티에 참석하였을 경우에 여자들에게 대하야 할 태도는 전연 우리의 생각과 반대되는 일이 많은 것이다. 근무장 생활이나 작업장에서의 일은 별로 어려울 것이 없었다. 새로운 지식을 배운다기보다 알고 있는 지식을 실무 면에서 넓히기 위하여 즉 OJT이므로 그네들이 하는 대로 하면 쉽게 익숙해 질 수가 있는 것이다. 모든 시설이나 절차가 우리의 실정보다 훨씬 간편하게 되어 있으므로 근무에 있어서는 별로 곤란을 받지 않았다. 특히 페이퍼 워크는 우리보다 훨씬 그 수속 절차가 수월하며 언제나 친절할 안내를 받게 되므로 그런 점에서 염려 될 것은 없었다. 미국인들은 흔히 농담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때에 답변하는 데는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많았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를 이등국민시하여 업수이 여기는 인간도 있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유머적인 행동으로 오히려 미안을 느끼도록 타이낼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우리가 가서 있을 때에는 중국인 및 베트남 사람도 함께 지냈는데 모두 우리보다 영어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들 한국인에 대한 인식은 좋은 편이었다. 특히 크로스 트레이닝으로 타 부대에 견학을 갈 때에는 미리 준비를 하여 많은 질문을 하면 대단한 호평을 받게 된다. 오키나와 유학을 이제금 회상해 보면 기술적인 문제보다 한국을 외국인에게 소개하는 개인적인 외교가 더욱 중요한 것 같이 생각 된다.

(3) 귀여운 소녀의 사랑

지난 7월 22일이었으니까 오키나와에 간 지 이십일 쯤 되는 날이다. 같이 간 김 하사와 같이 근무를 마치고 저녁에 외출을 나가 나하 시내를 거닐게 되었다. 나하고등학교(那覇高等學校)란 간판이 붙은 학교를 찾아 들게 되었다. 야간부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었으며 운동장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웅성거리고 있었다. 나는 학생들과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주위에 앉아 있는 남녀 학생들에게 영어로 말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여러 명의 학생들이 모여 들었으나 회화를 할 수 있는 학생은 한 사람도 없었다. 짧은 일본어를 통하여 의사를 교환하자니 도저히 잘 통하지가 않았다. 영어로 무엇을 좀 물어보려고 하면 두 손을 내저으며 싱긋이 웃는 것이었다. 마치 시골 학교에 외국인이 가면 여러 학생들이 ‘우~’ 모여 들어 신기하게 여기는 바로 그런 장면이었다. 그러는 동안 어느 여학생이 조그마한 한 여학생을 데리고 왔다. 이 작은 소녀는 잠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더니 손을 앞으로 툇 내밀며 악수를 청하면서 이름은 준코라면서 다정하게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나도 이름을 강이라고 밝히고는 한국어서 왔다고 했다.

한국인이란니까 이상한 모양이다. 아마도 하와이안이나 중국인 인줄 알았던 모양이다. 그 래서 우리는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며 이 작은 소녀의 안내를 받아 학교를 구경하게 되었다. 교무실에 들어가서는 여러 선생들까지 소개 받았는데 영어 선생을 제외한 다른 선생들은 이 여학생보다도 영어가 서투른 사람이 많았다. 도서관을 돌아 마지막에 이 층으로 올라 간 것이 음악실 이었다.

<다음호에 계속>

4

약 2주일이 지난 후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실이 도하 각 신문에 보도 되었다. 그것은 치안국장의 담화였다.

- 최근 2명의 간첩이 국내에 잠입하였다. 한 명은 북한괴뢰집에서 직접 납파되었고 한명은 일본의 조련계에서 파견되었다. 두 명 모두가 거물급이며 한 명은 무장간첩이다. 치안당국은 그들의 검거에 전력을 다 할 것이다.

그들은 지금까지 보기 드문 중대한 임무를 띤 거물급 간첩이므로 일반국민도 관심을 가지고 이들 간첩 색출에 협력해 주기 바란다. -

이와 동시에 다음과 같은 특급 비밀지령이 치안국에서 F경찰서로 전달되었다.

- 금번 잠입한 2명의 간첩 중 한 명이 F 군하에 잠입한 것 같으니 철저히 조사 수색하라. -

F 경찰서는 아연 긴장했다. 서장을 비롯해서 전 서원은 치밀한 계획 하에 군내 전역에 걸쳐 간첩 색출에 총동원 되었다.

치안국에서 사복경관 10여 명이 비밀리에 가세하였다. 그런데 이 10여명 치안국 파견 형사들은 극비밀히 주로 XX당 반미 클럽으로 알려진 젊은 당원과 OO신문지사 기자를 감시하였고 문(文)이라는 형사와 박형사는 동료들도 모르게 자주 접촉하고 있었다.

서장은 이따금씩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 서 서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훈시를 거듭하였다.

“간첩은 꼭 잡아야 한다. 우리는 이에 앞서 과연 간첩이 우리 관할 내에 잠입했는가 하는 확고한 정보를 얻어야 한다. 만일 이 정보가 정확성이 없다면 우리는 간첩을 체포한다는 공로심에 불타는 나머지 여러 가지의 민폐를 일으킬 것이다. 이 점 전 서원은 특히 유의하고 조심해 주기 바란다. 본인은 여러분이 교각살우(矯角殺牛)의 각오가 있다면 용서하지 않을 방침이다.”

서장의 일거일동이 문 형사를 통해서 허 총경에게 보고되고 있었다.

치안국 파견 형사 중에서 네 사람의 형사는 두 조로 나누어 밤중에 반미 클럽의 주동자로 인정되는 당원의 집과 기자의 집을 가만히 찾아가서 문밖에서 들릴까 말까하는 목소리로 이름을 두어 번 부르고는 자취를 감추어 버리고, 미리 숨어 있던 또 한 명의 형사가 그들의 동정을 감시하였다. 이들 밤이 계속되자 그들은 밤을 꼬박 새우며 누군가가 나타나기를 대기하는 태도가 분명했다. 기자도 동일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서장도 감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서장은 평소와 조금도 다른 점을 보이지 않았다.

5일째 되는 날 저녁, F 경찰서는 아연 긴장되었다. 읍에서 약 10리쯤 떨어진

내부의적(하)

간첩추리소설

류기영 (柳奇影)

M 라는 한 촌에 이상한 사람이 숨어 있다는 정보가 문 형사에 의해서 보고되었던 것이다. M 촌은 총 호수가 불과 7호이며 이 중 한 집은 산골짜기 깊숙이 떨어져 있는데 이 농가는 뒷산 계곡 가에 마구간을 가지고 있었으나 소를 팔아버린 지 오래 이고 지금 마구간은 비어 있으며, 이 마구간에 이상한 사람이 숨어 있다는 정보였다. 이 정보를 가져온 문 형사는 동민에게 확인한 결과 틀림이 없다고 장담을 하면서 오늘 밤 중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도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장은 해가 지고 완전히 어두워지면 즉시 행동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작전 계획도 말했다.

그것은 서장 자신이 직접 출두한다는 것이다. 그는 문 형사 단 한 사람만을 데리고 간다고 말했다. 여러 사람이 출동하면 오히려 간첩을 놓칠 우려가 있으며 그 정보가 확실하다면 구태여 많은 사람이 나설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두 사람으로 충분 하다는 것이다.

자원에서 나서는 서원도 있었으나 서장은 명령으로 그것을 제지했다.

서장이 본서 울타리 너머에 있는 관사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에 박 형사는 서장이 사용하는 권총을 점검했다. 탄환을 하나하나 점검해서 장전하고 허리에 차는 탄환대의 탄환도 일일이 점검해서 불발탄의 우려가 있는 것은 완전한 탄환으로 바꾸었다. 식사를 하고 나온 서장은 박 형사의 탄환 점검을 보고 그의 용의주도함을 치사하기도 했다.

5

완전히 깜깜해지자 서장과 문 형사는 각각 권총을 차고 본서를 출발했다. 서장이 문 형사로부터 처음 보고를 받을 때 몇몇 서원을 제외하고는 비밀에 부쳤기 때문에 대다수의 서원은 오늘 밤, 서장이 출두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서장은 정보의 누설을 방지한다는 견지에서 필요 이외의 서원들에게는 비밀에 부쳤던 것이다.

서장과 문 형사가 본서를 출발하자 얼마 후 대기 중에 있던 다른 서원과 치안 국 파견 형사 일부는 어디론가 행동을 개시 했다.

M 촌으로 가는 길에는 그 마을을 거의 나가서 조그마한 재를 넘어야만 했다.

이 재에는 꼬부랑길이라는 꼬불꼬불한 길이 있었다. 한때 이 재(山)에는 금(金)이 난다고 해서 어떤 광산업자가 길목을 파다가 둔 깊숙한 못이 있었다. 바로 이 못을 지나 꼬부랑길을 따라 내려가지 않고 오른편 산마루를 따라 내려가면 바로 간첩이 숨어있다는 그 마구간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다.

바로 못 가에 이르렀을 때였다. 사태는 일변했다. 앞에 걸어가던 문 형사 잔등이에 싸늘한 권총 총구의 감촉이 문 형사의 전신을 오싹하게 했다.

“너는 잘못 걸렸다. 너는 여기서 죽어야한다!”

등 뒤에서 나지막한 서장의 말이 들려왔다. 문 형사는 전신을 움츠러뜨리고, 그러나 그와 동시에 허리에 찬 권총을 아무지게 잡으며 살며시 돌아섰다.

“서장님, 왜 이러십니까. 무엇을 착각하신 것 아닙니까?”

“착각은 내가 했지. 본의 아니나 나는 너를 여기서 죽여야 한다!”

창공에 부치는 마음

박기원(朴琦遠) <시인>

(1) 하늘 빛

손수건을 집어 던지면 당장 파란 물이 돌 것 같은 하늘이다.

옥색 빛 고운 흐름이 선으로 퍼져 다시 폭으로 합쳐지고 합쳐진 폭이 또다시 일곱 빛 선으로 흩어지는 가을 창공의 무궁한 신비는 무한대한 하늘의 마음이요 하늘의 뜻인 것이다.

한 점 구름이 동동 바람을 타고 넓은 창공을 떠서 어디론지 흘러가고 있는 것은 한 폭 그림이라기에는 너무도 크고 높아 손닿을 수 없는 나의 유일한 영혼에의 갈구 그것일지도 모르는 것이다.

넓은 창해에 떠서 푸른 파도를 나르며 멀리 수평선 저 쪽으로 사라지는 한 마리 흰 갈매기의 깃 자락처럼 속되고 더럽혀지지 않은 나의 상념이 시방 저 푸른 창공 한 복판을 흰 목화송이인 양 동동 떠가는 구름장 같은 중량 속에 깊고 높은 나의 가을은 시상을 끌고 가는 또 하나의 먼 나의 세계인 것이다.

(2) 계절의 섭리와 인간의 마음

열핏 생각하면 또 미처 생각이 못가는 인간들의 생각 같아서는 그러한 자연의 섭리라든가 우주의 신비 조화란 인간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이 알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하늘이 맑다든가 비가 온다든가 바람이 분다든가 꽃이 핀다든가 낙엽이 진다든가하는 계절의 순환이치는 우리의 생활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이나 인간의 사랑이나 인간의 영혼이나 인간의 지조를 상실하고 바위나 고목 같이 살아가는 묵석 같은 인간들을 우리는 곧잘 볼 수 있는 것은 인간 세상에 있어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이 몰라서 그렇지 실상 알고 보면 자연의 섭리라든가, 천지의 조화신비는

하자 동시에 서장은 권총의 방아쇠를 힘껏 잡아당겼다. 그러나 방아쇠가 탄두를 때리는 소리만이 딱! 했을 뿐 문 형사는 태연히 그대로 서 있지 않은가.

다음 순간 문 형사의 권총이 서장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서장! 내 것은 실탄이 들어 있습니다. 서장 것은 모두가 불발탄인걸요.”

“땃?”

서장은 다시 방아쇠를 잡아 당겼다.

딱! 하는 소리 뿐.

때를 같이하여 문 형사는 성큼 물러섰다. 그의 총구는 정확히 서장의 심장 부를 겨누 채.

“조심해! 덤비지 마, 너를 아주 죽여 버리기에는 아까운 존재니까.”

이렇게 말하는 문 형사의 어깨 너머에서 난데없는 또 한 사람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 스스 나타났다. 이번엔 서장이 성큼 물러섰다.

권총을 뺏아들고 나타난 그 난데없는 얼굴은, 서장의 등 뒤를 돌아서 서장의 등에 총구를 겨누며 소리쳤다.

인간생활에 있어 한 치도 떠날 수 없는 직접적인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속에 기쁘고, 노엽고, 슬프고, 즐겁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욕심내는 일곱 가지 감정의 발로가 계절의 순환과 자연의 섭리와의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잠시인들 소홀히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3) 은익의 성곽 <銀翼의 城郭>

구름 끝까지 치다어 구름장과 함께 비상하던 나의 푸른 상념은 내 아름다운 나의 창조의 조화세계를 떠나 내 자리로 돌아오는 길목에서 한 쌍의 비행기를 만나 잠시 발을 멈추고 하늘 길 한 옆에서 몸을 피해 선 채 나는 한가로운 자세로 기체의 흐르는 율동에 눈을 주고 있는 것이다.

찬란한 은빛 날개에 따라온 햇별을 받으며 파란 창공을 누비며 한 가닥 선을 굶고 가는 것은 가을 하늘을 수놓는 한 폭의 아름다운 화폭임에 벅차다.

이렇듯 한가롭게, 이렇듯 평화롭게 바라다 볼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이 이만큼 한가롭고 평화스럽다는 하오의 심정일 시 분명하다. 그러나 창공을 나는 아니 울타리 없는 창공의 길을 나는 이의 마음은 바라다보고 아름답게만 느껴지는 그 마음보다는 더 크고, 높고, 멀고, 긴장한 사명의 임무가 창일할 것이다.

하늘엔 길이 없으나 나아가는 길은 반드시 있는 것이요 하늘엔 성문이 없으나 막아낼 수 있는 성은 분명 있는 것이니 너의 이름은 찬란한 따오기 나아가는 길 앞엔 오색 무지개발이 하늘 다리를 수놓는 평화와 자유가 있고 너의 이름은 성난 독수리 때 있어 천인절벽을 내려 닿는 거창한 포효 앞에는 온갖 불의와 온갖 괴뢰가 낮도깨비처럼 부서져 멸하리니 충의와 기개로 하여금 조국을 위하여 조국의 하늘을 지키는 하늘의 성곽이기에 너무도 벅찬 겨레의 사랑이요 너무도 뜨거운 조국의 생명인 것이다.

(4) 들국화와 시인

나는 지금 팔베개를 베고 들국화가 한창인 산등성이에 누워 오후의 늦가을

“잠자코 내려가!”

그 얼굴은 완전히 변장한 허 박사 - 허 총경이었다.

바로 이때였다. 바로 허 총경 등 뒤에 서 팡! 팡! 하고 권총이 발사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사람이 쓴 것이 아니고 허 총경이 돌아서면서 쓴 것이다.

그 누군가가 단말마의 소리를 지르며 쓰러졌다.

“권총을 버리고 손을 들어! 손을 들지 않으면 정통으로 쏠겠다!”

허 총경이 소리쳤다. 쓰러진 자는 누운 채 두 손을 쳐들었다.

“어이 문 형사, 저놈을 가보게. 서장은 내가 감시할 테니.”

문 형사는 권총을 겨누면서 가까이 갔다. 가까이 가서 그자의 얼굴을 확인한 문 형사는 기절을 하다시피 놀랐다. 쓰러져 손을 들고 있는 자는 놀랍게도 F 경찰서에 근무하는 장이라는 경위가 아닌가?

6

반미 주동 분자와 기자는 서장에 앞서

하늘을 우러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 적요가 바다 속같이 고요한 등성이 는 가을이 한 치씩 닳아 앓는 공간에 흐르고 있을 뿐이다.

가을은 떠나간 사람들의 얼굴이 들국화 송이인 냥 하나씩 피어나는 그리운 계절임에는 틀림없다. 그렇다. 진실한 마음씨를 가진 여인 하나 진정으로 알뜰하게 사랑하고 싶은 마음 참을 길 없다. 그런 진실한 여인 끝내 만나지 못한 한이 필경 들국화로 피어 남몰래 있다가 남몰래 지는가 보구나.

이름도 모를 산새 한 마리가 푸드덕 숲 속을 날아 동그랗게 원을 그리며 하늘 저쪽으로 사라져 간다. 이젠 바람이 이때쯤 가냘픈 풀잎을 스치고 갈 뿐 산울림 하나 들려오지 않는다. 누렇게 시든 풀잎 속에서 가을벌레가 목 뉘 소리로 울어 연다. 쓰르라미가 가고 귀뚜라미가 가고 들국화도 가고 이제 너마저 가고 없으면 이 등성이는 더욱 적막할 것이 아닌가. 그러면 바람소리와 내가 베고 누웠던 돌베개만은 언제까지 남아 있을 것을 나는 믿고 싶은 것이다.

(4) 산사의 종이 울어

다홍빛 저녁노을이 멀리 도봉산 높은 뒤편 뿌리를 사르는 노란 구름이 한 점씩 빛을 잃어 가고 있다. 하루의 늦가을해가 이제 저무는 산천 속으로 사라져 가고 있다. 멀리 산사에서 저녁 종소리가 들려온다. 황혼 되어 타는 노을, 황혼 되어 우는 종, 그걸 누가 탓하랴. 그 황혼 속에 인생이 타고 그 종소리 속에 공간이 영원으로 돌아가는 찰나를 누가 감히 막을 자 있었으랴.

산사의 종소리는 황혼일수록 처절하다. 어느 노승의 피 맺힌 서원인가 종소리를 한 번씩 사이하고 목탁소리가 바람을 타고 울려온다. 종소리에 찢긴 가슴이 목탁 소리에 살아나고 목탁 소리에 참된 마음이 종소리로 흩어지는 황혼의 젖은 감정을 달릴 길 없는 언덕길에 고독한 시인은 호젓이 일어나 산길을 내려오면서 혼자 생각해 보는 것이다.

- 고독이란 사치품일 때 그 매력에 있는 것이요, 그것이 생활일 때는 죽음보다 찬 것이라고 -

별동대에 의해서 이미 유치장 신세가 되어 있었다.

“불발탄인 줄을 알고는 있었지만 서장이 내 가슴을 겨누고 방아쇠를 잡아당길 땐 정말 전신에 식은땀이 흘렸어요.”

하고 문 형사는 몸을 오싹 거렸다.

“그건 불발탄이 아닙니다.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권총에 장전한 것은 모두 화약을 빼어버렸으니까 안심해도 좋았지요.”

하며 박 형사는 빙그레 웃었다.

“허 총경님은 어디서부터 미행을 하셨죠?”

하고 물었다.

“나 말야? 본서 앞에서 동행했지.”

이렇게 대꾸한 허 총경은 자기의 변장 차림을 내려다보았다. 지금은 지계를 벗어 던졌지만 본서 앞에서 그들은 멀리서 뒤따라 갈 때는 지계에 짐까지 얹어서 진 순수한 농군차림이 었다.

“그런데 참 총경님. 어디에 단서를 두고 이 일에 모험을 감행할 생각이 났습니까?”

이젠 벌써 어둑어둑한 저녁이다. 목탁 소리마저 그친 까만 하늘에 한 점 찬란한 별빛이 반짝이고 있다. 이것은 별 아닌 별 한대의 비행기가 빨간 불빛을 반짝이며 내 머리 위를 지나가고 있다.

밤하늘을 수놓는 하늘의 성곽이 그 아름다운 자세를 움직이는 조국의 수호신 조국의 자세 앞에 나는 천천히 산길을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국수와 누나

정제관 <공군 소위>

부대에서 밀가루 한 포대씩 타왔다. 여느 사람들 같으면 특히 총각의 경우에는 한 포대에 기백 원으로 팔아버리지만 나는 이렇게 소중히 타가지고 방 한 구석에 놓아두었다.

국수를 해먹으리라는 막연한 생각에서였다. 어쩌면 꼭 국수를 해먹는다고 보다 옛날의 국수 맛을 몰래 생각하면서 하잘 것 없는 밀가루 한 포대를 앞에 놓고 수룩의 성찬이나 대한 듯 그 일출한 진미를 혼자 탐닉하려는 것일지도 모른다.

나는 원래 국수를 즐기지도 않는다. 가루음식이면 무엇이든 즐기지 않는 내가 올해 같은 흥년살림에 모두들 국수 하면 물려버렸을 텐데 국수 맛이 어찌니 하고 운운함은 혹 사람들의 빈축을 사기에 알맞은 일일 게다.

그러나 나는 밀가루만 보면 지나간 날의 국수맛을 생각하고 혼자 그리움에 잠긴다.

내가 아마 대학을 입학하고 첫여름 방학이었다고 생각된다. 하향하여 우리 집에서 십여 리 남짓한 누나 집에 놀러 갔다.

매형은 들에 나가고 누나는 집에서 아이를 업고 땀을 뻘뻘 흘리며 집안일에 골몰하고 있었다. 결혼한 지 수년이 지나 벌써 아이가 두셋 딸렸고 농사일에 시달렸음인지 새까맣게 탄 얼굴에 주름살조차 한두 개 늘어 처녀 때의 그 얼굴은 찾아 볼 수 없었다.

나는 누나를 대하자 측은한 생각조차

박 형사는 허를 내두르며 말했다.

“알고 보면 간단한 단서지. 그러나 그 간단한 단서를 잡는다는 것은 예리한 판단력이야 필요하지, 나는 처음, 자네 얘기를 들었을 때, 자네 요구를 서장이 자꾸만 거절했거든. 이유는 모두가 그럴싸했지만 한 가지 한 가지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었던 말이야. 그것이 무엇 인고 하니 그러한 경우, 백이면 백, 열이면 열, 서장의 입장에서 그렇게 너그러워질 수는 없다는 점이다. 한건이라도 더 올려서 상부에 잘 보이고 자기의 공을 세우고 싶은 것이 일반적인 상례이며 또 치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자기 관할 하에 있는 지구의 안녕 질서를 염려하는 마음에서도 그렇게 천연할 수가 없지 않겠는가. 때문에 나는 그의 사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소. 이와 같은 나의 의심은 문 형사의 보고를 받고 더욱 굳어졌단 말이야.”

하면서 다시 말을 이었다.

“F 서장은 우리의 계략에 완전히 빠졌다는 것이 그의 실책이다. 그는 어디까지나 천연하게 간첩이 숨어 있다는

없지 않았으나 매형과 찍 정이 좋아 그런 대로 아이들조차 두셋 되니 일가의 주부로서 단란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터라 한편 즐거운 생각이 들었다.

점심때가 가까워 오자 누나는 부엌에 나가더니 밀가루 반죽을 한 뭉치 해들고 들어왔다. 동생이 오랜만에 왔으니 국수를 해준다는 것이었다.

나는 국수를 즐기지 않는 터라 구미가 당기지 않았으나 해온 반죽이고 특별히 해준다는 별미이고 보면 아무리 만만케 지내는 누나라 할지라도 안 먹는 달 수는 없었다.

시렁 위에 뽕뽕 말아 두었던 뚝자리를 꺼내더니 주먹으로 몇 번 두들겨 폭신한 면지를 문밖으로 날린다. 몇 년이 지난 지 새까만 뚝자리를 물행주로 두어 번 문지르고는 방바닥에 펴 놓고 반죽을 방망이로 눌러 구르기 시작한다. 반죽을 얇게 하기 위해서다.

누나는 보채는 아이에 젖을 먹인다. 이마에 흐르는 땀을 씻는다 하면서 부지런히 방망이를 구르면서도 나에겐 이야기를 그치지 않았다.

무슨 이야기였는지는 지금 잘 생각나지 않으나 개중에는 아마 너도 이제 그만 장성했으니 어디 참한 색시를 골라 장가를 가야되지 않겠느냐는 알뜰한 걱정도 있었으리라.

한참 동안이나 쉴 새 없이 문지르니 반죽은 얇은 종이처럼 되어 구멍이 나지 않을 정도쯤 되었다. 동생을 위해서는 더웁고 익고 국수 솜씨를 마음껏 발휘해 보려는 것이었다.

몇 년 묵은 새까만 뚝자리에 축축한 반죽을 근 시간여나 문질렀으니 뚝자리 새에 묻었던 때는 먼지 한 개도 남기지 않고 가차없이 반죽에 휘둘러 넣어 이제 그 펄펄 끓는 물에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종이같이 얇은 반죽을 둘둘 감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무딘 식칼로 정성들여 썬다.

누나가 시집가기 전 같았으면 난 그 국수 못 먹겠다고 투덜거렸을 테지만 (그러나 나는 그 국수를 먹고 자랐다) 암만해도 그때처럼 만만치는 않은 어엿한 주부였고 나도 원만치 철이 들었음인지 속으로 펄펄 끓는 물에 들어가면 살균되겠지

그 곳까지 가서 정말 간첩이 숨어 있는가를 확인한 다음에도 늦지 않았지. 즉, 간첩은 없었으니 그대로 태연히 돌아왔으면 되는 것이야. 그런데 그는 너무 바빠 서둘렀어. 그 때문에 그의 정체까지 폭로되고 말았지…….”

“그럼 장 경위는 F 서장의 부하였나요?”

하고 문 형사가 물었다.

“알고 보면 장 경위는 F 서장보다 상급에 속하는 간첩이야. 그런데 부산 호텔에 있던 박이라는 보이를 불러 장 경위를 확인해 봐야겠네. 장 경위는 그 날 밤 16호실에 투숙하여 8호실에 투숙한 P전무를 살해한 진범임에 틀림없을 테니까.”

더운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담배에 불을 붙여 연기를 길게 내뿜은 허 총경은 서원들을 돌아보며 다음과 같이 엄숙한 훈시를 내렸다.

“간첩의 활동은 이처럼 교묘하다. F 서의 서장이며 경위가 간첩이었다는 것은 국민들의 감시가 그만큼 해이되어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고 먹기로 결심했다.

한 여름의 한낮이라 덥기도 무척 더웠다. 누나는 보채는 아이를 등에 업고 연기를 폭폭 내면서 한참동안이나 부엌에서 들락날락 하더니 화대접(질그릇으로 만든 큰 대접)에다 덩그러니 담아서 상을 차려 들어왔다.

시골이라 고기는 물론 멸치 한 마리도 장을 보아 두지 않으면 구할 수 없으므로 그냥 양념장에다 낭계를 썰어 삶아 넣은 국수였다.

배가 출출한 김이라 나는 허리띠를 풀러 놓고 상을 당겼다. 모처럼 동생이 왔다고 정성들여 만든 음식이라 다 먹으리라 작정했다. 그런데로 내 땀 흐듯한 느낌도 없지 않았다.

국수를 몇 젓가락 입에 넣자 난 곧 아까까지 생각하던 미심쩍은 생각이 하나의 기우에 지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고 누나에게는 펍 미안했다.

꽃고추를 된장에다 찍어 깨물면서 난 어렸을 적 일들이 생각났다. 어머니가 밤 늦게까지 물레를 잣으시면서 한숨을 쉬면 우리도 덩달아 영문도 모르면서 시무룩해져 이불 속으로 들어가던 일…… 그러던 우리는 이렇게 자랐고 누나는 또 이렇게 어진 농부의 아내가 되었고 어머니가 되었다. 나는 이런 일들을 생각하며 단숨에 한 그릇을 해치웠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맛있는 국수였다. 그 때의 그 국수 맛은 어쩌면 소박하고 은근한 누나의 마음씨라 해도 좋다.

그 국수를 먹은 지도 벌써 칠팔 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사이 누나는 가난한 살림을 사느라 펍 늙었고 올해보다 내년이면 또 훨씬 더 늙어 갈 것이다.

그러나 그 때의 그 누나의 마음씨와 국수맛은 점점 아름다워지고 그리워짐은 어쩌하랴?

언제 다시 그 국수를 먹어 볼는지 타다 놓은 밀가루 포대를 지켜보는 동생은 외롭다.



북한이나 휴전선만에 감시의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 깊숙이 파고들어 내부를 파괴하는 이들 내부의 적에 항상 감시의 눈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좀 더 세심한 관찰력을 가졌다면 이들의 수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행복의 차원

‘만족한 돼지가 되기보다는 불만한 인간이 되기를 원하고 만족한 바보가 되기보다는 불만한 소크라테스가 되기를 원한다’고 밀은 말했다.

사람은 돼지의 차원에서는 살 수가 없다.

용의 꼬리가 되기보다는 뱀의 머리되기를 바란다는 속담이 있다.

불만을 느끼면서 뱀의 머리노릇을 하는 사람도 있고 용의 꼬리 노릇을 하면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도 있다. 문제는 차원에 있는 것이다.

<112P에서>

비난하고 개인에 대한 구가를 반대했다. 그러나 테러와 숙청의 레닌노선만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4월 22-29일 프라하에서 체코 문필가 회의가 열렸고 6월 28일 폴란드의 포즈담에서 파업이 일어났다. 또한 10월 23일에는 헝가리에서 혁명이 일어나 11월 1-3일 소련은 15개 사단의 군대와 4천 대의 탱크로 헝가리 의거를 진압시켜 괴뢰식민정부를 다시 회복시켰다.

1953-8년……이 때부터는 니키타 흐루시초프의 단독 무대다. 즉,

1953년 여름 : 말렌코프를 찍어서 베리야를 제거.

1955년 2월 : 물로토프와 카가노비치를 찍어서 말렌코프를 제거.

1957년 여름 : 주코프를 찍어서 물로토프와 카가노비치를 제거.

동년 가을 : 불가닌을 찍어서 주코프를 제거.

1958년 3월 : (한사람의 집체영도(集體領導)로) - 불가닌을 제거.

◇중공의 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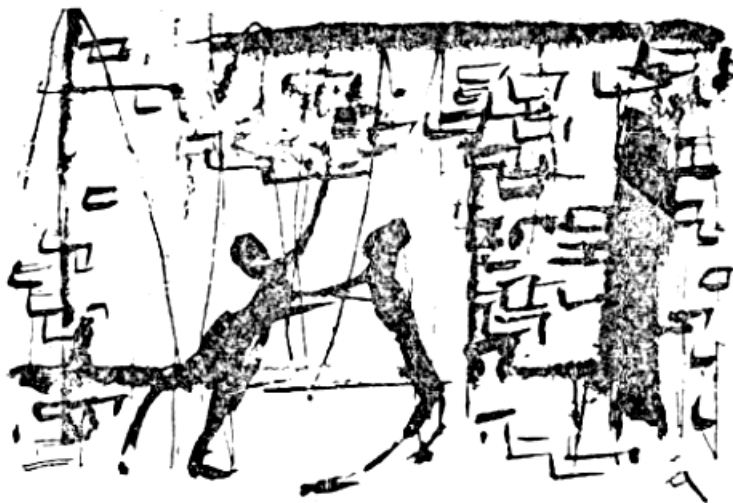
중공은 육군의 약 반은 아직 구식무기로 그대로 남아있다. 그 수는 약 80개 사단이다. 현대화된 것은 모두가 소련제이며 장갑사단은 불과 2개사, 공정사단은 1개사 이미 국내에서는 소화기 정도가 제조되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다. 전차는 모두가 소련서 제공한 것이며 자급은 전혀 안 된다.

군용트럭은 창춘(長春)에서 제조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부분품(部分品) 부족으로 그 생산이 중단 상태에 빠져있다.

해군도 소련의 원조이며 국내생산은 안되고 공군도 마찬가지다. 해군 군세를 보면 구축함 2척, 잠수함 약 30척, 프리깃 6척이 전부다. 부분품(部分品)을 소련에서 얻어 프리깃과 잠수함을 약간 건조했으나 지금은 중단 상태에 빠져있다.

◇여왕의 목걸이

한때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를 ‘여왕의 목걸이’라고 불렀다. 그것은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의 식민지 때였다. 그만큼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에서 산해(山海)의 보물을 얻었던 것이다.



<단편>

이 름

류병수(柳並水)

- 각하는 이름을 잃어 버렸다.

언제 어디서 잃어 버린지를 모른다. 어쩌다가 잃어 버린지도 모른다.

그의 가족들도 각하가 이름을 잃어 버린지를 모른다. 각하는 물론, 가족들도 각하가 이름을 잃어 버렸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다.

- 그럴 수밖에 없었다.

만일, 잃어버린 이름이 각하 맥 서독산 세퍼드 톰 톱이나 댕더라도 각하 나 그의 가족들은 이름을 잃어 버리고도 것처럼 천연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만일, 세종로를 누비는 세단형 그의 전용차 '관○호'를 잃어버렸다면 전국이 시끄러웠을 것이고 그의 장난감인 카메라를 잃어버렸다면 치안국이 떠들썩했을 것이다. 또 그가 귀여워하는 젊고 예쁜 세컨드를 잃어버렸다면 장안의

화제거리가 됐을지도 모른다.

하루에 쇠고기 두세 근씩을 먹어 조지는 늑대와 같은 톱을 각하는 무척 자랑스러이 여겼다. 적어도 각하는 하루에 두 번 씹은 톱을 찾아보았다. 밤늦게 돌아왔을 때도 각하는 몸소 톱을 찾아서 털에 술질을 해주는 등 그와 몇 마디 다정한 얘기를 나눌 것을 잊지 않는다.

톱에게는 전속 수의(獸醫)가 있었다. 이 수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톱의 건강 진단을 행하며 그의 건강을 관리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때문에 톱은 잃어버릴래야 잃어버릴 톱도 없었다.

언젠가 톱이 잠깐 집을 나간 일이 있었다. 이때 각하 맥 동리에는 때 아닌 소동이 일어났다. 통반장을 위시해 서 동리 10여 명의 유지들이 총 출동하는 가 하면 당해 파출소 주임은 톱을 색출하는데 본서의 응원을 요청했던 것이다.

톱이 나타나자 그의 건강 관리자는 재빨리 진맥을 해 보고는 각하에게 전화로 보고했다.

“각하, 안심하십시오. 톱 군은 본능적이고 생리적인 충동이 있었을 뿐, 다른 이상은 없습니다.”

‘관○호’의 세단형 전용차는 우선 먼지가 앉을 겨를이 없었다. 운전수와 그의 조수는 톱만 있으면 자동차의 먼지를 털고 기름걸레로 차를 닦는 것이 일이었다. 때문에 차체는 언제나 반들반들 광이 나서 거울처럼 그 앞에 나타나는 각하의 모습을 더욱 위엄 있게 윤색했다.

이 고급차는 마치 벽시계의 추처럼 세종로에서 나와 세종로로 들어간다. 세종로의 아스팔트는 이러한 고급차들의 덕분으로 언제나 슈 사인한 그들의 구두 끝처럼 반지리 했다. 각하는 이 거리를 누비는 동안에 이름을 잃어 버린 지도 모른다. 하지만 전용차가 이 거리를 오 갈 때 각하의 그 군은 결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공산주의자와 싸우겠다는 각오가 가장 두드러지는 때였다.

각하는 민주주의 신봉자였으며 누구보다도 강렬한 반공사상의 소유자였다. 그는 오늘의 이 살기 좋은 세상은 오직 해방의 덕택으로 민주주의 제도가 잘 확립되어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언젠가 이 전용차의 한쪽 눈이 깨뜨려졌을 때 운전수는 이십 분만에 새 것으로 갈아 넣었다. 운전수는 자기 한쪽 눈을 다치고도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지만 이 전용차의 눈은 사람의 눈보다 몇 갑절 소중함을 잘 알고 있었다.

이름을 잃어버린 각하는 또 하나의 귀중품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젊고 예쁜 세컨드였다. 세컨드는 입 안에 있는 혀처럼 부드러운 바위처럼 육중하고 과잉 지방질로 버크셔 종 돼지의 엉덩이처럼 뚱뚱한 각하의 몸집도 이 젊은 여인을 만났을 때는 놀랄 만치 가벼워진다.

이따금씩 남아도는 각하의 지루한 시간(時間)을 이 짧은 세컨드는 멋있게 먹어 주었다. 그는 각하의 머리보다 훨씬 예민한 기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자기 머리보다 소중히 하는 뽀족한 엉덩이였다. 장판방에 눕기에는 오히려 부적당한 그의 엉덩이는 다행히 화려한 침대를 가지고 있었다. 세컨드는 자꾸만 스톱워치는 시간을 이 소중한 기계에 기름칠하는데 소비한다. 때문에 이 귀중품은 반질반질 윤이 나서 마치 각하의 전용차처럼 광이 날 지경이었다. 각하가 카메라 장난을 하게 된 것은 그의 비서 남궁팔(南宮八)의 조언이 컸다. “각하의 빛나는 역사를 일일이 기록해야 합니다. 제가 카메라를 요구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비서 남궁팔은 그가 고급 카메라를 하나 가져야겠다는 욕심으로 경리 담당자에게 대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래서 그는 각하에게 직접 말했던 것이다.

‘빛나는 역사’는 각하로 하여금 대금을 지출케 하는 명령을 내리게 하는데 족했다. 최신형 서독제 라이카가 각하의 빛나는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하자 각하는 보다 성능이 좋은 것은 없느냐고 비서에게 물었다. 남궁팔은 콘텍스를 사들이고 라이카는 제 것을 만들었다. 각하는 자기의 빛나는 역사를 엮어 주는 콘텍스 카메라를 한시도 손에서 떼지 않았다. 각하는 여가만 있으면 운전수가 전용차에 기름칠을 하듯, 세컨드가 엉덩이에 화장을 하듯, 털 솔로 카메라를 털었다. 때문에 카메라에는 먼지가 앉을 겨를이 없었다.

각하의 손에 있는 콘텍스나 남궁팔의 손에 있는 라이카나 일체의 부속품이 갖추어졌다. 거기에 들어간 돈은 시골의 웬만한 마을의 전 재산을 합친 것 보다는 많았다.

- 각하가 이름을 잊어버리고도 태연한 것은 오히려 당연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그의 이름은 전용차처럼 멋이 있지도, 카메라처럼 신기하기도, 튼튼처럼 자랑스럽지도, 세컨드처럼 귀엽지도 않았다.

더더구나 필요성을 느껴본 적이 없었으니까.

이름을 잃어버린 각하는 지금, 비서와 함께 대학병원에 가고 있었다. 이틀 전에 그의 막내 딸이 입원했었다. 그는 조금 전에 병원에 가 있는 부인으로부터 병원에 한번 와 달라는 전화를 받았던 것이다.

이름을 잃어버린 각하는 요즘, 시중에 퍼져있는 젠트라는 담배의 연기를 유유히 내뿜으며 차창을 통해 거리를 내다보고 있었다.

거리에는 온갖 이름들이 웅성대고 있었다. 모두가 자질구레한 이름들이었다. 이름을 안고 가는 사람이 있었다. 자세히 보니 이름을 머리에 이고 가는 사람도 있었다. 엮고 가는 사람도 있었고 개처럼 홀 끼서 질질 끌고 가는 사람도 있었다.

거리의 이 구석 저 구석에는 많은 이름들이 흩어져 있었다. 쭈그러지고 이그러진 이름, 말라비틀어진 이름, 산산히 조각난 이름들도 있었다.

버려진 이름도 있었고 떨어뜨린 이름도 많았다.

각하의 전용차가 지나갈 때 이 이름들은 바람에 나부끼었다.

또 거리의 한 모퉁이에는 엄청나게 큰 이름이 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신기루와도 같았고 연기와도 같았으며 무서운 폭우를 실은 시꺼먼 구름과도 같은 이름이었다.

각하의 전용차에 장치된 그 고성능 전파 탐지기의 안테나는 이 흐르는 이름을 캐치하지는 못했다.

각하는 어느 큼직한 건물 앞에 차를 멈추고 비서와 함께 안으로 사라졌다. 운전수는 차를 옮겨 놓기 위해 백 했다. 그러자 누가 차를 향해 소리쳤다.

“여보시오, 남의 이름에 마구 발통을 굴러대면 어떻거나 말이오!”

운전수는 슬그머니 차창으로 고개를 내밀고 누구인가를 살폈다. 바로 옆에 젊은이 한 사람이 성난 얼굴로 운전수를 노려보고 있었다.

“눈에 띄지두 않는 그깟 이름 가지고~”

운전수는 도리어 불평했다.

“뛰라구! 그래두 잘했던 말인가?”

하고 젊은이가 또 소리쳤다.

“나는 못 봤거든. 모래알만한 이름~”

운전수는 내려서 차 밑을 들여다보았다. 젊은이의 이름은 유리조각처럼 산산이 부서져 있었다. 부서진 이름을 본 젊은이는 구둣발로 땅을 굴러 대면서 미친듯이 고향 질렀다.

“아~ 완전히 망가뜨려졌다!”

땅을 굴러대는 젊은이의 구두는 뒷꿈치가 45도나 날라 갖고 앞창이 금세 떨어져 나갈 것 같이 더위를 먹은 개 혀처럼 너울 거렸다.

운전수는 그래도 빙그레 웃으며 젊은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머리는 몇 달 동안이나 이발소 구경을 못했고 낡은 작업복에는 실밥이 너울거리고 있는 젊은이의 모습이 운전수의 눈에는 도깨비 같이 보였다.

운전수는 젊은이의 손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학생,”

젊은이의 손에는 노트가 쥐어져 있었던 것이다.

“이 세단차의 발통이 팔이오, 당신의 이름을 망가뜨렸대요.”

어느새 모여들었는지 비슷한 모습의 학생들이 떨찌감치 자동차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간, 눈에 띄지두 않는 이름~ 요즘 그런 이름 가지구 이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으니 아예 큼직한 이름을 새로 만들지 뭐.”

운전수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중얼대며 기름걸레로 차를 닦기 시작했다. 이때 각하가 파크사처럼 씩씩대며 나왔다. 학생들은 제각기 잠자코 서서 세단차의 부드러운 쿠션을 전승하고 있었다.

얼마 후 각하는 간호원의 안내로 딸의 병실에 들어갔다. 침대에 누워있는 딸은 얼굴이 몹시 험쭉했다.

몇몇 집안 아낙네들에 둘러싸여 앉아 있던 각하의 부인은 간신히 참아왔다는 듯 벌떡 일어서며 말했다.

“각하님, 이 병원 틀려 먹었어요. 속상해 못 견디겠어요. 의사들이 제멋대루예요!”

“각하님 정말 그래요. 아기를 일어나지두 못하게 하구 창문 두 철창을 하구~”

아낙네들이 부인의 말에 맞장구를 쳤다.

“원, 의사들과 간호원들이 제 멋대루 텔레비랑 피아노랑 죄다 밖에 들어내구 야단 아니예요, 글썸.”

부인의 얼굴에는 서슬이 어렸다.

“음!”

각하는 매우 못마땅한 표정이다.

그러자 딸이

“각하님~”하고 어리광을 부렸다.

“병원 옮겨요. 나 여기 싫어요. 피아노두 못 치게 하고 초콜릿두 못 먹게 하잖아요. 무용도 못하게 하는 걸 뭐~”

딸이 몸을 일으켰다. 비서가 얼른 딸을 부축해서 일으켜 앉혔다. 그리고는 각하에게 말했다.

“각하, 께썸합니다. 병원을 옮기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합니다. 제가 잘 아는 병원이 있는데 의사나 간호원들은 환자 중심으로 일을 합니다. 말하자면 민주주의 방식이지요.”

“그 의사들은 미국을 다녀왔는가?”

하고 각하가 물었다.

“원장을 비롯해서 모두가 미국에서 공부했고, 미국을 여러 번 견학한 사람들입니다.”

“음, 특호실이 비어 있을까?”

“전화로 알아보겠습니다.”

비서 남궁팔은 밖으로 나갔다. 그는 전화로써 한참 속삭이다가

다시 병실로 들어갔다.

“각하, 곧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럼, 당장에 옮겨!”

각하의 명령이 내리자 부인과 아낙네들은 서둘러 집을 꾸렸다.

딸을 태운 고급 택시와 그 뒤를 따른 자가용 지프차가 비서가 지정한 병원 앞에 나타나자 늙은 의사와 간호원들이 뛰어나와 딸을 부둥켜안다시피 해서 들어갔다. 이 과잉 친절은 부인을 만족케 했다.

지프차에서는 병원의 일꾼들에 의해서 피아노며 텔레비가 내려지고 무용복을 가득히 담은 트렁크도 내려졌다.

딸의 입원실은 집에 있을 때의 그의 방처럼 화사롭게 꾸며졌다.

진찰이 끝난 뒤 부인은 원장에게 몇 가지 유의 사항을 전달했다.

“갑갑할 땐 창문을 열게 해 주세요. 그리고 애는 피아노 치기를 좋아하고 무용을 즐겨해요. 그러니까 제가 원할 땐 언제라도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주세요. 텔레비두 보도록 하고요.”

“초콜릿도 먹게 해 주세요.”

하고 어느 아낙네가 덧붙였다.

“좋습니다. 그것쫘야.”

원장은 서슴지 않고 대답했다.

“뭇을 먹든 자유지요.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약은 꼬박꼬박 먹어야 합니다. 약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이고 이 약은 특히 미국에서 새로 발명된 엄청나게 비싼 것을 특별히 구해온 것이니까요.”

딸은 먹고 싶은 것을 제멋대로 먹었다. 창문을 열어 제치고 방안을 빙빙 돌며, 춤을 쳤다. 때로는 무용복을 입고 피아노를 치고 밤이 늦도록 텔레비를 들여다보았다.

딸은 각하의 덕택으로 병원에 입원해서도 완전히 자유가 보장 되었다…….

치춤차춤 거리가 소란해지고 시민들이 떠들썌했지만 이름을 잃어버린 각하는 영문을 알 수가 없었다.

대학생들이 세종로 근방에 쏟아져 나와도 각하는 이해가 가지를 않았다. 그들에게 무슨 불평이 있던 말인가? 이보다 더 살기 좋고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니겠는가? 만일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들이 북한의 실정을 모르기 때문일 게다. 이것은 교육이 잘못된 탓일지도 모른다. 각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류양수(柳陽洙) 주필리핀 대사가 11월 11일 부임인 사차 본보를 예방하고 장(張) 총장과 환담했다.



넬슨장군본부예방(禮訪)

미 공군 기상사령관 넬슨 준장이 12월 5일 인사차 본보를 예방코 장(張) 참모차장과 환담하였다.



버어퀴스트장군7항보단(航保團)시찰

미 공군 항공통신사령관 버어퀴스트 장군이 참모 일행을 대동하고 11월 19일 제 7항보단(航保團)을 시찰했다.



부인은 걱정스러운 눈치로 각하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각하님, 저 학생들을 왜 빨갱이로 몰아 잡아 가두지 않으세요?”
“아직 좀 두고 봐야지. 민주주의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해치는 자라면 잡아 가두어야지.”

“경무대 가보셨어요?”

“영감이 살아 있는 한 누구나 안심해도 좋아.”

떼를 지은 학생들이 세종로로 밀어닥쳤다. 대학교수들이 학생들의 뒤를 따르고 시민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다. 그러나 이름을 잃어버린 각하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다. 과거에도 이러한 일은 여러 번 있었고 그 때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용감히 싸운 동지들이 끝내는 승리하는 것을 보아 왔었다. 각하는 동지를 굳게 믿고 있었다.

각하는 비서를 찾았다. 병원에 가볼 생각이었다. 그러나 남궁팔은 없었다. 대학에 정치과 강좌를 맡고 일주일에 두 번씩 강의를 나가는 남궁팔은 오늘 강의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각하는 비서가 대학에 강의 차 나간 것으로 알고 있었다.

하오에 각하는 전용차를 타고 세종로를 지나갔다. 그는 병원에 가는 도중에 그의 동지들이 민주주의를 위하여 어떻게 활약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딸이 죽었다는 전화연락은 그가 막 차를 타고 나간 뒤였다.

세종로를 지나갈 때 이름을 잊어버린 각하는 매우 쾌ష한 광경을 목격하고 깜짝 놀랐다. 남궁팔 비서가 교수들의 데모 행렬에 끼어 있었다. 그 행렬은 어마어마한 이름을 업고 있었다.

저 쪽에서는 홍수와 같은 이름이 밀려오고 있었다.

그 이름은 세종로도, 중앙청도, 그리고 경무대도 휩쓸어 갈 우렁찬 형세를 보였다.

이때 별안간, 각하의 전용차 속에서 온 천지가 무너지는 듯한 엄청난 벼락이 터졌다. 각하로서는 꿈에도 상상치 못했던 벼락이었다. 그 벼락은 전용차에 장치된 안테나를 타고 들어왔었다.

벼락이 터지는 순간, 각하의 의식은 몽롱해 졌다. 그는 하마터면 완전히 까무러칠 뻔도 했다. 그는 그의 시야가 몽롱하게 가물거림을 느꼈다. 그는 그 몽롱한 시야 속에 하나의 이름이 산산이 부서지며 흩어지는 것이 보였다.

그 다음 순간이었다. 그가 타고 있는 세단형 고급차는 저 쪽에서 밀어닥치는 홍수와 같은 이름에 휩쓸려 어디로인가로 떠내려 가고 말았다. (끝)

윗사람공경하고
아래사람사랑하자



공군본부정훈감실

공군



대한민국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